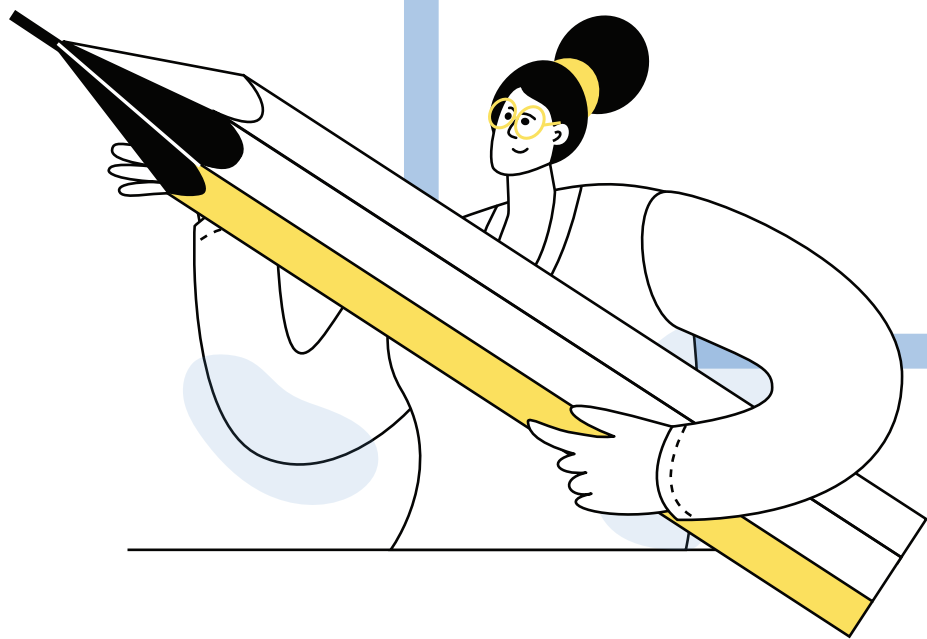


대학 전공별 경력 가이드

역사·고고학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오늘날 청년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맞닥뜨리는 고민과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급격한 기술 발전과 함께 직업세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거나 또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후변화, 전염병 확산, 국제 관계 변화, 인구 고령화 등 우리가 예견하고 있는 사회변화 또한, 청년들의 진로선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OVID-19로 인해, 그간 청년들은 진로와 관련한 네트워킹 및 정보 교류의 기회가 부족했고 현장 실무 참여, 대외활동 참여가 제한되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3년 한국고용정보원은 대학생들에게 전공과 관련한 직업의 심층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문사회 계열 5개, 자연과학 계열 5개, 총 10개 전공에 대한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기존에도 직업정보와 학과정보 자료가 개발되었지만, 각 계열 및 전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직업 및 경력개발 정보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전공별 경력가이드는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경력개발 방법, 주요 진입 과정 등 구체적인 경력개발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생생하고 심층적인 직업 현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공별 평균 40여명의 직업인 인터뷰 결과를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전공 간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대학 현장의 변화를 고려하여, 특정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전공 분야를 소개하였습니다.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는 전공을 선택한 대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한 전반적인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앞둔 고학년 학생에게 구체적인 경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사회 및 직업세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등단계 청소년의 진로개발과 진로지도 실무자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가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비롯해 초·중등 학교 그리고 대학 및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진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도 유용한 진로지도 정보서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 제작에 헌신한 모든 연구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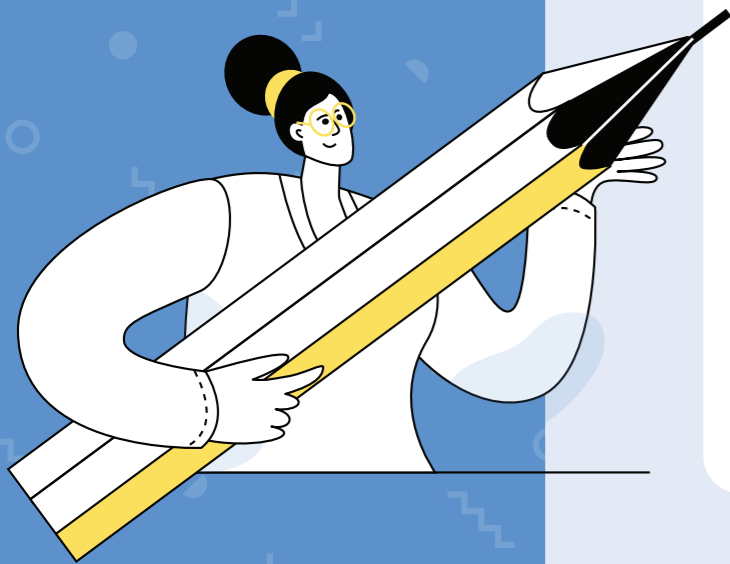
2023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김영중**

2023년도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

역사·고고학

CONTENTS



Intro 006

Part 01. 종합요약 009

Part 02. 전공 개요 015

Part 03.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가. 경영·사무직

01. 문화재감정사 026

02. 문화상품기획자 034

나. 연구직

03. 역사학연구원 042

04. 유적발굴원 054

05. 고전번역가 066

06. 문화사연구원
(민족문화연구원) 078

07. 문화재실측설계기술자 082

08. 역사게임기획자(게임기획자) 086

다. 교육·사회복지직

09. 문화유산교육사 090

10. 박물관교육사 094

11. 역사고고학 교수
(인문학교수) 102

12. 역사고고학 학원강사
(인문사회학원강사) 112

13. 중등학교역사교사
(중등학교교사) 120

14. 한국문화강사 128

15. 역사교재개발원
(교구교재개발원) 132

16. 전통놀이강사 140

라. 예술·디자인·방송직

17. 기록연구사 148

18. 소장품관리원(레지스트라) 156

19. 학예연구사 164

20. 디지털문화재복원전문가 180

21. 문화재보존가
(문화재보존원) 188

22. 문화재분석원 196

23. 문화재스토리텔링작가 200

24. 미술아키비스트 208

25. 여행작가 216

26. 역사게임시나리오작가
(게임시나리오작가) 224

27. 역사극·다큐작가
(극작가, 다큐작가) 228

28. 역사웹툰작가(웹툰작가) 236

29. 역사전문기자(취재기자) 244

30. 역사출판물기획자
(출판물기획자) 252

31. 역사콘텐츠크리에이터
(미디어콘텐츠창작자) 260

32. 역사평론가(평론가) 264

33. 역사프로그램프로듀서 268

34. 영화큐레이터 276

35. 입체영상콘텐츠개발자 280

마. 여행·숙박직

36. 전문도슨트 288

37. 문화관광해설사 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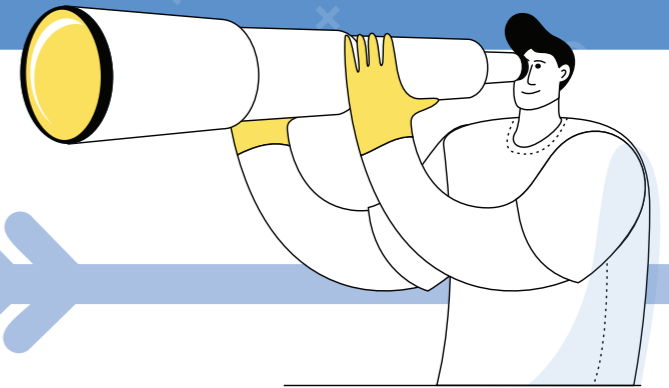
38. 여행상품개발원 300

39. 여행안내원 304

바. 영업·판매직

40. 미술품경매사 308

41. 아트컨설턴트 312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는 어떤 목적으로 개발되었나요?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는 각 전공에서 배우는 내용과 졸업 후 주로 진출할 수 있는 주요 직업 혹은 전공과 더불어 다른 준비를 병행하여 진출이 가능한 직업들을 소개하고 향후 전망과 준비 방법은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중등단계 청소년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졸업 후 입직을 위한 구체적인 경력 정보 습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진로지도 실무자

중등단계 및 대학의 진로지도 실무자가 진로지도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는 'Part 1. 종합 요약', 'Part 2. 전공 개요', 'Part 3.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종합요약」은 전공 진출영역 유형, 전공 진출직업 목록을 의미합니다.
- ✓ 「전공 개요」는 전공 기초 개요(관련 학과 명칭, 전공 주요 영역 개요 등), 전공별 주요 역량 개발 분야와 교과목(전공 세부 영역별 교과목 명칭 및 역량개발이 가능한 영역에 대한 정보 등), 전공별 유관 산업 등 정보를 의미합니다.
- ✓ 「전공 관련 진출 직업」은 전공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으로, 「주요 진출 직업」 주로 진출할 수 있는 직업 혹은 해당 전공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 「확장 진출직업」은 현재의 전공을 기초로 하여 타 분야의 지식과 기술, 역량을 추가로 습득하여 진출 가능한 직업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의 전공과 더불어 다른 준비를 병행하면 진출이 가능한 직업에 해당합니다.

PART

1

종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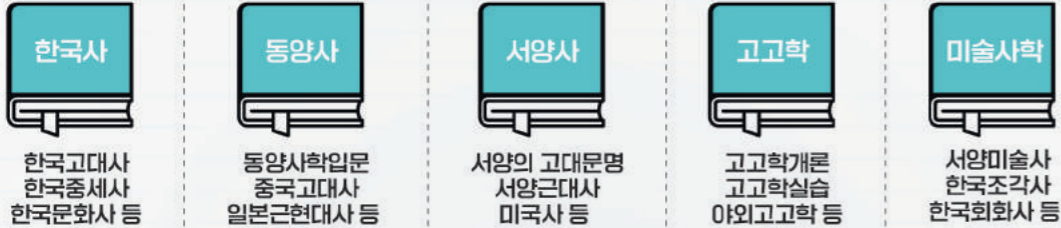
SUMMARY



역사·고고학

우리나라와 동·서양 세계 각지의 역사적 흐름 및 문화적 특징과 인류가 남긴 유형 문화유산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주요 영역 및 교과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직업정보 소개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 주요 진출 및 취업처**
진출 가능한 기관 정보
- 적합한 사람 및 필요 역량**
직업과 관련한 적성, 흥미, 가치관 및 지식, 기술, 태도 정보
- 하는 일**
직업과 관련한 직무 정보

구체적인 경력개발 방법

- 경력개발방법**
직업과 관련한 전공, 대학(비) 교과자격증 등의 정보
- 주요 진입과정**
경력 경로, 입직 요건 관련 정보

생생하고 심층적인 조언

- 관련 정보처**
직업 관련 유관 기관의 홈페이지 및 자료
- 핵심 조언**
해당 직업과 관련한 전문가 및 직업인의 조언
- 직업인 인터뷰**
입직 과정, 업무 수행 과정, 준비 사항 등의 인터뷰 내용

역사·고고학 전공 진출직업 목록

영역명	연번	직업명	한줄 요약	주요·확장 구분
경영·사무직	1	문화재감정사	문화재의 진위여부를 감정하고 역사적, 예술적, 시장적 가치를 평가하며, 공항 및 부두에서 해외반출 문화재의 해당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문화를 감정하는 자	주요
	2	문화상품기획자	역사와 문화예술을 상품으로 기획하고 판매하는 자	확장
연구직	3	역사학연구원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인간활동에 대해 조사하고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자	주요
	4	유적발굴원	매장되어 있는 유적이나 유물을 발굴·조사하고 발굴유물을 연구하는 자	주요
	5	고전번역가	개인문집, 역사문헌 등 한문으로 작성된 고전문헌을 정독하고 교감하여 현대 한국어로 옮기는 자	확장
	6	문화사연구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미래 한국의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 한국문화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자	확장
	7	문화재실측 설계기술자	문화재 또는 전통건축, 등록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실측조사, 간략한 지표조사, 간략한 고증을 하고 보수공사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확장
	8	역사게임 기획자 (게임기획자)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컴퓨터게임의 아이템과 스토리, 캐릭터 등을 구성 및 기획하고 제작 과정을 관리하는 자	확장
	9	문화유산 교육사	문화재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교육을 시행하며 평가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주요
	10	박물관교육사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개발하고, 전시에서 교육에 관한 분야에 조언을 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자	주요
교육·사회복지직	11	역사고고학교수 (인문학교수)	대학에서 역사·고고학 분야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학생들에게 역사·고고학 및 관련 분야의 이론과 지식을 강의하고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자	주요
	12	역사고고학 학원강사 (인문사회학원강사)	학원에서 역사학 등 각종 성인용 고시 및 입시에 출제되는 과목을 가르치는 자	주요
	13	중등학교 역사교사 (중등학교교사)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역사 과목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자	주요

영역명	연번	직업명	한줄 요약	주요·확장 구분
교육·사회복지직	14	한국문화강사	다문화센터나 한국문화센터 등에서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어린이들, 또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교육하는 자	주요
	15	역사교재개발원 (교구교재개발원)	교육 관련 출판사 및 제조회사 등에서 학생들의 학습에 유용한 교재나 교구(교육용 도구)를 개발하는 자	확장
	16	전통놀이강사	전통놀이 및 전통문화의 시연과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자	확장
예술·디자인·방송직	17	기록연구사	행정기관, 대학, 공사·공단, 기업, 단체 등의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 평가, 보존, 활용하는 자	주요
	18	소장품관리원 (레지스트라)	수집된 문화재 또는 예술품을 등록하고 보관·관리하는 자	주요
	19	학예연구사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객을 위해 전시회 기획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작품을 수집·관리하는 자	주요
	20	디지털문화재 복원전문가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원형대로 복원하는 자	확장
	21	문화재보존가 (문화재보존원)	역사적·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조물, 서적, 미술품, 공예품, 조각품 등의 유형문화재를 보존·수리·복원하는 자	확장
	22	문화재분석원	문화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복원 및 보존처리하기 위하여 각종 분석기기를 조작하여 문화재를 분석하는 자	확장
	23	문화재스토리텔링 작가	문화재청, 지자체의 문화 관리기관 등에 종사하며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거나 특정 문화재에 흥미로운 스토리를 입혀 그 문화재의 홍보를 촉진하는 자	확장
	24	미술 아키비스트	연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록들을 수집하고 정리·기술하고, 디지털화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일반인들에게 열람 서비스를 하며 전시·출판에 활용하는 자	확장
	25	여행작가	여행을 하며 취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사이트 등의 각종 매체에 여행 기사를 기고하거나 여행 서적을 저술하는 자	확장
	26	역사게임 시나리오작가 (게임시나리오작가)	기본적인 스토리를 토대로 세부적인 게임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자	확장
	27	역사극·다큐작가 (극작가, 다큐작가)	연극·영화·다큐멘터리 등의 제작을 위해 문화작품을 창작하거나 각색하고 대본을 작성하는 자	확장
	28	역사웹툰작가 (웹툰작가)	인터넷을 통해 흥미로운 이야기와 재미있는 그림으로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전달하는 자	확장

영역명	연번	직업명	한줄 요약	주요·확장 구분
예술·디자인·방송직	29	역사전문기자 (취재기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역사·고미술·문화유산 관련 사고·사건과 정치·경제 소식, 생활 정보 등을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신속하게 알려 주는 일을 수행하는 자	확장
	30	역사출판물 기획자 (출판물기획자)	출판물의 출간 방향을 세우고 작가 섭외부터 수록될 원고 검토와 영업 전략 수립까지 출판물 기획 및 제작에 관련된 모든 역할을 하는 자	확장
	31	역사콘텐츠 크리에이터 (미디어콘텐츠창작자)	유튜브 등 광고 기반 플랫폼에 개인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올리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자	확장
	32	역사평론가 (평론가)	역사적 이슈를 평가하고, 방송 또는 출판을 위한 평론을 작성하는 자	확장
	33	역사프로그램 프로듀서	역사프로그램(스튜디오에서 녹화하는 정보나 토크 혹은 가벼운 오락 프로그램)을 기획·제작 총괄하고 관련 종사원들의 활동을 지휘하는 자	확장
	34	영화큐레이터	주제에 맞는 영화를 선정·추천하거나 상영 후 관람객들에게 화에 대한 해석 및 관련 정보,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달함으로써 심도 있는 영화감상을 돕기 위해 영화를 해설하는 자	확장
	35	입체영상 콘텐츠개발자	3D 입체영상기술(3D stereoscopy)을 활용하여 다양한 3D 입체영상 콘텐츠를 개발하는 자	확장
	36	전문도슨트	전시 작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해석하여 미술관 및 박물관 관람객에게 해설하는 자	주요
여행·숙박직	37	문화관광 해설사	관광객들에게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자	확장
	38	여행상품개발원	여행사에서 관광 상품을 기획, 개발하며 고객과의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자	확장
	39	여행안내원	국내·외를 여행하는 개인이나 단체 여행객들이 쾌적하고 보람 있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확장
영업·판매직	40	미술품경매사	미술품 출품을 의뢰 받아 인터넷 또는 모임장소에서 입찰품목을 설명하고 경매를 진행하는 자	확장
	41	아트컨설턴트	고객에게 주택이나 사무실 등의 공간에 어울리는 그림, 조각 등의 미술작품을 제안하고, 미술품을 설치·관리하는 자	확장

PART

2

전공 개요

우리 학과에서는?





전공 개요

①

역사학 전공



역사학은 우리나라와 동·서양 세계 각지의 역사적 흐름과 문화적 특징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다루는 학문으로 크게 한국사, 서양사, 동양사 분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역사학은 인류 발전과정과 그에 따른 사회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다루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의 기초 소양을 쌓을 수 있으며, 비판적 사고력과 인문학적 소양 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에 흥미를 가지고 그 소양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역사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박물관·문화유산·학술단체·출판 관련 진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으며, 역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문제 전문가나 관광·여행 전문가로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 특성상 인문·사회과학의 전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되므로 언론기관이나 국내·외 기업체의 기획·문화·홍보 분야에서 활동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전공명

(한)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역)사학과, 역사문화학과, 융합전공학부 국사학-도시역사경관학 전공, 역사콘텐츠학과,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역사·영상콘텐츠학부 등

한눈에 보는 역사·고고학

한국사 한국사학(또는 국사학)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학습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시대에 따라 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고려시대사), 한국근세사(조선시대사),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전공 주요 영역

동양사 동양사학은 광활한 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시대에 따라 고대, 중세, 근대, 현대사로 나뉘며 지역에 따라 일본사, 중앙유라시아사, 동남아시아사, 인도사, 서남아시아사 등이 포함됩니다.

서양사 서양사학은 보통 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유럽, 남북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역사를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시대별로는 고대사, 중세사, 근세사, 근대사, 현대사로 나뉘며, 각 지역·국가에 대한 역사가 포함됩니다.



전공 주요 교과

한국사 한문사료강독, 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세사,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 한국정치사, 한국사회경제사, 한국문화사 등

동양사 동양사학입문, 동양사한문사료강독, 중국고대사, 일본근현대사, 동서문명교류사, 해역아시아사, 중국근대사 등

서양사 사료로 보는 서양사, 서양의 고대문명, 서양근대사, 미국사, 서양의 문화적 전통, 시민혁명과 근대사회 등



관련 자격증

국가 자격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중등
정교사(2급), 한국사능력검정시
험,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재수리
기술자 등

민간 자격

역사체험지도사, 역사논술지도
사, 역사미술지도사, 창의역사지
도사, 역사동화놀이지도사 등

진출 분야 정보

정부 및 공공기관

국사편찬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문화재청, 독립기념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학예연구실,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동북아역
사재단,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연구 및 교육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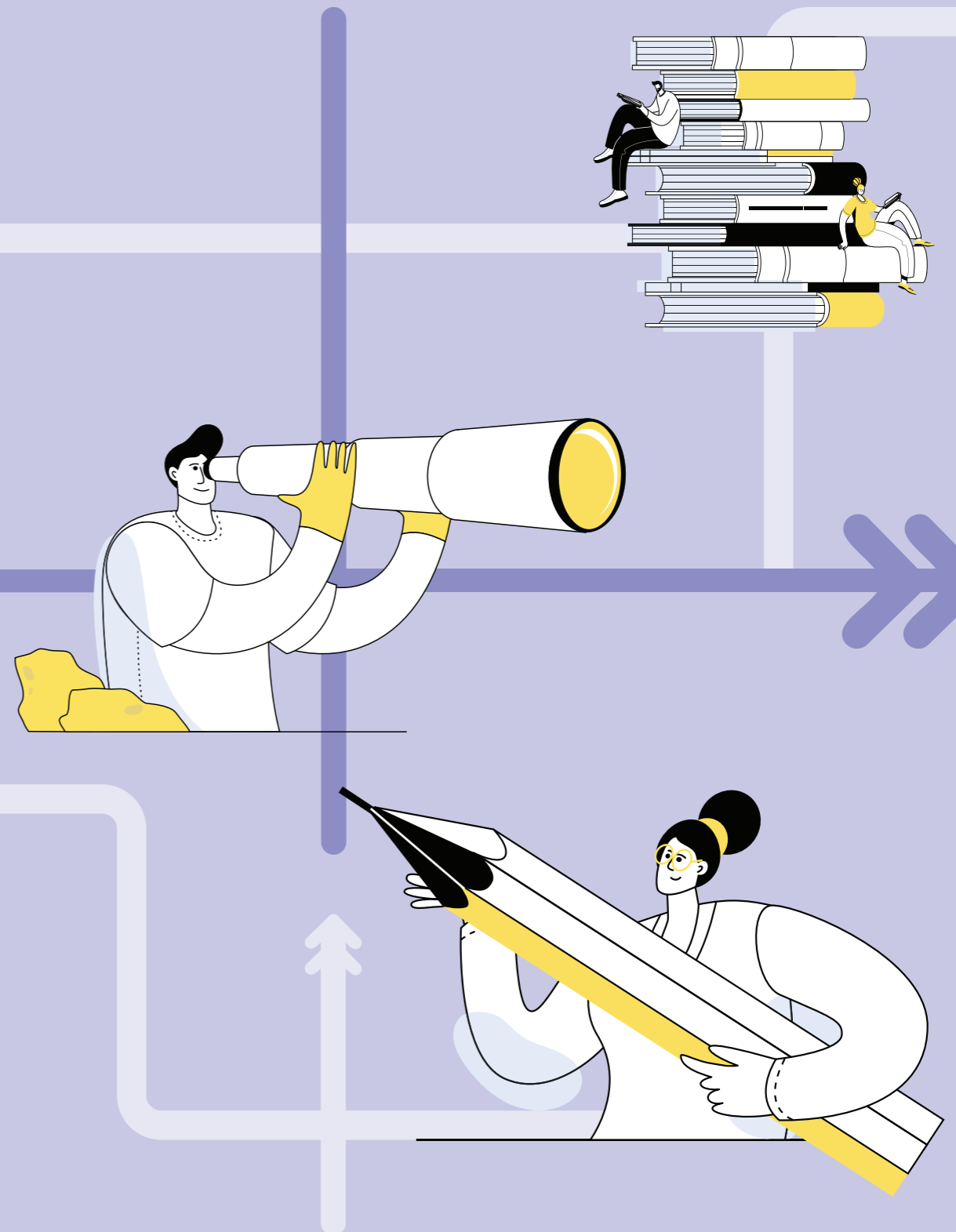
대학교 내 역사 관련 연구소, 중·고등학교, 대학교, 사설 학원 등

기업체 및 민간기관

기업 문헌 자료실, 기업 홍보팀, 게임 회사, 언론사, 방송국, 출판사, 여행사 등

기타(창업/창직)

프리랜서(출판업, 번역업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등





전공 개요

②

고고학 전공



고고학은 인류가 남긴 유형 유산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걸친 문화 유산을 연구하여 인류가 남긴 문화의 성격을 일상생활에서 예술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규명하는 학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고고미술사학과 전공으로 편제가 되어있는데, 이는 두 분야가 공통적으로 인류가 남긴 유형 유산을 일차적인 연구 대상으로 하며,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갖고 근대학문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입니다. 고고학 분야의 경우 유적과 유물을 발굴·분석하여 과거 문화의 복원 및 문화변동 과정 규명을 주목적으로 하며, 미술사학의 경우 한 지역, 한 민족 나아가 인류 전체의 예술 활동과 양식, 시대적 특성 등을 연구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경제 및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고고미술사 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졸업생은 고고미술사학에 대한 광범한 문화적 지식을 기반으로 언론계, 각종 문화 산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보다 전문적인 수업과 연구를 통해 학계,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직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전공명

문화재학과, 문화재보존학과, 고고미술사학과(고고학전공, 미술사학전공), 역사고고학과, 융합고고학과, 문화유산융합학부, 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등

한눈에 보는 역사·고고학



전공 주요 영역

고고학

고고학은 주로 선사·고대문화에 이르는 시기를 집중적으로 연구합니다.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거쳐 확보한 자료로 옛사람의 생활상 및 문화를 복원하고 체계화시키기 위해 고고학이론을 학습하고 현장에서 실습합니다.

미술사학

미술사학은 한 지역, 한 민족 나아가 인류 전체의 예술활동을 연구하여 양식, 유파, 시대구분 등을 발견, 설정하고 그에 따른 역사적 의의 등을 규명하여 인간 생활과의 관련성을 탐구합니다.



전공 주요 교과

고고학

고고학개론, 고고학 이론, 고고학 실습, 고고학자료 계량분석, 문화유산답사, 불교고고학, 삼국시대고고학, 야외고고학, 청동기시대고고학, 신석기시대고고학, 한국고고학개론, 한국중세고고학, 문화유적답사와필드워크, 유물의 이해와 실습, 야외조사장비활용실습 등

미술사학

한국미술사개론, 서양미술사, 미술사 실습, 동아시아미술사론, 한국회화사, 한국조각사, 서양현대미술, 한국 공예와 디자인, 아시아 미술과 종교 등



관련 자격증

국가 자격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중등
정교사(2급), 한국사능력검정시
험,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재수리
기술자 등

민간 자격

역사체험지도사, 역사논술지도
사, 역사미술지도사, 창의역사지
도사, 역사동화놀이지도사 등

진출 분야 정보

정부 및 공공기관

문화재청,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서실, 한국관광공사,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연구 및 교육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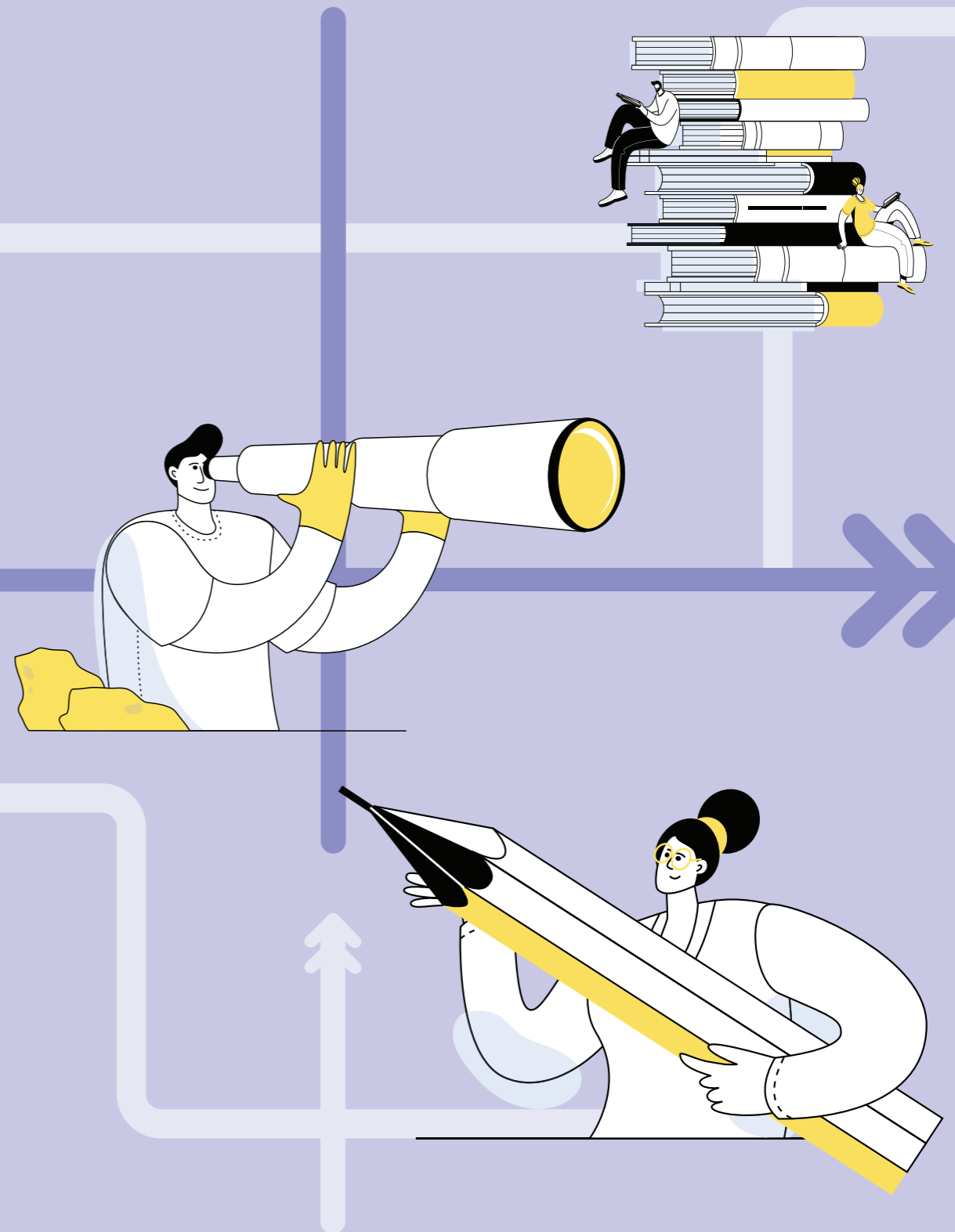
대학교 내 고고학 관련 연구소, 중·고등학교, 대학교, 사설 학원 등

기업체 및 민간기관

기업 문헌 자료실, 기업 홍보팀, 게임 회사, 언론사, 방송국, 출판사, 여행사,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등

기타(창업/창직)

프리랜서(출판업, 번역업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등



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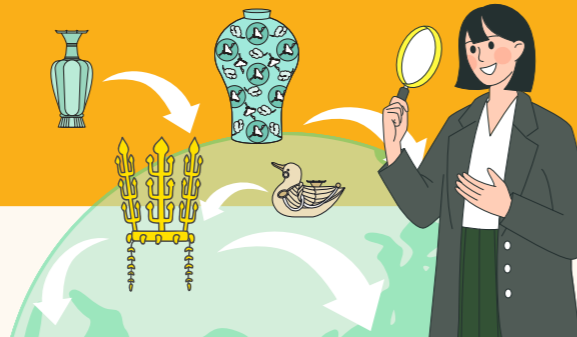
3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문화재감정사

문화재의 진위여부를 감정하고 역사적, 예술적, 시장적 가치를 평가하며, 공항 및 부두에서 해외반출 문화재의 해당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문화재를 감정하는 자



유사명칭

문화재전문위원, 문화재감정위원, 문화재감정평가사

주요 진출 및 취업처

- ▶ 국제공항 및 여객터미널의 문화재감정관실
- ▶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소속의 공무원 등 동산(動産)문화재 관계 분야
- ▶ 미술감정업체, 미술협회, 옥션 등

적합한 사람

- ▶ 동산, 부동산, 무형 자산 등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
- ▶ 감정품의 가치에 대해 깊게 탐구할 수 있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문화재로 의심되는 물품을 감정하여 해외 반출 대상 품목 여부 판별
- ▶ 감정되지 않은 물품 신고가 들어올 경우 출국장에 가서 직접 감정
- ▶ 문헌 정보를 참고하거나 여러 감정위원과 협의하여 물품 감정
- ▶ 감정 물품 목록, 물품 소지자의 신상 명세, 물품 감정 결과 등 감정 내용과 관련한 보고서 작성
- ▶ 시·도 및 기타 문화재의 지정 혹은 압수문화재 평가를 위한 감정



필요역량

지식 그림, 문화재,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

기술 공간지각력,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수리능력, 꼼꼼함과 세밀함, 의사소통 능력 등

태도 이해관계에 따라 감정평가의 결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감정할 수 있는 윤리의식, 직업의식 등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사학(국사학, 동양사학, 미술사학), 서지학(문헌정보학), 고고학(고고인류학, 고고미술사학), 민속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과 등
- ▶ 대학 교과목: 고고학, 미술사학, 인류학, 문화사, 보존과학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대학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재지표조사, 발굴조사 등에 보조원으로 참여하여 문화재 조사의 실무를 경험함으로써 문화재 관련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음.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학교의 부설 연구소 또는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며 문화재 감정 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이 일반적임.
- ▶ 일경험: 미술관, 박물관에서의 인턴십
- ▶ 자격증: 문화재 수리 기능자(국가), 문화재 수리 기술자(국가) 등
- ▶ 자기주도적 활동: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양성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음.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서지학과, 민속학과, 박물관학, 문화재진단감정학과 등
- ▶ 경력경로: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물품의 문화재 여부 감정 경력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력



관련 정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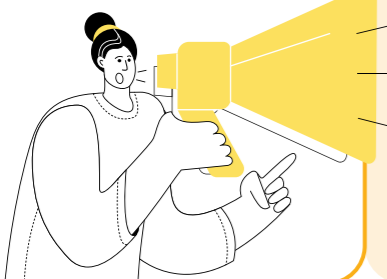
- ▶ 문화재청 www.cha.go.kr
- ▶ 국립문화재연구원 www.nrich.go.kr
- ▶ 한국감정원 www.kab.co.kr
- ▶ 한국감정평가협회 www.kapanet.or.kr
- ▶ 한국고미술협회 www.hkoms.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문화재감정사가 되기 위해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학력이나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문화재 진위 여부와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그림과 문화재,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관련 학과인 고고학이나 미술사학 등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또한 해외로 반출된 많은 우리 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연구하고 돕기 위한 사명감도 필요합니다.

직업인 인터뷰



문화재감정사

A 문화재 정부기관/000 문화재감정위원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저의 주요 업무는 국외 반출 예정 물품의 문화재 여부를 감정하는 것과 국내 문화재 불법 반출 방지 및 감시 업무와 감정 및 검색 방법 개선에 대한 연구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감정관실은 1968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문화재 국외반출 금지 등 반출 절차와 제도 등을 모르는 국민이 많아 안내 및 홍보 업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검색요원을 대상으로 일 년에 네 차례 정도 문화재 검색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학부는 미술대학 도예과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고, 대학 생활 중 미술사학과 대학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자사의 경우 석사논문을 쓰기 전 2년 6개월 정도 조선시대 가마터의 발굴조사에 참여하였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조사를 진행한 박물관에서 기관장 발령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원으로 일하는 동안 주 1회 정도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비상근 문화재감정위원으로 일했고, 이후 문화재감정위원과 대학 강의

등 관련 업무를 병행하였습니다. 상근 문화재감정위원은 인원이 매우 적어, 기존 감정위원이 이직하거나 혹은 퇴직하면 그 자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상근 감정위원으로 일하기 시작해 몇 년 뒤 상근 감정위원 자리가 생겨 지원하였고,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국내 문화재가 국외로 불법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지, 문화재의 상태가 원래의 형태 및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종류·형태 등 희소성이 있는지,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지, 특정 시대 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지 등 추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재로 판단해 반출 불가 조치를 내립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비문화재로 판단해 반출허가 하고 비문화재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업무루틴) 문화재 감정은 민원인의 방문·신청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원인이 국외반출 물품을 가지고 문화재감정관실에 방문하면, 문화재감정위원이 항공권(당일 출발)과 여권을 확인하고 물품 감정을 진행합니다. 이때 두 명 이상의 감정위원이 함께 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 신청 절차를 모르는 민원인이 미술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동산을 가지고 출국할 경우 보안 검색요원이 제지한 후 문화재감정관실로 연락을 합니다. 문화재감정위원이 출국장으로 가서 현장 감정을 한 후 구두로 반출가능 여부를 통보합니다.

(장점) 이론으로 공부한 문화재의 역사와 시대적인 변천, 가치 등을 종합해 전문가로서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전공지식과 관련 업무의 경험, 문화재 유통의 현황 등 다양한 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최종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전문가로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방지하고, 예방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도 보람을 느끼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다만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한 감정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점이 어렵습니다. 물론 관련 지식과 경력 등으로 비교적 익숙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민이 되는 건도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물품을 보여주지 않겠다던가,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등 업무에 비협조적일 경우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 또는 어려운 점)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한 감정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점이 어렵습니다. 물론 관련 지식과 경력 등으로 비교적 익숙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민이 되는 건도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물품을 보여주지 않겠다던가,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등 업무에 비협조적일 경우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원자 대부분이 관련학과 학사, 석사, 박사학위 취득자인 경우가 많아, 관련 경력만으로는 서류 전형 통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재감정위원이 되고 싶다면, 먼저 관련 학과에서 전공지식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 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문화재를 다루는 박물관·미술관에서의 경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화재 감정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문화재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지식, 문화재 국외반출 금지에 대한 관련 지식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재감정위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질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통해 문화재감정 관련 전문지식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재학 중에 기회가 된다면 대학박물관에서 일해볼 것을 권합니다. 문화재를 다루는 방법, 보는 안목, 문화재 관련 업무의 진행 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을 쌓으면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증”(국립중앙박물관)에 도전해 보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그 외 여유가 된다면 문화재청이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등 문화재 관련 기관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해 활동해 볼 것을 권합니다.

(재학 중 경험) 우선 학교에서 접할 수 있는 과목들을 최대한 수강 혹은 청강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최대한 다양한 관련 학과 과목을 수강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사 전공 분야) 현재 문화재감정위원은 상근과 비상근 미술사학·고고미술사학 전공자가 대부분입니다. 관련 학과는 사학(국사학, 동양사학, 미술사학), 서지학(문헌정보학), 고고학(고고인류학, 고고미술사학), 민속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과 등이 있습니다. 관련 학과를 폭넓게 규정하고는 있지만 역시 문화재를 직접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관련 학과에 속하더라도 문화재감정위원이 되고 싶다면, 문화재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과를 복수 전공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축적되는 자료와 연구 성과 등을 파악해야 정확한 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공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정 대상 문화재 전반을 직접 보는 기회를 자주 가지려 노력합니다. 전공 분야인 도자기는 물론 일반회화, 불교미술, 서예 등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 대상이 되는 모든 분야의 전시와 실물 조사 등은 기회를 만들어 자주 보려고 노력합니다. 문화재를 자주 보아야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문화재와 문화재의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문화재감정위원에 도전해 볼 것을 권합니다. 역사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전문 연구자의 길을 걷거나 관련 업무를 실무로 하는 둘 중 하나의 길을 걷기 마련입니다. 문화재감정위원은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혹은 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점이 매력 중 하나입니다. 전국의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좋은 전시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주 시간을 내 우리 문화재 관련 전시를 관람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알기 위한, 느끼기 위한 관람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분이 된다면, 이미 문화재감정위원으로서의 길로 접어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MEMO

문화상품기획자

역사와 문화예술을 상품으로 기획하고 판매하는 자



✓ 유사명칭

문화마케터

✓ 주요 진출 및 취업처

- ▶ 기업의 마케팅부서 또는 홍보부서
- ▶ 문화마케팅 전문업체
- ▶ 역사문화예술 전문업체 및 단체 등

✓ 적합한 사람

- ▶ 다양한 문화와 예술 분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지닌 사람
-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
- ▶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일정을 준수하고 예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수 있는 능력과 스킬을 지닌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기업의 문화경영, 도시와 지역의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역사문화예술단체 행사의 마케팅 담당
- ▶ 기획사나 대행사에서 일하는 경우, 행사의 국내외 마케팅전략을 기획
- ▶ 기업의 마케팅부서나 홍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상품판매율을 높이거나 기업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예술을 활용한 전략과 계획 수립
- ▶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업이 공연이나 전시를 후원하도록 함
- ▶ 소비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해 문화예술을 통해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전략 수립
- ▶ 문화마케팅 전문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문화예술을 상품으로 만드는 업무 수행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필요역량

- 지식** 역사문화예술에 대한 지식, 마케팅 등
- 기술**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창의력, 분석력, 판단력 등
- 태도** 사회성, 외향성, 협조성, 적응성 등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경영학, 경제학, 마케팅학, 광고홍보학, 역사학, 고고학 등
- ▶ 대학 교과목: 마케팅원론, 마케팅 전략과 관리의 이해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동아리 및 소모임 활동 등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서울아트스쿨 문화예술원의 문화마케팅 전문가 과정,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 글로벌 리더 과정 등
- ▶ 일경험: 대학 내 모집하는 인턴십 활동을 통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 기업 인턴십 및 역사문화예술 단체의 행사 참여 등
- ▶ 자격증: 마케팅 빅데이터 관리자(민간), 관광통역안내사(국가) 등
- ▶ 자기주도적 활동: 다양한 문화생활을 통한 문화에 대한 지식과 시각 함양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역사문화예술 콘텐츠와 관련된 유관 전공을 함께 공부하면 이 분야 준비에 유리
- ▶ 경력경로: 주로 공채과정을 통해 채용이 이루어지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채용됨. 채용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면접 때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과 흥미 그리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와 창의성 등을 중요하게 평가함.



관련 정보처

-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www.arko.or.kr
- ▶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 ▶ 한국문화정보원 www.kcisa.kr
- ▶ 한국콘텐츠학회 www.koreacontents.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문화상품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문화생활을 통해 역사와 문화, 예술 전반에 대한 지식과 시각을 확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마케팅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지 잘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직업인 인터뷰



문화상품기획자

A 역사문화 단체/000 활용실장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저는 현재 역사 문화 단체에서 2019년부터 활용 실장으로 있습니다. 이전에 행사대행사에서 해외 마케터로 근무하였고,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의 궁중문화축전을 1회부터 진행하는 등 역사 문화 행사기획 연출, 연구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단체는 문화재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다양한 일을 보조하고 수행하고 있는데, 저는 활용실장으로서 문화재 활용, 역사 문화 활용 행사를 기획하고 연출뿐만 아니라 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영어와 스페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일어까지 구사하게 되면서 TV와 라디오 광고 제작 외의 모든 행사, 대통령 행사, 국제회의, 전시, 이벤트 등 국내 뿐만 아니라 주로 해외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부터는 유엔의 국제 NGO(비정부기구)의 일을 시작하였는데 한국의 역사 문화 분야의 NGO가 많지 않고 행사기획력과 연출을 직접 하며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2015년부터는 역사 문화 분야 단체의 일을 도와주면서 이 분야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주한 외교관들과의 역사 문화 교류도 늘어나 문화재청과 역사 문화 분야 단체 최초로 주한 외교관들과의 문화재 야행 행사를 기획 및 연출, 운영도 시작하여 저만의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엔과 유네스코에 역사 문화 전문 국제 NGO로도 만들 일도 전담하여 준비하는 중입니다.

(업무루틴) 제일 먼저 이메일을 확인하고 답신하고 계획한 업무들을 급한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업무의 일정이 최소한 2~3개월 전부터 계획되어 있어 그에 따른 준비 업무가 주입니다.

(장점) 문화재청, 사학과 교수 및 연구원과 함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역사를 알게 되고 이를 국민들에게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한 행사를 기획하고 연출하므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주한 외교관들과 외국인들에게도 알려주므로 민간·공공 외교관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 또는 어려운 점) 역사 문화 분야의 비영리 공익단체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회비와 기업의 후원이 필요한데 환경이나 사회복지 등의 다른 분야의 단체들에 비해 기업체들의 후원이 많이 부족한 것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기업과 대표들의 역사관에 대한 인식 때문에 쉽지 않아 수익사업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한국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실행하는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총 약 400여 개의 행사들이 있고, 궁중문화축전을 비롯한 3대 축전이 있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역사 문화 관련 행사들을 다 합하면 근 1천여 개의 역사문화행사들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문화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행사의 기획력, 연출력도 필요하겠지만, 역사적 사실대로 기획하고 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 그대로 연출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상 효율적인 방법으로 행사를 기획하는 역량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문화재 및 역사의 연구와 발굴 외에 이를 활용하는 분야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외국어 능력도 키우면서 행사 기획사나 대행사 또는 역사 문화 관련 NGO(비정부기구)에서 경험, 활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나 역사 문화 관련한 국제기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준비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학 중 경험) 유엔의 국제 NGO 일을 하면서 학사와 석사까지 공부하게 되었고 이에 관한 논문까지 쓰면서 한국에는 현재 역사 문화 관련한 국제 NGO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 문화 관련한 국제 NGO와 국제기구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유사 전공 분야) 한국의 역사가 한반도에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고 삼국시대 때부터 외국과 이미 교류했으며 한민족의 인류와 문화가 남미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정치외교학, 국제교류학, NGO학, 인류문화학, 언어학, 음악사, 미술사, 철학, 조경사, 건축사, 종교사 등 인류의 역사와 사회문화와 관련한 전 학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역사 문화 관련 분야이든 다른 분야이든 석사 또는 박사까지의 학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면 연구용역의 일도 할 수 있고 유엔이나 국제기구에 취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

니다. 석사과정을 하는 데 있어 학비도 저렴하며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원으로 해보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유엔과 유네스코에 역사 문화 전문 국제 NGO로 허가 등록하여 유네스코 유산과 K-공유유산에 대해 주한 외교관들과 외국 국가와 교류하고 공유하는 역사 문화 전문 민간공공외교관의 대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선진문화강국을 만드는 것이 김구 선생님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역사의식은 우리 인간의 모든 분야에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한민족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역사를 바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다시 배우고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문화상품기획자, 역사문화상품기획자가 되시길 바라며, 이러한 우리 한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역사 문화를 새로운 한류로서 전 세계에 알리는 민간·공공외교관 역할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MEMO

역사학연구원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인간활동에 대해 조사하고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자



유사명칭

사학자, 역사학자

주요 진출 및 취업처

- ▶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역사편찬원 등 역사 관련 기관
- ▶ 대학 부설 역사학 연구 기관
- ▶ 지방자치단체 소속 역사·문화 관련 연구기관

적합한 사람

- ▶ 역사적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 ▶ 꼼꼼하게 자료를 살피는 성향을 가진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지역별, 시대별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 기록 및 연구
- ▶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의 자료, 개인 소장 자료, 역사적으로 유용한 자료 수집·분석, 평가
- ▶ 역사관의 흐름, 역사의 시대 구분, 역사 인식 문제 등의 연구를 통한 현대 사회의 과제 인식
- ▶ 사료의 비판적 탐구를 통한 역사 이론의 당면 문제 연구
- ▶ 과거 사건에 대한 원본 자료와 당대의 기록과 유물을 조사하고 연구하며, 관련 자료와 비교하여 역사적 사실을 판단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필요역량

- 지식** 역사학 관련 지식 및 한문, 영어 중국어 등 관련 외국어 지식
- 기술**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 및 평가할 수 있는 객관성, 논리적 사고력, 판단력, 통찰력 등의 수리·논리력
- 태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정신과 호기심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한)국사학과, (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역사콘텐츠학과 등
- ▶ 대학 교과목: 한국 고대사, 조선시대사,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 유럽사특강, 중국고대사, 중국근세사, 중국 근현대사, 서양고대사, 서양근대사, 서양현대사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선배와의 만남, 현직자 특강 등 관련 분야 기 진출자의 진로 특강 참여를 통한 입직 준비 방법 모색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온·오프라인 한문 관련 강의 수강을 통한 한문 독해력 증진, 다양한 학회의 연구모임 참여를 통한 연구 능력 증진
- ▶ 일경험: 한국학중앙연구원 청년인턴 등 관련 기관 직무 체험, 교내 학부 연구생 제도 등
- ▶ 자기주도적 활동: 교내 학부 연구생 신청 및 관련 기관 청년인턴 참여와 역사학회, 한국서양사학회 등 유관 학회 세미나 참석 또는 자료 학습, 그 외 외국어 원서 및 사료 분석 등의 역량 제고에 관련 있는 다양한 활동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한문학,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관련된 유관 전공을 함께 공부하면 이 분야 준비에 유리
- ▶ 경력경로: 역사학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역사학 관련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관련 기관의 공개/특별 채용을 통해 대학교수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진출



관련 정보처

- ▶ 국사편찬위원회 www.history.go.kr
- ▶ 동북아역사재단 www.nahf.or.kr
- ▶ 한국학중앙연구원 www.aks.ac.kr
- ▶ 서울역사편찬원 www.history.seoul.go.kr
- ▶ 역사학회 www.historykor.re.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역사학연구원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것을 왜 하고 싶은지, 꼭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지와 문제의식이 강해야 합니다.

직업인 인터뷰 ①



역사학연구원

A 지자체 산하 역사편찬 기관/000 연구원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제가 재직하고 있는 기관은 A시 문화본부 소속의 4급 기관으로 해방 직후 설립된 시사편찬위원회를 전신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이곳의 '시사편찬과'에서 학예연구직에 있으며 2,000년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기록하고 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다양한 편찬물을 발간하기 위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구'팀의 팀장으로 팀의 예산과 사업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학부에서 사학과(한국사)를 전공한 이후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석사에서 박사로 이어지는 연구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에서 『고려사』를 영문 번역하는 사업 혹은 한중관계 자료를 선별해서 번역하는 사업과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학회 업무에도 참여하여 학회지 발간, 총무 업무 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개인 연구 과제를 토대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원하여 펠로우십, 박사후연구원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편찬원 연구원으로 재직하게 되었

습니다. 개인별로 성향과 특징의 차이 등이 있겠으나, 저의 경우에는 다양한 경험들이 현재까지 연구자로 연구를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및 학회 참여 등은 주변의 다른 연구자들과 소통을 하며 외부로부터 동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 연구 지원을 통해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연구의 타임라인에 맞추어 연구를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외적 자극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저의 직책은 연구자이자 공무원이라는 이중의 정체성을 지니고, 서울 역사에 관한 서적 편찬, 역사학술대회 개최, 강좌 및 답사 운영 등을 통해 역사지식을 전문 연구자 및 일반시민들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찬원에서는 연간 10여 종 25권의 도서 발간, 4종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5종의 교육프로그램(강좌, 답사)을 10명의 전임연구원(공무직, 행정직원 및 사무관 제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이 가운데 담당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업무루틴) 현재 제가 주로 담당하는 발간 업무는 기초사료를 발굴하여 번역하여 발간하는 '00사료총서', A시의 역사에 관한 새로운 주제연구팀을 지원하는 '00역사중점연구시리즈'입니다. 하루에 주로 하는 업무는 연간 담당하는 도서의 발간을 기획하고 의뢰한 원고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수정사항 등을 논의하거나, 향후 발간을 위한 사료 조사 및 주제 기획 등을 하는 것입니다. 도서 발간 및 자료 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출판사 및 관련 기관으로 출장을 가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팀 및 연구원들이 교육프로그램 및 도서 등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필요한 경우 참여하기도 합니다.

(장점) 본 직업의 가장 큰 장점과 매력은 지금까지 배우고 연구한 것을 활용한 실용적인 업무를 한다

는 점일 것입니다. 연구자로서 향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자료 및 연구주제 등을 연구자들에게 지원하여 그 결과물을 도서로 발간한다는 점과 업무가 연구와 불가분의 관계인 만큼 개인 연구가 함께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업무의 특성상 연초에 계획이 수립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계획에 따라 운영되므로 상대적으로 일정 운영이 용이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 또는 어려운 점) 본 기관이 지자체 소속이기에 직위가 '공무원'이라는 점이 다소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갑작스럽게 역사 관련 내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행정감사 혹은 예산감사 등에 관한 자료들을 요청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 간혹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구원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단연 역사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연구자로서의 역량입니다. 역사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발굴하고 섭렵하며 관련 분야의 연구성과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새로운 편찬물과 교육프로그램들을 기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공 소양 외에 대학의 교원 혹은 대학 연구소와 달리 공공기관의 연구원은 관료 조직의 일원으로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는지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이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의 동향과 트렌드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습득하는 것 역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편찬원은 해방 이래로 시사(市史)의 편찬을 담당하며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SNS 및 유튜브를 비롯하여 오디오북, 메타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등이 요구되는 만큼, 이러한 사회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A시에는 역사편찬원 외에도 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공예박물관, 기록원 등 다양한 유관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편찬원을 비롯하여 이들 기관에서는 관련 분야의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에 관심 있는 후배들이 해당 기관에서 출퇴근을 하며 관련 분야의 업무 등을 미리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재학 중 경험) 학교에서 들었던 전공 수업들이 모두 도움이 되었으나, 무엇보다도 수업과 과외활동 가운데 답사 활동과 박물관 학예조교로 활동했던 것이 현재 업무를 보다 수월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의 간접경험들을 통해서 실제 업무 현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역사교육 프로그램들을 기획할 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들을 통해 연구 및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으로 활용하기 위한 ArcGIS Pro 교육, 메타버스 실습 교육, 제2외국어 교육 등은 개인 연구와 경력 수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가능하다면 중단기 국내외 연수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해외 자료 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A시의 역사문화에 관한 해외 소장 자료들을 찾아 발굴하고 이를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보다 많은 연구자들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편찬원에서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맞는 실감서재, 역사 DB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편찬원을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전공한 졸업자가 자기 전공을 토대로 직업을 갖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연구원은 역사 연구자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시에 역사를 매개로 시민을 위한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배우고 탐구한 역사 지식을 토대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학계와 일반 시민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이야기하는 ‘공공역사(public history)’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MEMO

직업인 인터뷰 ②



역사학연구원

A 역사재단/000 연구위원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역사재단 연구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2020년 초 박사학위를 마쳤고, 박사 후에는 2년간 대학 HK사업 및 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이후 현재의 직장으로 이직하여, 현재 2년 차입니다. 일반적인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직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역사 관련 특정 현안을 분담하고, 해당 현안 관련 국내외 동향, 국내외 연구 교류, 연구(자료집, 연구서, 교양서 등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독도문제, 동북공정, 강제동원문제, 일본산업유산문제, 일본군'위안부'문제, 역사교과서왜곡문제 등 외교적 현안이 되는 여러 역사문제 중 자기 전공과 일치되는 문제 한 가지를 한 명이 담당하고, 해당 문제를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대학교 이후 석사과정(2년간)에는 대학원 수업과 학회 활동을 하고, 외국어(일본어) 공부를 했습니다. 박사과정(10년간)에는 연구와 출판(논문 및 번역서, 연구서 등 출간)을 주로 했습니다. 병행해서 국가기관 석사급 연구원으로 5년간 일하였고, 대학 연구소 석사급 연구원으로 5년간 일했습니다.

박사 졸업 후, 2년간 대학 연구소 연구교수로 소속되어 대학 강의를 병행한 이후 현재의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일본 관련 외교현안인 일본근대산업유산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해당 현안과 관련해 올바른 외교 및 역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업무는 관련 국내외 언론동향 중장기 파악, 관련 국내외 회의(유네스코나 유엔 등 국제기구회의부터 국가 간 정상회담 및 국내외 주요 학술회의 등) 동향 파악, 관련 중장기 연구(해외 실태조사, 학술 발표, 출판 등)를 주로 수행합니다.

(업무루틴) 오전에는 언론 동향 파악 및 협의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국내외 관련 동향을 토대로 관련 현안의 언론 동향을 파악합니다. 특정 이슈가 발생한 경우, 외교부 및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사전에 관련 대응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관련 연구를 수행합니다. 관련 학술논문이나 학술서를 쓰거나, 외교부 및 교육부에 배포할 각종 보고서 등을 작성합니다. 이외에 부정기적으로 해외 실태조사를 하거나, 언론 인터뷰 참여, 언론 보도자료 작성 및 특강 등을 수행합니다.

(장점) 정부의 역사관련 정책 및 외교 정책수행에 직접 참여할 수 있기에 연구의 확산력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정부부처 및 국내외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단위와의 협력이 늘어났고, 다양한 업

무, 직위, 분야에 있는 관련자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상 보고서, 대중 강연, 대중서 출판, 온오프라인 전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 또는 어려운 점) 국가 간 외교 현안이 되는 문제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현안이 몇 가지로 압축되어 있어 연구 선택에 경직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협업과 교류가 장점인 동시에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수행 과정에서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정부 부처나 외부의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이 많아 조율해야 하는 점 역시 다소 어려운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요 역사현안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대응 전략을 단시일 내에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전공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교현안이 되고 있는 역사문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 사전지식, 관련 활동 및 연구경험 등이 필수적입니다.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관계자나 기자, 일반 대중(강연 참가자나 민원인 등)까지 다양한 대상과 협업해야 하기에 소통능력이 중요합니다. 해외 이슈를 빠르게 분석하기 위해 1~2개 이상의 외국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해외학자와의 교류가 매월 1회 이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해당 외국어를 이해하고 말하는 능력 역시 중요합니다.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역사 관련 시민단체 및 동아리, 연구기관 등에 참여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기획력과 소통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 관련 동아리나 시민단체에서는 주요 역사현안의 동향이나 관련 역사문제의 당사자를 직접 인터뷰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재학 이후부터는 관련 연구기관에서 석사급 연구원 등으로 참여하며,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아카이빙의 과정,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수행 등의 다양한 과정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해외 연구자의 초청, 해외 연구물의 소개, 해외 언론동향의 파악 등을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적 경험이나 외국어 능력이 갖추어진다면 보다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재학 중 경험) 최근 디지털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빅데이터 활용이나 웹컨텐츠 제작 등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역사 디지털 아카이브의 효율적 운영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 많지만, 인문학 전공자 중 해당 능력을 갖춘 인재(특히 박사급 인재)는 드물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문학을 전공하며, 이러한 디지털 기능을 함께 습득한다면 매우 중요한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재학 중 경험) 외교학, 정치학, 지리학, 문학, 인류학 등의 학과 전공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어요.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연구자로서 연구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웹 콘텐츠로 외국어 강좌를 등록해서 전화 영어 및 비즈니스 영어, 시사영어 등을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원 겸직을 하지 않고, 개인 연구자로서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집중할 계획인데, 관련 연구서나 자료집, 보고서 등을 발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역사문제를 연구하고,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는 작업은 무척이나 매력적입니다. 특히 역사와 관련된 당사자의 명예나 이익을 뒤늦게나마 높일 수 있다는 것도 보람이 느껴집니다. 역사 연구 자체의 흥미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삶을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박사 학위 취득 과정은 아주 긴 마라톤과 같아요. 하나의 문제를 깊이, 오랜 시간 연구하는 경험은 고생스럽지만 연구와 일상생활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심신의 체력을 유지하면서 학위 과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멋진 연구원이 되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MEMO

유적발굴원

매장되어 있는 유적이나 유물을 발굴·조사하고 발굴유물을 연구하는 자



유사명칭

유적발굴가, 유적발굴전문가, 유적발굴연구원

주요 진출 및 취업처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박물관, 재단법인 발굴연구원, 발굴전문법인 등

적합한 사람

- ▶ 탐구형과 관습형의 흥미를 지닌 사람
- ▶ 꼼꼼함과 인내심, 정직성, 사명감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역사자료, 문헌 등을 연구·분석하여 유적지 위치 및 지역 확인 후 현장 지표 조사 실시
- ▶ 고고학, 역사학, 지질학, 민속학, 고생물학자 등과 협의하여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을 결정
- ▶ 현장을 답사하여 매장 문화재가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시굴 조사 실시 및 발굴 순서 논의
- ▶ 삽, 곡괭이, 호미, 붓 등을 사용하여 매장된 문화재 발굴
- ▶ 도자기, 장신구 등 유물 발견 시 발굴 위치·수량·종류 등을 정리하여 기록 및 사진 촬영
- ▶ 발굴조사 완료 시, 발굴조사보고서 간행 및 최신 정보의 학계 소개
- ▶ 연구원(일반)이 수행하는 일반적인 업무 수행



필요역량

지식

사회와 인류, 역사, 지리, 공학과 기술, 산수와 수학, 기계, 안전과 보안 등

기술

장비 선정, 움직임 통제, 신체적 강인성, 판단과 의사결정, 설치 등

태도

책임과 진취성, 인내, 협조, 적응성, 융통성 등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역사학과, 문화유산학과 등
- ▶ 대학 교과목: 고고학실습, 유물의 이해와 실습, 문화유적답사와 필드워크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대학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재지표조사, 발굴조사 등에 보조원으로 참여하여 문화재 조사의 실무를 경험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는 지표조사의 자료정리와 현장 조사 보조, 발굴조사의 현장 조사 보조원으로 참여하여 실무를 익힘으로써 문화재 일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기초조사에서 발굴에 이르는 단계별 업무의 기본 사항을 숙지함.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재단법인 연구원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등에서 수습 아르바이트
- ▶ 일 경험: 문화유산 산업 기관(기업) 인턴 이수
- ▶ 자기주도적 활동: 교내 부설 박물관의 실습 프로그램 신청 및 관련 기업·기관의 청년인턴 참여 등 유적발굴 역량 제고와 관련 있는 다양한 활동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고고학, 미술사학, 사학과 등 역사 관련 전공
- ▶ 경력경로: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물품의 문화재 여부 감정 경력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쌓은 후 문화재감정사 채용 공고에 응시



관련 정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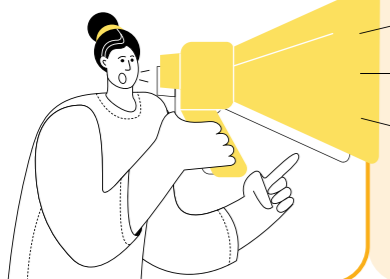
- ▶ 국가문화유산포털 www.heritage.go.kr
-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www.kchi.or.kr
- ▶ 문화재청 www.cha.go.kr
- ▶ 국립문화재연구소 www.nrich.go.kr
- ▶ 중앙문화재연구원 www.jungang.re.kr
- ▶ 경기문화재연구원 www.gjicp.ggcf.kr
- ▶ 한국대학박물관협회 www.kaum.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수백, 수천 년 만에 유물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것이 유적발굴원의 역할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조사지역의 문화재 확인, 굴삭기를 이용한 제토, 유구의 확인과 내부 조사, 사진 촬영, 도면의 실측, 서면 기록 등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유구와 유물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평소 사료와 문헌, 시대 및 성격별 논문을 다양하게 접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업인 인터뷰 ①



유적발굴원

공공기관 A 문화재연구원/000 조사연구팀장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저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소속기관인 OO문화재 연구원에서 2005년 입사하여 약 18년간 근무하면서, 주로 경기도 내 지정 및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기초학술조사, 보존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저는 중간 간부인 조사연구팀장으로서 해당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대학 3학년 여름방학때 박물관에서 실시한 발굴조사에 아르바이트로 참여하면서 문화재 발굴조사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점차 문화재에 대한 배움의 길로 가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하면서 동시에 발굴조사 기관의 계약직 취업을 하여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직으로 일하던 기관에서 취업이 되었고 3년 뒤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경기도 내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보존, 관리 업무를 총괄합니다.

(업무루틴) 중간관리자이므로, 각 사업 별 당일 주요 업무 체크 및 검토, 업무 연락 및 지시 현장 조사 관련 책임자이므로 주 2-3회는 조사 현장 출장, 현장 조사 업무감독 주요 보고 사안 발생 시 상시 기관장 보고합니다.

(장점) 역사 기록이 아닌 유적 및 유물을 조사연구, 보존 관리하는 업무이므로, 내가 하는 조사연구로 인해 향후 역사 교과서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역사 기록에 없는 당시 인간의 삶의 정보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으며, 조사연구를 통해 찾아낸 사실적인 자료와 상상력을 통해 당시 문화상을 복원할 수 있다는 점이 저로 하여금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야외에서 조사하고 하는 것이 개인의 성격과 잘 맞는 케이스라 직업으로서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 또는 어려운 점) 당연히 현장 업무이다 보니, 집에 못 가는 날이 일반 직장 대비 많아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직업적으로 좀 어려운 점입니다. 어느 정도의 육체적인 노동도 있어서, 체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이 또한 힘든 점이라 생각됩니다.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된 지식은 당연히 우리나라 역사이며, 동아시아(특히 중국, 일본)의 기본적인 역사는 알면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화유산 관련 현장 업무이므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지리학, 현장 조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독도법(지도 읽는 법)도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AUTO CAD도 다룰 줄 알면 현장 조사 이후 발

굴조사 보고서 작업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아무리 현장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결국은 글로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글쓰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합니다. 이 외에도 문화재 조사는 세심한 조사를 하므로, 항상 침착하고 차분하게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한정된 정보(유적 및 유물)로써 당시 생활상을 복원하는 것인 만큼, 천착(穿鑿)하여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연구하므로, 다른 지역에서 확인되는 유적의 정보는 본인이 연구하고 있는 유적의 해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학술적인 정보 교류는 너무 중요하므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는 자세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사에 정성을 다하여 임하는 자세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자격은 당연히 운전면허, 드론자격증, 그리고 가능하다면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을 취득하면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주관하여 방학 때 실시하는 발굴캠프나, 문화재조사기관에서 실시하는 발굴 조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하면 취업 이전에 이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학 중 경험) 학과에서 실시하는 유적 답사와 탁본이 있는데요, 특히 유적답사는 꼭 추천드립니다.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유적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꼭 학교가 아니어도 지역 박물관이나 국공립 박물관의 답사프로그램도 다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책을 지참하고 박물관이나 사찰을 방문하여 책 내용과 비교하며 박물관(사찰) 유물을 감상하거나 이해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유적과 유물을 보는 눈이 훨씬 달라지는데요, 『옛그림을 보는 법』, 『사찰의 상징체계』, 전시도록 등의 서적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회에서 거의 매달 진행되는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 시간 내어 전공 관련 또는 관심 있는 주제 관련 학술대회 등에 참석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학 중 경험) 역사학과, 국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재 보존처리학과 등이 있습니다.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기관(공공 및 민간)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업무 경험과 경력을 쌓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업무형태를 고민할 수 있겠고 대학 졸업 후 바로 문화재 조사기관의 조사원 등으로 바로 취업하거나, 대학원 석사 졸업을 하면 국공립 박물관 학예연구사, 문화재청 학예연구사, 지자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학예연구사는 모두 석사학위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 졸업 후 바로 조사기관에 취업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의 조사원을 하며 경력을 쌓고 단계를 거쳐 상위 등급의 조사원(보조원-준조사원-조사원-책임조사원-조사단장)까지 승진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기관에서 보조원으로 들어와 현재 조사단장까지 승급한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은 우리 같은 조사원, 연구원들의 애정이 아니면 빛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문화유산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과 열정으로 천착(穿鑿)해야 합니다. 긴 호흡으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문화재 전문가로서 커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MEMO

직업인 인터뷰 ②



유적발굴원

A 도시공사/000 문화재 업무 차장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현재 A 도시공사에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사업개발 지역에 대한 문화재 조사, 문화재 발굴 감독, 박물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약 6년). 개발 대상 지역에 대한 사전 문화재 조사, 문화재 현상 변경 등의 인허가 업무, 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타 발굴 결과 보존된 유적의 정비사업, 박물관 건립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문화재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는 업무로써 도시개발로 인해 멸실 문화재를 최전선에서 보호하는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군 제대 후 대학 3학년 때 우연히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일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여러 발굴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공부했습니다. 발굴 현장 외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다양한 (고고학 관련) 문헌자료를 섭렵하는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석사 졸업 후에는 공채를 통해 문화유산 관련 협회에 연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약 8년간 근무하였는데 교육, 제도 개선, 안전관리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 조사와 다른 풍부한 경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문화재 조사 및 발굴조사 감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해 멸실될 수 있는 매장

문화재를 보호함과 동시에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 대상지에 대한 사전 문화재 조사를 통해 문화재로 인한 영향관계를 분석하며, 문화재 발굴 등 조사를 진행하여 멸실될 수 있는 매장 문화재를 보호합니다. 아울러,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의 인허가 업무도 맡고 있으며, 문화재 발굴 결과 보존된 유적을 정비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루틴) 문화재 발굴현장은 아침 이른 시간 조회로 시작됩니다. 그날의 조사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자의 건강상태 등을 체크합니다. 이후 각자 맡은 업무에 따라 조사가 진행됩니다. 굴삭기를 이용하여 땅을 제토하면서 유적을 확인하는 작업, 확인된 유적의 내부를 정밀히 조사하는 작업, 조사를 완료한 유적을 측량하고 도면에 실측하는 작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조사내용은 '야장'이라고 불리는 노트에 철저히 기록해 둡니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유적을 덮어 보호한 후 현장작업이 마무리 됩니다. 대부분의 조사현장은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하여 숙소생활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일과 후에는 개인적인 연구나 생활을 합니다. 현장마다 다르긴 하지만 조사된 유적에 관한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장점) 유적을 직접 내 손으로 발굴함으로써 느끼는 성취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발굴한 유적, 유물이 국내 유수의 박물관에 전시되기도 하고, TV 등 매스컴 등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도 합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 또는 어려운 점) 현장이 집과 먼 경우 숙소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 내 생활보다는 지속성이나 안정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조사는 더위와 추위, 폭우 등 여러 가지 기상조건과 싸워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맛비를 맞으며 유적을 보호해야할 때도 있고, 추운 겨울에 손을 녹여가며 유적 실측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울러 진정한 발굴조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 또한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현장조사에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에서는 연구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 조사원의宿命입니다.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화재 발굴에는 토층 분석, 측량, 유적실측, 유물 실측 등 다양한 기술이 활용됩니다. 대부분은 조사 현장이나 연구실에서 도제식으로 전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학과의 경우 정규교육을 통해 이러한 기술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국립기관이나 한국문화유산협회 등에서 관련 교육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원이 가져야 할 태도 중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고고학은 유물 한점 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상을 읽어내는 지난한 작업입니다. 원 사료를 찾아내는 (현장) 발굴 작업 또한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끈기와 인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외에 유물에 애정을 가지고 관찰할 수 있는 세밀함, 그리고 단체생활을 많이 하므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마음도 필요합니다. 문화재 발굴조사원은 이 분야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역으로 역사와 고고학, 문화재에 관심 있는 이라면 도전해 볼만 합니다. 문화재발굴 전문법인의 경우 어느 정도의 학력과 조사경험만 갖추고 있다면 문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 성과 창출을 통해 학계로 나아가거나 조금 더 안정적인 나은 직업으로 이직도 가능합니다.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문화재 발굴은 고고학이라는 학문의 방법의 일환으로 둘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학부 때 발굴경험을 쌓는 것과 동시에 고고학 연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론-고고학개론, 고고학사, 한국고고학개론 등-에 대한 기초를 탄탄히 다져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고고학 연구방법의 일환으로 통계학, 지질학(토양학) 등을 공부해 둔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발굴 관련 국가나 공인 자격증은 거의 없습디만, 향후 박물관 등에서 근무할 계획이 있다면 박물관 학예사 자격증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학 중 경험) 학부시절 발굴현장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것이 문화재발굴조사원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경험을 쌓

고 싶은 분이라면 전국에 분포한 조사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에서 주최하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발굴캠프에 참여하였는데 발굴기술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었고, 타 학교 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시야를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회의에 자주 참여하고자 하였습니다. 학문적 경험을 통해 문화재 발굴조사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학 중 경험) 고고미술사학, 사학, 문화유산학과 등이 있겠네요.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문화재 발굴조사원의 경력은 크게 현장조사 경력과 학문적 경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경력은 조사기관 등에서 직접 조사에 참여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문적 경력은 석사, 박사 등 학위취득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꾸준한 자기 노력(연구)과 학문적 교류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문화재 발굴조사가 고고학의 방법적 일환이라는 점, 현재 문화재청의 조사원 등급기준에 학위취득 여부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 연구를 등한시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발굴조사원은 대부분 고학력자이면서, 현장업무를 수행해야하는 특수한 직업입니다. 현장조사는 비교적 고된 작업으로 다른 조사원들과 함께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는 긍정적 마인드, 그리고 무엇보다 고고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힘든 과정을 거친 만큼 발굴현장에서 얻는 희열 또한 큼니다. 역사와 고고학에 관심있는 분들의 열정적인 도전을 기대하겠습니다.

MEMO

고전번역가

개인문집, 역사문헌 등 한문으로 작성된 고전문헌을
정독하고 교감하여 현대 한국어로 옮기는 자



유사명칭

유적발굴가, 유적발굴전문가, 유적발굴연구원

주요 진출 및 취업처

한국고전번역원, 교육계(교수, 대학강사, 연구원, 교사,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적합한 사람

- ▶ 고전 문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있는 사람
- ▶ 원전 언어와 목표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능숙한 구사 능력이 있는 사람
- ▶ 원전의 문맥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
- ▶ 원전과 목표 언어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번역 과정에서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번역할 원문을 통독하고, 원본과 이본을 비교하여 교감
- ▶ 초서로 작성된 원문의 경우, 해서로 바꾸는 '탈초'작업을 진행
- ▶ 교감한 내용을 주석하고, 한문 원문을 현대 문장부호를 써서 현대화하는 작업 (표점)을 수행
- ▶ 번역에 필요한 역사, 문학, 철학, 용어 등을 찾아 학습
- ▶ 원문을 연구하여 본래의 사상과 감정을 그대로 살려 번역문을 작성
- ▶ 내·외부 전문가로부터 번역 결과를 평가받고 수정·보완하고 교정작업을 거쳐 최종 번역을 완성



필요역량

지식 역사적 지식, 언어 지식 등

기술 문화적 이해 역량, 컴퓨터활용능력, 번역 능력, 독해력, 분석력 등

태도 창의력, 역사적 관심 등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국어국문, 고전번역, 역사학 등
- ▶ 대학 교과목: 동아시아고전입문, 논어강독, 한시선독, 삼경 선독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대학 내 기초교육원 글쓰기 프로그램 등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고전번역연수과정, 번역 연수 프로그램 등
- ▶ 일경험: 한국학호남진흥원 등 인턴 프로그램 참여
- ▶ 자격증: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증(국가) 등
- ▶ 자기주도적 활동: 관련 분야 학회 혹은 연구모임 참석, 한국고전종합 DB 등 확인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한문고전에 관련된 유관 전공을 함께 공부하면 이 분야 준비에 유리
- ▶ 경력경로: 대학원 고전번역학과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거나, 한국고전번역원 등의 고전번역 연수과정 또는 고전번역 연구과정 이수 후 번역가로 활동할 수 있음.



관련 정보처

- ▶ 한국고전번역원 www.itkc.or.kr
- ▶ 한국고전번역학회 stkc.jams.or.kr
- ▶ 한국학호남진흥원 www.hiks.or.kr
- ▶ 고전번역교육원 edu.itkc.or.kr
- ▶ 사이버서당 cyberseodang.or.kr
- ▶ 사이버서원 hm.cyberseodang.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동아시아의 한문고전을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하기 때문에, 한자 해독 및 동아시아 역사와 관련된 서적과 고전을 많이 읽을수록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직업인 인터뷰 ①



고전번역가

A 고전번역원/000 연구원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A 고전번역원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왕조실록 번역팀 소속으로 《성종실록》기사 일부를 수정·번역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번역 업무 외 번역 지침 검토·작성 업무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했고 조선시대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교와 대학원 재학 시절 한국고전번역교육원의 연수 과정(3년), 연구 과정 I (2년), 연구 과정 II (2년)을 이수했어요. 연구 과정 졸업 후에는 번역위원 자격을 부여받아 조선왕조실록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였고, 현 직장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조선왕조실록팀은 기존 실록의 어려운 한문체 번역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정확하고 읽기 쉬운 번역을 제공하기 위해 실록을 다시 번역하는 ‘실록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팀 소속 연구원으로서 이 사업에 참여하여 《성종실록》의 수정 번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역 인력에게 제공하는 실록 번역 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업무도 있어요. 현행 번역 지침의 문제점을 검토해 팀에 공유하거나 다른 팀원이 공유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검토 의견을 회신합니다. 경우에 따라 팀 회의에 참여하여 팀원들과 번역 지침 개정 사항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현행 실록 번

역 지침을 개정하거나 실록 내 특정 사안에 대해 별도의 번역 지침을 만드는 업무도 있는데요, 문제에 대한 연구·검토 결과 및 팀 논의 사항 등을 종합하여 지침을 작성합니다.

(업무루틴) 번역 업무의 공정은 번역자 개개인 경험과 요령에 따라, 혹은 번역하는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① 번역 대본 확인: 저본(底本)인 태백산사고본의 원문을 검토하여 번역할 기사의 내용을 파악하고 글자 오류를 점검 ② 기존 번역 검토: 기존 번역을 검토하여 오역, 주석 보충이 필요한 부분, 현행 지침에 따라 형식 수정이 필요한 부분 등의 수정 사항을 점검 ③ 참고 자료 확인: 기사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다른 실록의 기사나 실록 외의 고전문헌(법전, 문집 등)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 참고(필요에 따라 학술서와 학술 논문을 참고) ④ 전술한 3가지를 기반으로 번역문 작성 및 기사제목 작성

(장점)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기록 유산의 번역 사업에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전통문화 계승과 인문학 연구의 토대 구축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역사학 전공자의 입장에서 역사학 관련 분야의 취업 진로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전공을 살려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이라는 점이 매력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특히 번역원의 주력 사업인 역사 문헌(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번역 사업의 경우, 번역 인력으로서나 사업 관리 인력으로서 역사학 전공자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 또는 어려운 점) 순환보직으로 인해 번역 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번역 부서 외 타 부서에 소속되어 고전 자료 수집, 번역 성과에 대한 평가, 출판, 대중화 사업, 대외 협력 사업 등에 관계된 업무를 맡기도 하고, 번역 부서 내에서 연구기획 업무를 맡기도 합니다. 연구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한문 번역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다양한 직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균형 잡힌 업무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이 직업의 직무 수행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문 번역 능력과 관계 학문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래에 고전 번역 성과가 점차 집적되고, 이미 완역된 고전문헌에 대한 재번역 사업이 추진되어 감에 따라 번역의 품질 향상에 대한 내외부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전 번역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학과 학생들이 이런 경향에 유의하여 한문 공부와 함께 전공 공부 또한 충실히 이어 나간다면, 추후 고전 번역 분야에 직업인으로 진입할 때 분명한 이점을 가질 수 있고 업무수행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으리

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대부분 업무는 협업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 인력 관리, 성과 관리 등 사업 진행 제반 업무가 부서 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팀 내 협업 과정과 다양한 논의 과정을 통해 수행됩니다. 따라서 연구원은 협업적 태도와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해요. 그리고 번역원 연구원은 번역 업무 외에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업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요구되며 다양한 직무 경험을 사업 관리자로서 업무 역량(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력, 사업에 대한 실무적 지식) 강화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자기계발에 대한 적극성 또한 요구됩니다.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고전번역교육원의 교육 과정을 이수할 것을 추천해요. 교육 과정은 기초 학습 과정인 연수 과정(3년)과 심화학습 과정인 연구 과정(2년)이 있습니다. 두 교육 과정은 모두 한문 독해 시험이 포함된 입학 전형을 두고 있으므로, 교육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각 과정이 요하는 수준의 한문 독해 실력을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해요. 이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은 해당 분야의 직업인으로서 습득해야 하는 번역 능력 수준을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고, 그로 나아가기 위한 학습 목표를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번역원 산하 기관으로서 번역 사업의 실정에 맞춘 실무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직업 진출에 있어 가장 절실한

교육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구 과정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번역위원 자격을 획득하며 번역 사업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원 교육 과정은 효율적으로 직업 역량을 갖추고 직업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학 중 경험) 조선시대를 포함하여 전근대 역사를 다루는 모든 학과 수업의 내용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직업 진입을 준비하는 단계, 특히 학문의 독해를 위주로 하는 초반 학습 단계에서 역사학 전공 지식이 한문 학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번역 수행의 단계로 진입한 후에는, 번역 대상 문헌이 작성된 시기에 대한 역사학적 지식이 업무의 효율과 성과의 질에 충분히 기여를 해요.

(유사 전공 분야) 한문학과, 국문과, 중문과, 철학과, 문헌정보학과, 서지학과, 고전번역협동과정 등이 있어요.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재직 중 관계 학술 분야의 학위 과정에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하거나, 연구를 수행하여 논문을 발표하는 등의 학술 활동을 통해 관계 학술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부를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전번역 분야의 직업인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어려운 공부에 묵묵히 힘써야 합니다. 그 지난한 과정으로 인해 이 분야에 도전하는 사람이 매우 적고, 그 적은 도전자 가운데에서도 또 소수만이 직업인으로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어려움을 감내하여 직업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대중에 전달하는, 아주 가치 있으면서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직업적 자부심이 직업 진입의 과정에서 겪는 숏한 어려움에 대한 보상이 되어 주리라 생각합니다.

MEMO

직업인 인터뷰 ②



고전번역가

A 고전번역원/000 번역위원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2020년 2월에 A 고전번역원의 번역위원 자격을 얻어《승정원일기》의 영조(英祖) 대 일부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번역 대본과 참고본을 대조·교감하고 번역문을 작성하여 정해진 마감 기한 내에 제출한 다음, 평가받은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하고 교정 작업을 거쳐 최종 번역을 완성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한국사와 동양사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한문 공부가 필수라는 선배의 조언으로 학과 내 학회인 한문 강독반에 들어가 한문 원전을 공부하고, 전공 강의 가운데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등 사료 해석을 위주로 하는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진로를 고전번역가로 잡고는 한문 번역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고전번역교육원의 연수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 교내 서당에서 《논어집주》, 《맹자집주》 수업을 들으며 공부하고, 함께 교육원 입학을

준비하는 학우들과 스터디를 활발하게 진행했어요. 이후 고전번역교육원 연수 과정에 입학하여 개설된 강의를 수강하며 공부하였고, 상위 과정인 연구 과정에 진학하기 위하여 입학시험 과목인 한국문집 스터디를 병행하였습니다. 연구 과정 졸업 이후 번역위원의 자격을 받아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승정원일기》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배정받은 《승정원일기》의 부분을 교감하고 번역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본인 규장각본의 이미지와 참고본인 국사편찬위원회본 텍스트를 대조하여 오자 등을 수정하고 교감 사항을 기입합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시기와 사건, 제도 등을 이해하기 위해 개설서와 관련 논문 및 저서를 학습한 다음, 원문을 통독하고 연구하여 번역문 파일을 작성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문에 각주를 달기도 하고, 앞서 대본과 참고본의 대조 작업을 통한 교감 사항에 대해서도 각주를 답니다. 정해진 마감 기한 내에 정리한 대본과 참고본, 번역문을 제출한 다음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하고 교정 작업을 거쳐 최종 번역을 완성합니다.

(업무루틴) 하루에 목표치로 잡은 작업 범위 원문의 대본과 참고본을 대조하여 교감한 뒤, 통독을 하여 원문의 내용을 파악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나 제도가 나오는 경우 논문과 단행본 등을 읽고 여러 사이트를 뒤져가며 자료를 참고하여 보는 데 시간을 할애할 때도 있고요. 원문을 번역하고 주석을 달아주는 작업을 수행한 뒤, 해결하지 못하거나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선생님과 동료들에게 자문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이후 오역이나 비문이 없는지 검토합니다.

(장점) 해야 하는 공부가 아주 많기 때문에 평생 심심할 일이 없는 직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혹은 선후배 및 동료들과 꾸준히 한문 원전을 강독하고 해당 시기와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곤 합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온전하게 몰입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얻는 즐거움도 상당히 큼니다.

(어려운 점) 번역의 대부분 과정을 번역가 혼자 담당하므로 성격이 활발한 편이거나 타인과 소통하며 에너지를 얻는 분의 경우는 더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독자에게 원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한문 독해 능력이 필수예요. 《논어》, 《맹자》 등의 사서(四書)를 여러 번 꼼꼼히 읽으면서 기본적인 한문 문리를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번역하는 문헌이 작성된 시기에 대해 기본적인 역사적 지식을 갖춰야 하고, 해당 사건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과 자료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독자가 원문을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로 번역할 수 있는 문장력 또한 번역가의 중요한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훌륭한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쓰는 습관을 통해 문장력을 키워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한문 원전을 친구들과 스터디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혼자서 공부할 때는 무심결에 넘어가는 부분을 함께 공부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서로 틀린 부분을 바로잡아 주며 실력을 향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 사학을 전공해서 한문학 기본 지식에 상당히 취약했기 때문에 여러 한문 문체를 익히 접한 한문학 전공자에 비해 불리한 점이 있었어요. 한문학 비전공자의 경우 개설서를 읽는 등 부족한 한문학적 소양을 쌓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학 중 경험) 학과 내 학회인 한문 강독반에서 한문 원전을 접하고, 전공 강의에서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등 사료 해석을 위주로 하는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 설립된 서당에서 고전번역 전문가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과 꾸준히 스터디를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사 전공 분야) 번역위원의 경우 국어국문학, 한문학, 한문교육학을 전공한 분들이 다수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전공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자연과학이나 예술 등을 전공한 경우 이를 살려 특수고전문헌을 번역할 수 있으므로 전문 분야 번역가가 적은 현 상황에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한문 독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꾸준히 원전을 강독하고 있으며, 대본과 참고본 대조 및 교감 작업을 보다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초서 공부 역시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번역하고 있는 《승

정원일기》가 작성된 조선시대의 제도를 상세히 파악하고자 관련 도서 및 논문을 읽고 학술 기관에서 관련 강의를 들으며 공부 중입니다. 고전 번역가는 문헌을 번역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해당 문헌의 첫 연구자라고 생각합니다. 한문의 장벽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알아내지 못한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흥미로운 연구 주제를 찾는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셈이죠. 이는 해당 주제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번역위원은 주로 재택근무로 혼자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 운용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직장에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조직 생활을 하기보다는 프리랜서로서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 하는 분에게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직업에 관심이 있으나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하루빨리 한문 원전을 조금씩이라도 읽으면서 친숙해지는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아는 한자가 몇 개 되지 않아서 단어장을 만들어 외었는데, 책에 나온 대부분의 한자를 베낄 정도였고 많은 공부량에 기가 죽었지만 매일 조금씩 알아가며 뿌듯함을 느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마음 맞는 동료들과 함께 강독하면서 오랫동안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MEMO



문화사연구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미래 한국의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 한국 문화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자



✓ 유사명칭

민속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구원

✓ 주요 진출 및 취업처

박물관, 문화사 관련 연구기관 등

✓ 적합한 사람

- ▶ 한국문화와 역사적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 ▶ 꼼꼼하게 자료를 살피는 성향을 가진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전자료 등 전통문화의 유산을 현대 한국의 사회적 상황과 학문적 관점에서 새로 해석
- ▶ 한국학 관련 자료 및 민족문화유산을 발굴·정리
- ▶ 도서관과 기록 보관소의 자료 또는 개인 소장 자료로부터 역사적으로 유용한 자료들을 수집·분석하고 평가
- ▶ 한국 전통사상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하여 국민사상과 가치관을 정립하며, 한국 전통문화를 현대적 시각에서 탐구하며 한국학 관련 학술 도서를 간행
- ▶ 외국인 및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문화 교육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민족문화 교육을 실시
- ▶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고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통사상과 현대사상을 체계화
- ▶ 국제화의 현대적 추세 속에서 한국의 사회와 문화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파악
- ▶ 민주화의 추세 속에서 야기되는 한국사회의 현실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를 수행
- ▶ 그 외에 연구원(일반)이 수행하는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필요역량

- 지식** 지리, 역사, 사회와 인류, 물리, 생물 등
- 기술** 글쓰기, 범주화, 읽고 이해하기, 기억력, 학습전략 등
- 태도** 책임과 진취성, 정직성, 사회성, 성취·노력, 혁신, 애국, 지적 추구 등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역사·고고학 전공과 함께 철학, 역사학, 교육학, 심리학, 어문학, 언어학 융합
- ▶ 대학 교과목: 한국 고대사, 조선시대사,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 유럽사특강, 중국고대사, 중국근세사, 중국 근현대사, 서양고대사, 서양근대사, 서양현대사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선배와의 만남, 현직자 특강 등 관련 분야 기 진출자의 진로특강 참여를 통한 입직 준비 방법 모색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사)전통문화연구회 고전연수원의 동양고전연수 및 사이버 서당 등 온오프라인 수업을 통한 한문 독해력 증진 가능
- ▶ 일경험: 한국학중앙연구원 청년인턴 등 관련 기관 직무 체험, 교내 학부 연구생 제도 등
- ▶ 자기주도적 활동: 교내 학부 연구생 신청 및 관련 기관 청년인턴 참여와 역사학회, 한국서양사학회 등 유관 학회 세미나 참석 또는 자료 학습, 그 외 외국어 원서 및 사료 분석 등의 역량 제고에 관련 있는 다양한 활동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철학, 역사학, 교육학, 심리학, 어문학, 언어학 등 관련 분야 석사 이상학위가 필요함.
- ▶ 경력경로: 정부출연연구소나 규모가 크고 연구 활동이 많은 연구소에서는 대부분 석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를 채용하며, 학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대개 연구보조원으로서 활동함. 민족문화연구원은 인접 학문과 관계를 맺으며 폭넓은 연구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뿐 아니라 인접 학문의 관련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세부전공을 선택한 후 자신의 전공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함.



관련 정보처

- ▶ 한국학중앙연구원 www.aks.ac.kr
-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riks.korea.ac.kr
- ▶ 국립민속박물관 www.nfm.go.kr
- ▶ 한국문화재단 www.chf.or.kr
- ▶ 한국학진흥사업단 ksps.aks.ac.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전공에 대한 지식과 연구의 자세, 논문 작성을 위해 분투한 시간들은 훌륭한 자양분이 됩니다. 특히, 현지 조사를 나가 자료를 수집하며 익히는 연구 역량은 연구와 직무를 해결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실측설계기술자

문화재 또는 전통건축, 등록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실측조사, 간략한 지표조사, 간략한 고증을 하고 보수공사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유사명칭

문화재보존원

주요 진출 및 취업처

문화재청, 문화재보호재단, 지자체의 문화 관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적합한 사람

- ▶ 꼼꼼하고 세심한 손재능이 있는 사람
- ▶ 건축물에 관한 관심이 많으며 주변 사물이나 물건 등을 디자인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 ▶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전통건축물과 같은 유형문화재를 보수·복원하기 위하여 현장을 답사하여 측량 등을 통해 실측 조사하고,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자료 수집
- ▶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보수·복원·정비 보고서, 시공 중 해체 실측 조사보고서를 작성
- ▶ 공사용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를 작성
- ▶ 공사가 진행되면 시공 중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공사에 대해 조언



필요역량

지식 역사, 디자인, 화학, 물리, 예술 등

기술 정교한 동작, 장비 선정, 시력, 범주화, 기술 분석 등

태도 분석적 사고, 성취와 노력, 타인에 대한 배려, 리더십, 책임과 진취성, 혁신 등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역사·고고학 관련 전공과 함께 건축(공)학 등을 융합할 수 있음
- ▶ 대학 교과목: 도시와 건축의 문화사, 고고학 실습, 한국건축사, 도시역사와 GIS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대학·학과 내에서 운영하는 포토샵, 일러스트, CAD 등의 그래픽스 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통해 문화재 그래픽스 활용 능력 함양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 및 수리 업무를 하기 위해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자격시험에 응시
- ▶ 일경험: 문화재수리 관련 산업체 인턴
- ▶ 자격증: 문화재수리기술자(국가), 문화재수리기능자(국가) 등
- ▶ 자기주도적 활동: 건축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통해 전문적으로 측정과 설계 업무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공부를 통해 건축공학적 자질을 함양할 수 있음.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를 함께 전공하면 유리
- ▶ 경력경로: 학교의 부설연구소 또는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며 경험을 쌓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 및 수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하므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의 6개 분야 중 실측·설계 분야를 선택하여 응시해야 함.



관련 정보처

- ▶ 국립문화재연구원 www.nrich.go.kr
- ▶ 문화재청 www.cha.go.kr
- ▶ 문화재수리기술자 www.q-net.or.kr
- ▶ 문화재수리협회 www.kcpra.or.kr
- ▶ 한국문화재재단 www.chf.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실측설계는 유익한 노하우를 지니신 분도 적고 이를 알려주는 분들도 적어서 공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실측을 준비하기 보다 보수기술자 시험 내용을 준비하면서 도면 부분에 더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횡단면도와 평면도, 종단면도, 정면입면도 및 측면입면도 등 도면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역사게임기획자 (게임기획자)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컴퓨터게임의 아이템과 스토리, 캐릭터 등을 구성 및 기획하고 제작 과정을 관리하는 자



✓ 유사명칭

게임프로듀서

✓ 주요 진출 및 취업처

방송국, 게임개발회사, 게임유통회사,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

✓ 적합한 사람

- ▶ 게임에 대한 관심과 애정, 게임의 역사, 장르, 트렌드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
- ▶ 새로운 게임의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
- ▶ 시장 조사와 분석을 통해 게임의 타겟과 경쟁 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게임의 콘셉트와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분석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사람
- ▶ 게임 개발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지닌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게임시장과 게임사용자의 동향을 조사하고 적합한 게임아이템을 찾고, 게임구현의 가능성과 사업을 분석하여 게임의 내용과 난이도, 대상 연령층, 시스템 사양, 그래픽 수준 등을 포함한 기획안을 작성
- ▶ 게임의 규칙 등 관련 세부사항을 결정하며, 스토리라인을 정하고 캐릭터의 일대기를 작성
- ▶ 지형, 몬스터배치 및 디자인, 퀘스트(Quest:롤플레이게임에서 주인공이 하 달받는 임무) 등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를 결정
- ▶ 게임사용자가 게임 내의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Interface:서로 다른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메뉴창, 설정창 등)를 제작



필요역량

지식

홍보전략 구상 및 게임 운영방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 프로그램이나 게임그래픽 등 개발과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기술

기획력, 분석력 등

태도

창의력, 협업하는 태도 등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게임 유관 전공 등
- ▶ 대학 교과목: 문화콘텐츠기획, 문화산업트렌트,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기획, 제작 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등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게임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민간학원이 나 대학의 사회교육원에서 게임기획자가 되기 위한 교육과 훈련 이수 가능
- ▶ 일경험: 게임회사 인턴십 등의 유무료 일경험
- ▶ 자격증: 게임기획전문가(국가)
- ▶ 자기주도적 활동: 기획문서, 다양한 게임 체험 후 게임 분석 및 특성 파악,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연습 등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역사·고고학 전공과 함께 IT, 게임과 관련된 유관 전공을 함께 공부하면 이 분야 준비에 유리
- ▶ 경력경로: 관련 교육을 받으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며, 게임 관련 학과나 학원에서 게임기획자 공부를 할 수 있음. 프로그래머, 그래픽디자이너 등 게임개발 분야에서 일하기 시작해 오랜 시간 경험을 쌓은 뒤 게임기획자가 되는 경우도 있음.



관련 정보처

-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www.arko.or.kr
- ▶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 ▶ 한국문화정보원 www.kcisa.kr
- ▶ 한국콘텐츠학회 www.koreacontents.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게임을 만들려면 참신한 아이디어가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다양한 문화와 상식, 역사, 철학, 사회학 등 다방면의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면 좋습니다. 또한 사소한 계획도 끝까지 실행에 옮겨 실천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문화유산교육사

문화재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교육을 시행하며 평가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유사명칭

문화재교육사, 에듀케이터

주요 진출 및 취업처

국내·외 국공립 및 사립 박물관 등

적합한 사람

- ▶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
- ▶ 문화유산을 통해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 ▶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 ▶ 문화유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를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
- ▶ 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관리
- ▶ 문화유산 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



필요역량

지식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이해, 교육 대상자에 대한 이해, 과정별 특성에 맞는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 등

기술

정보 수집 기술, 업무 조정 능력, 행정 능력 등

태도

전달력, 문제해결력, 융화적이고 공감하는 태도 등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역사학, 역사교육과, 고고학과, 미술사학과, 박물관교육학, 박물관·미술관 교육학 등
- ▶ 대학 교과목: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문화유산 자원경영론, 박물관학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선배와의 만남, 현직자 특강 등 관련 분야 기 진출자의 진로특강 참여를 통한 입직 준비 방법 모색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 교육원의 문화유산 방문교사 연수과정, 한국문화재단의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
- ▶ 일경험: 문화재 관련 기관, 박물관, 교육 기관에서의 인턴십 등
- ▶ 자격증: 문화예술교육사 1·2급(국가), 문화유산교육사(민간), 문화유산 교육지도사(민간), 문화유산교육전문가(민간) 등
- ▶ 자기주도적 활동: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 학술발표회 등 유관 학회 세미나 참석 또는 자료 학습 등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박물관 교육학, 박물관학을 전공하면 유리
- ▶ 경력경로: 관련 전공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할 경우 도움이 됨. 문화재 관리 전공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문화재 교육학을 전공한 석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유용함. 문화재 교육 부서 또는 그 밖의 문화재 관련 교육기관에서 2~3년간의 경험을 갖추어야 함.



관련 정보처

-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 문화재청 www.cha.go.kr
- ▶ 한국문화재단 www.chf.or.kr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www.arte.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문화유산교육사에게 요구되는 학력은 학습·이론 분야 학위과정에 문화재 관리와 관련된 전공 또는 문화재교육, 문화재 관리 프로그램 분야 관련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비공식적인 교육 계획 짜기와 프로그램 짜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박물관 교육부 혹은 다른 교육기관에서 2~3년 정도의 경험이 요구되며, 조직 또는 행정 경험이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박물관교육사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개발하고, 전시에서 교육에 관한 분야에 조언을 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자



☑ 유사명칭

박물관 에듀케이터, 에듀케이터

☑ 주요 진출 및 취업처

국공립·민간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단의 교육팀

☑ 적합한 사람

- ▶ 역사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권의 생활양식, 언어, 예술 등 문화 전반에 대한 흥미가 있는 사람
- ▶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미술, 무용, 음악, 과학, 동물, 민속, 고궁, 문화재, 역사, 만화, 영화, 국악 등 박물관의 분야에 따라 교육주제 선정
- ▶ 해당 분야의 표준교재, 교수법, 교육자료 조사
- ▶ 교육일정, 학습인원, 수준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교수학습 모형·전략 개발
- ▶ 해당 분야 교수·학습 요강을 유연하게 재구성하여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수업지도안 개발
- ▶ 박물관의 자원을 응용하거나 새로운 교구·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여건을 조성
- ▶ 체험, 만들기, 배우기, 답사, 관찰, 시연, 트레이닝, 창작, 실습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방법으로 교육 진행 및 교육성과 평가·개선



필요역량

지식

교육 심리학, 철학, 사회학, 교육적 기술, 유물, 교육 평가에 대한 지식 등

기술

다양한 계층의 교육수준에 견주어 유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박물관 전시나 인쇄물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 학교 교육과정이나 다른 교육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능력 등

태도

행정가로서의 책임 등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학, 박물관교육학과, 박물관·미술관 교육학과 등
- ▶ 대학 교과목: 문화유산관리와 박물관, 박물관학 입문, 박물관과 문화재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대학 부설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교육 업무 관련 실습 프로그램 참가, 학술답사, 학술회의 등의 준비와 실무에 참여하여 학술행사의 기획에서 실무에 이르는 업무를 경험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박물관 역사기행의 참가신청 접수와 관리, 답사 인솔 보조, 학술회의 진행 보조 등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지자체, 미술관, 박물관, 아카데미 등에서 운영하는 (전문)에듀케이터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이수
- ▶ 일 경험: 대학 부설 박물관, 국공립 및 사립 미술관·박물관에서의 인턴 활동
- ▶ 자격증: 박물관·미술관 학예사(국가), 문화예술교육사(국가), 중등학교 2급 정교사(국가) 등
- ▶ 자기주도적 활동: 대학교 박물관, 국공립 및 사립 미술관·박물관의 인턴 혹은 직원 채용 공고를 주도적으로 찾아봄으로써 입직에 필요한 역량과 자격을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으며, 현직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진로상담을 받거나 봉사활동에 자원할 수 있음.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고고미술사학, 역사학, 미술학 전공과 교육학을 함께 전공을 하며 관련 자격증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이 분야 준비에 유리
- ▶ 경력경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또는 미술 및 미술관련 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석사학위 이상)로서 등록 미술관 또는 비영리문화예술기관교육 경력을 갖고 있거나 미술교육 전공 또는 박물관 미술관 교육전공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등록 미술관 교육 2년 이상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 입직에 우대받을 수 있음.



관련 정보처

- ▶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www.artmuseums.or.kr
- ▶ (사)한국박물관협회 museum.or.kr
- ▶ 국립민속박물관 www.nfm.go.kr
- ▶ 국립문화재연구원 www.nrich.go.kr
- ▶ 한국문화유산협회 kaah.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박물관의 교육전문인력은 박물관 전시·교육의 연구자이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자이며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즉, 박물관 전시품 지식과 더불어 현장 체험과 교육적 배경(교육이론·방법론 등)을 모두 갖춘 인력이어야 합니다.

직업인 인터뷰



박물관교육사

프리랜서/000 강사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자연사박물관 일반자원봉사를 시작으로 도슨트 교육을 받고 도슨트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투어 강사로 7년간 활동하다 현재는 체험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역사박물관 도슨트로 지난 6년여간 활동도 하였으며 간헐적으로 탐방 강의도 있었습니다. 현재 자원관, 박물관 등 여러 분야와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강의 활동 중에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일반자원봉사로 입문을 하게 되었고 도슨트 해설의 필요성과 맞물려 도슨트를 양성하게 되어 1기 도슨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받아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강의 활동도 하고 있어요.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보통은 학기를 마치면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프로그램 기획과 자료 수집 및 정리, 교구재 선정, PPT 제작 등으로 반복됩니다. 초안이 확정되면 시연 및 스터디를 통해 다듬고 강의가 진행되며 평가, 모니터링, 보완으로 이어집니다.

(업무루틴) 오전 강의와 오후 강의, 저녁 강의와 주말 강의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찾아오는 내방객(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학교나 기관으로 찾아가는 강의, 온라인 실시간 강의 등으로 나뉘어 지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실시간 비대면 강의를 운영되며 익숙해진 탓에 최근엔 실시간 비대면 강의도 겸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점) 강의를 지원하고 배정되는 형태가 대부분으로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배정받은 강의도 상황에 따라 조율이 가능하여 여러 일을 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야와 내용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고 지속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경력이나 능력에 따라 수입이 천차만별이고, 정년이란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체력과 건강이 허락한다면 하고 싶은 만큼도 가능한 정도입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 또는 어려운 점) 제가 하는 일은 처음인 경우가 많았기에 결재권자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소통을 주로 하는 업무인 만큼 이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육학을 전공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준비해 둔다면 수월하게 활동으로 연계될 것 같습니다. 상냥한 인사와 긍정적인 언행은 높은 가산점을 주기도 합니다.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관련 분야의 자격증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자격증이 많지 않아도 노력한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이 대신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현장을 체험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사람과의 소통 방법을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재학 중 경험) 커리큘럼 작성을 위한 자료 조사나 사례 검색 등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창의적 콘텐츠 개발을 위해 타인의 콘텐츠를 살펴보고 모니터링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박물관, 과학관, 전시관 등 공공기관의 전시 및 프로그램도 참고하였습니다.

(유사 전공 분야) 주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교육학을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교육의 기회는 형식기관이 아니어도 많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육의 참여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사, 해설사 등이 있습니다. 저는 대상기관이나 대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채워 갈 예정입니다. 일정이 없는 날엔 타기관의 교육에 참여하기도 하고 박물관의 전시를 보거나 해설을 듣고자 합니다. 전시의 변화, 다양성, 추이,

교육적 패러다임 등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여러 박물관을 투어 하였고 여러 기획전시를 보고 해설을 들으며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급변하는 패러다임을 따라 함께 흘러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싶은 분, 나의 역량만큼 보상을 받고 싶은 분, 나눔을 실천하고 싶은 분, 정년 없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은 분, 나와 나의 주변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고 싶은 분들은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여 함께 하기를 청해봅니다. 이 글을 보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MEMO



역사고고학 교수 (인문학교수)

대학에서 역사·고고학 분야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학생들에게 역사·고고학 및 관련 분야의 이론과 지식을 강의하고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자



유사명칭

대학교수, 인문사회계열 교수, 인문학교수, 사학교수, 고고학교수

주요 진출 및 취업처

국내·외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적합한 사람

- ▣ 강의를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며 세미나 및 실험을 수행하고, 시험이나 논문 등을 통해 그 결과를 평가하고 지도하는 작업을 즐기는 사람
- ▣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추구하고, 교육자로서 바른 행을 행하는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대학교, 교육대학교,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자신의 전공 학문과 관련하여 강의하고 연구
- ▣ 시험, 보고서 등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며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
- ▣ 학생들의 논문이나 연구계획을 지도하며, 교내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
- ▣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해 연구를 하여 각종 학회·세미나 등에 논문을 제출



필요역량

- 지식** 교육 및 훈련, 의사사통과 미디어, 사무, 국어, 사회와 인류 등
- 기술** 수리·논리력, 언어능력 등
- 태도** 분석적인 사고, 정직성, 리더십, 스트레스 감내성, 사회성 등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관련 전공: (한)국사학과, (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역사콘텐츠학과, 고고학과, 미술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등
- 대학 교과목: 한국 고대사, 조선시대사,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 유럽사특강, 중국고대사, 중국근세사, 중국 근현대사, 서양고대사, 서양근대사, 서양현대사, 고고학사, 고고학실습, 고고학과 자료분석, 고고학 조사방법론,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서양미술사 등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선배와의 만남, 현직자 특강 등 관련 분야 기 진출자의 진로특강 참여를 통한 입직 준비 방법 모색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한국역사연구회 등 유관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참여
- 자기주도적 활동: 교내 학부 연구생 신청 및 관련 기관 청년인턴 참여와 역사학회, 한국고고학회 등 유관 학회 세미나 참석 또는 자료 학습, 그 외 외국어 원서 및 사료 분석 등의 역량 제고에 관련 있는 다양한 활동



주요 진입 과정

- 진출자 전공 영역: 역사학, 고고학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관련 전공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유리
- 경력경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역사학, 고고학 관련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각 대학에 여석이 생기거나 신설 학과가 생길 경우 교수 임용 공지를 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지원하여 교수 임용 시험에 합격하면 교수로 임용됨. 일부 전문대학의 경우 박사학위가 없어도 특별한 업적이나 해당 분야의 오랜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음.



관련 정보처

- 교육부 www.moe.go.kr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www.kcue.or.kr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www.kcce.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공 분야에서 수준 높은 연구 실적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학술지를 통해 연구 실적을 발표하고, 관련된 학회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직업인 인터뷰 ①



역사고고학 교수(인문학교수)

A 대학교 사학과/000교수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현재 대학교 사학과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거나, 연구를 수주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 부설 박물관장과 소장으로서도 재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대학원에 진학하여 한국사(조선 후기)를 전공하였고,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Post-doc(박사 후 연구 과정)과 다년간의 연구교수로 재직하다가 2018년 이후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로 전직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사학과 학생들에게 한국

사(조선시대 사회경제사 등)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업무루틴) 주로 강의를 준비하고 시간표에 맞춰 학부·대학원 강의를 하고요. 필요시 저희 사학과나 문과대학 교수 회의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장점) 아무래도 이 직업의 장점과 매력은 연구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여 재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고 우리 대학의 다양한 학부생들, 대학원생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큰 매력입니다. 대학 교수는 연구를 통한 자기 계발과 교육을 통한 후진 양성이 본래의 직무라 할 수 있어요.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 또는 어려운 점) 행정적 처리 등 다양한 업무로 인해 직무 수행에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사료라고 할 수 있는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선별하여 해독하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특히 한문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료들은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외에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공정한 판단과 비판을 하고,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과 논리력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간결한 문장을 서술하는 논문 작성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A시에는 역사편찬원 외에도 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공예박물관, 기록원 등 다양한 유관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편찬원을 비롯하여 이들 기관에서는 관련 분야의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에 관심 있는 후배들이 해당 기관에서 출퇴근을 하며 관련 분야의 업무 등을 미리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재학 중 경험) 자료 해독 및 비판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점이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대학원 시절 자료 조사 및 발굴을 위해 현장을 자주 답사할 수 있었던 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학 중 경험) 고고학, 문화인류학, 민속학, 문화콘텐츠학, 사회학, 경제학 등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학 전공 분야에 맞는 연구 성과인 논문과 저서 등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역사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바른 역사의를 함양하고 실천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이 직업에 진입하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대학 시절 갖추어야 할 태도나 마음가짐은 비판의식과 실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인 인터뷰 ②



역사고고학 교수(인문학교수)

A 대학교 사학과/000교수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현재 대학교 사학과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거나, 연구를 수주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 부설 박물관장과 소장으로서도 재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대학원에 진학하여 한국사(조선 후기)를 전공하였고,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Post-doc(박사 후 연수 과정)과 다년간의 연구교수로 재직하다가 2018년 이후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로 전직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사학과 학생들에게 한국사(조선시대 사회경제사 등)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업무루틴) 주로 강의를 준비하고 시간표에 맞춰 학부·대학원 강의를 하고요. 필요시 저희 사학과나 문과대학 교수 회의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장점) 아무래도 이 직업의 장점과 매력은 연구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여 재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고 우리 대학의 다양한 학부생들, 대학원생들

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큰 매력입니다. 대학 교수는 연구를 통한 자기 계발과 교육을 통한 후진 양성이 본래의 직무라 할 수 있어요.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 또는 어려운 점) 행정적 처리 등 다양한 업무로 인해 직무 수행에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사료라고 할 수 있는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선별하여 해독하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특히 한문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료들은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외에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공정한 판단과 비판을 하고,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과 논리력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간결한 문장을 서술하는 논문 작성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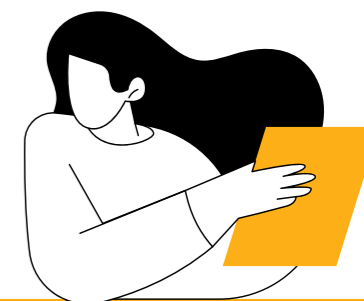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사회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과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한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지만 역사학 공부의 특성상 한문을 비롯한 외국 문자로 기록된 자료를 많이 다루는 만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공부에 능숙하면 좋겠어요. 또한 역사 유적지에 대한 현장답사 경험을 많이 쌓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학 중 경험) 자료 해독 및 비판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점이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대학원 시절 자료 조사 및 발굴을 위해 현장을 자주 답사할 수 있었던 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학 중 경험) 고고학, 문화인류학, 민속학, 문화콘텐츠학, 사회학, 경제학 등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학 전공 분야에 맞는 연구 성과인 논문과 저서 등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역사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이 직업에 진입하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대학 시절 갖추어야 할 태도나 마음가짐은 비판의식과 실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MEMO



역사고고학 학원강사 (인문사회학원강사)

학원에서 역사학 등 각종 성인용 고시 및 입시에 출제되는 과목을 가르치는 자



유사명칭

문리학원강사

주요 진출 및 취업처

보습학원, 입시학원 등

적합한 사람

- ▶ 혼자 일하기보다는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좋아하며 타인과의 유대관계 형성을 선호하는 사회성이 높은 성격을 지닌 사람
- ▶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등 성취/노력형 성격을 지닌 사람
- ▶ 학원의 조직적인 목표나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활동을 선호하는 사람
- ▶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발달시키기 위한 활동을 선호하는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각종 고시 및 입시의 역사계열 과목에 대한 시험 출제경향을 분석
- ▶ 수강생들에게 역사학 관련 과목의 이론, 학설, 사례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강의
- ▶ 수강생들의 학습성과를 진단하기 위해 정기적인 시험을 실시·평가
- ▶ 각종 시험에 대한 상담



필요역량

지식 역사에 대한 지식,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지식, 상담 등

기술 가르치기, 학습전략, 기억력, 말하기 등

태도 성취/노력, 타인에 대한 배려, 인내, 스트레스 감내성, 적응성/융통성 등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역사교육과, (한)국사학과, (역)사학과 등
- ▶ 대학 교과목: 역사교육론, 역사와 역사교육, 역사적 사고와 논술, 국사 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교육 및 봉사 관련 동아리 활동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역사교육전문가 양성과정 등
- ▶ 일경험: 교생실습, 학생 대상 과외 및 학원 보조교사 등 파트타임
- ▶ 자격증: 중등학교 2급 정교사(국가)가 있으면 도움이 되나 필수는 아님
- ▶ 자기주도적 활동: 역사 교육 관련 멘토링, 역사 교육 관련 독서 등 새로운 지식과 기술 획득, 교수법 역량 제고를 위한 활동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거나 역사 분야의 전공을 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
- ▶ 경력경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나 학력 조건은 없지만 가르치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기능 등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교원 자격 소지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기 능력을 갖추어야 함. 대학 이상에서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거나 역사 분야 전공을 하는 것이 취업 시 유리함. 채용은 주로 관련 온라인 채용사이트나 구인광고 등을 통해 이루어짐. 채용 시 서류심사와 시범 강의가 요구되기도 함.



관련 정보처

- ▶ 교육부 www.moe.go.kr
- ▶ 한국학원총연합회 www.kaoh.or.kr
- ▶ 한국역사교육학회 www.historyedu.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전문적인 지식과 실기 능력이 갖춰져 있다면 입직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강생 확보, 학원강사 간의 경쟁이 꽤나 치열한 편이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고, 교수법 학습 등의 자기 계발에 게으르면 도태되기 쉽습니다. 특히 입시 학원은 대학원 졸업자를 비롯한 고학력 진출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학원강사는 특별하게 정해진 승진 체계가 없으며 규모가 큰 학원의 경우 자체적인 보직 체계에 따라 승진하기도 합니다. 또한, 파트타임으로 활동하다 실력을 인정받아서 전임강사로 취업하기도 하고, 학원강사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학원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직업인 인터뷰

역사고고학 학원강사
(인문사회학원강사)

A 학원/000 강사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현재 역사독서, 토론 학원에서 5년 동안 일하고 있으며, 수업과 교재개발,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역사 속의 사건을 스스로 재밌게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도록 강의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것에 맞는 교재를 제작합니다. 수업을 마친 뒤에는 학생의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동시에 학부모와 상담하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의 성장 과정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기존에 학원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으며, 전공을 살려 일할 수 있단 생각으로 역사 학원에 입사 후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수업 주제에 맞는 “연표”를 제작해 동시대 일어난 사건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종교나 문화 등 학생들이 잘 모르거나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수업에서 지적하면서 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특히 한 나라의 사건이 단순히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주변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거나 다른 나라에 큰 파급력을 미친 것이라는 등 학생들의 시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업무루틴) 출근하자마자 그날 올라오는 교재와 답안지를 보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연구를 합니다. 이후 상담기록을 확인하면서 보강을 잡을 학생이 없는지, 상담이 필요한 학부모가 있는지 등을 보고 전화 상담을 진행합니다. 준비를 다 마친 뒤에는 전 수업 때 학생이 제출한 교재에 대한 첨삭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놓친 것이 없는지, 더 생각해볼 내용이 없는지 등 꼼꼼하게 확인 후 첨삭합니다. 수업 시간이 되면 준비한 방법으로 수업을 하는데, 2시간 중 30분은 꼭 토론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수업을 마친 뒤에는 학생 개개인의 평가를 기록으로 남기고,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그날 학부모에게 전화하여 상담합니다. 수업을 마치고 퇴근까지 남은 시간에는 교재를 연구, 개발합니다.

(장점) 이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은 그동안 배운 역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역사 학원이기 때문에 교재를 만들 때나 수업을 진행할 때 모두 역사일 수밖에 없는데, 아는 것이 많을수록 수업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많고 그만큼 더 재밌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배운 전문적인 지식을 보다 쉬운 용어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강사들의 관심 분야도 다르고, 심지어 다른 전공자들도 있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모르던 부분,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을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 또는 어려운 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해서 강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학습 내용을 학생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용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사건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연구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마찰 없이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존중해주면서 때론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주의를 주어 강사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강사가 역사를 얼마나 재밌게 얘기해주는지, 수업에서 벗어나 수 있지만 다양한 역사 이야기를 흥미롭게 해주는지 등 학생들의 마음을 얻을 만한 이야기를 흥미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대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합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싶다면, 학생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그치지 말고, 인문학이라 불리는 과목을 같이 공부 해두거나 논술 자격증을 따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통 역사 학원에선 역사만 가

르치지 않고, 인문학이라 해서 철학, 종교, 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가르칩니다. 또한 그것을 글로 써 내려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죠. 역사만 공부해선 교육업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재학 중 경험) 역사 관련 학원 일에 종사하고 싶다면 역사 내 관심 있는 분야 말고도 다른 역사 모두 배워두면 좋아요. 학원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모두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원합니다.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 서양사 등 대학교에서 가능한 많은 나라의 역사를 배워두면 좋습니다. 저 또한 역사를 좋아해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는데, 막상 취업해서 서양사까지 담당했을 때 무리 없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교육학 수업을 들으면 학원 일을 하는 데, 특히 학생을 대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보다 유리합니다.

(재학 중 경험) 이 일을 하면서 역사 이외의 전공자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우선 지리학 전공한 분이 있었는데, 역사에다가 자기 전공인 지리를 살려 함께 설명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 반응이 좋아서인지 학원에서 역사 지리 수업을 따로 개설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경제학 전공자가 있었는데, 기본적인 역사 흐름대로 진행하되 경제 대공황 처럼 경제 상황이 나올 경우, 쉽고 재밌게 정리해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어, 영어영문, 철학 등의 학과를 졸업한 분들과도 함께 일해봤습니다. 대체로 인문학 계열이 많았습니다.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아무리 역사 수업이라지만, 시간이 지나도 매번 똑같은 내용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특성상 형제자매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배우는 모습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계속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전문적이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최근에 나오는 역사서 중 수업과 관련된 주제를 계속 찾아 읽어보았고, 수업하면서 필요한 철학이나 사상, 정치 등이 있으면 책을 읽으면서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업 이후 학생들의 피드백을 통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스타 강사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또한 특정 지역에서 일한다고 해서 경제적 이익이 많은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좋아한다면 학원업도 정말 괜찮은 직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얻는 뿌듯함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어요. 또한 학생들에게 있어 재미는 강사의 경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여행이나 체험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MEMO

중등학교역사교사 (중등학교교사)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역사 과목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자



✓ 유사명칭

중등학교 국사교사

✓ 주요 진출 및 취업처

국공립 및 사립 중학교, 국공립 및 사립 고등학교

✓ 적합한 사람

- ▶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수리·논리력과, 말이나 글로써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갖춘 사람
- ▶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고 가르치는 것에 흥미가 있는 사람
- ▶ 교육자로서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높은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주된 업무는 교과목을 지도하는 것이지만, 담임을 맡을 경우 학급 경영을 비롯하여 전학, 입학, 출석사항 등의 학사업무를 수행하며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을 관리
- ▶ 학교의 교육계획과 수업일수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전담하는 과목의 학습안을 설계하고 교과서 외에 시청각자료 등 다양한 교구 및 교재를 활용하여 수업
- ▶ 교과내용에 대한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기도 하며 학생들의 수업 중 질문에 답변하고 활발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
- ▶ 시험을 출제하고 학생의 성적을 평가



필요역량

지식

교육 및 훈련, 역사, 사회와 인류, 상담, 심리, 국어, 사무, 의사소통과 미디어 등

기술

가르치기, 학습전략, 말하기, 사람 파악, 설득, 모니터링(Monitoring), 문제 해결, 행동조정, 글쓰기, 기억력 등

태도

리더십, 성취, 노력, 분석적 사고, 인내, 사회성 등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역사교육과, 사회교육과, (한)국사학과, (역)사학과 등
- ▶ 대학 교과목: 한국사개론, 역사적 사고와 논술, 역사와 역사교육, 국사교재연구 및 지도법, 세계사 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선배와의 만남, 현직자 특강 등 관련 분야 기 진출자의 진로특강 참여를 통한 입직 준비 방법 모색, 교육 관련 동아리, 소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한국역사연구회 등 유관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참여
- ▶ 일경험: 교생실습 등 현장경험 실습을 통해 수업 준비 및 학생 지도 등 경험 가능
- ▶ 자격증: 중등학교 2급 정교사(국가)
- ▶ 자기주도적 활동: 지역의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중등교사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 학교 및 교육청에서 교육 관련 봉사활동에 참여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또는 사회교육과, 교직과정이 개설된 관련 학과
- ▶ 경력경로: 대학교의 사범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유리. 사범대학 혹은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 교직 이수를 하면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혹은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면 학부 전공과 관련 있는 교과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관련 정보처

- ▶ 교육부 www.moe.go.kr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www.kice.re.kr
-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www.kfta.or.kr
- ▶ 전국역사교사모임 www.akht21.org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많이 가르친다고 학생들이 많이 배우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짧더라도 제대로 설명해주고 학생들이 직접 말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교사는 또한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늘 겸손한 자세로 배워야합니다. 가르치는 학생들에게서 희망과 즐거움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직업인 인터뷰



중등학교역사교사(중등학교교사)

A 고등학교/000 교사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2016년 중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20년부터는 A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역사 교과인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를 담당할 수 있으며 작년에는 한국사와 세계사를 가르쳤고 2학년 담임으로서 학급을 관리하였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교생 실습을 통해 교직 이수를 하여 교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임용시험은 국가직 공무원을 뽑는 시험입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전공 분야와 함께 교육학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직에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교사의 목표는 세부적으로 볼 때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으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입니다. 전인적 성장이란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 사회성이 포함되는 포괄적 성장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크게 교과와 보직 업무로 나눌 수 있는데 교과는 많은 이들이 아는 것처럼 수업에서의 지식 전달을 말합니다.

(업무루틴) 출근 시 담당 학급 조회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학급 학생들에게 당일 안내사항을 전달하

고 이후의 시간은 시간표에 맞추어 수업에 들어갑니다.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 시간에도 역시 업무는 존재합니다. 저는 담임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급 서류(예를 들어 모의고사 지원과목 파악)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거나 학생, 학부모와의 상담 등을 진행하였고 제 보직은 담임이자 학년 출결이었기 때문에 학년의 출결 사항을 서류와 대조해가며 확인하여 매달 학교에 공문을 올려 결재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는 경우에는 수업 커리큘럼이나 기획된 수업을 검토하고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학습지를 수정, 제작하였습니다.

(장점) 첫 번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업의 선제 조건은 교재, 교과 연구인데 자신이 흥미있는 교과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재미있으며 수업도 자기 나름대로 기획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이 잘되면 보람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지도로 학생이 성장하고 잘되는 모습을 보면 저 역시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 또는 어려운 점)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과 부딪치는 일이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학생이 문제행동을 해서 바로잡아야 할 때, 또는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학생 또는 학부모와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일이 많은 것은 시간을 들여 처리하면 되지만 사람과의 문제는 타인의 의지와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뿐만 아니라 많은 인내를 요하게 됩니다.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관심, 사람과의 어울림,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아직 진행형의 인간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실수도 많이 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긍정적이고 열린 태도가 없다면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기 어렵고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 또한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에너지를 얻고 사람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자신도 교직에서 오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업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학생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얻고 싶다면 학생이 교사에게 긍정적인 기대,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과의 관계가 좌우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학교 일을 하다 보면 동료 교사와의 협업 또한 중요한데 여기서도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가장 좋은 것은 직접 교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생 실습은 자신의 적성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생 실습이 실제 교사 생활을 전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수업을 기획하고 해 보고 학생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자신의 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교생 실습을 해 보고 자신이 교사로 진로를 정할지 결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시간이 가능하다면 한문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임용시험에 한문 원문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많은 준비생이 한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지만 저는 한문 자격증을 미리 준비해서 원문을 읽는데 어려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재학 중 경험) 학교 전공수업을 열심히 듣기를 권합니다. 사실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전공수업이 교직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공수업 때 들었던 개념들이 교직을 준비하고 또는 교직에 입문하여 수업을 준비하면서 불쑥불쑥 튀어나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때 호한융합의 개념을 공부했는데 교직에 들어온 이후 세계사와 동아시사를 가르칠 때 도움이 되어 더욱 풍부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 전공 분야) 사학과 말고도 역사교육을 전공할 수 있는 학과로는 역사교육과와 교육학과가 있

습니다. 다만 교직 이수 자격이 점차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교육을 희망한다면 사학과보다는 역사교육과 같은 사범대가 더욱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복수 전공이 가능하다면 심리학과나 상담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대로 학생과의 관계,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학과에 진학하면 소통의 기술과 심리 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교육청 및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하는 연수가 있고 자신의 관심 분야를 더 연구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법도 있으며 모임을 통해 자신의 수업 경험을 나누거나 수업 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도서도 많이 출간되어 있어 저 또한 수업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문성을 개발하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수업이 잘되기 때문에 재미있어지고 자신으로 인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학생을 보고 보람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 학생을 좋아하고 사람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분들이 역사 교사를 희망하시면 좋겠어요. 아울러 대학 시절 다양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사는 다양한 학생을 만나죠. 그들에게 공감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경험을 대학 때 해보기를 권합니다. 교사가 경험한 스펙트럼이 넓을수록 교사가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며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담의 스펙트럼 또한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MEMO

한국문화강사

다문화센터나 한국문화센터 등에서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어린이들, 또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교육하는 자



유사명칭

한국문화교육사

주요 진출 및 취업처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프리랜서, 해외교육기관, 해외문화홍보원, 지자체 문화재단 등

적합한 사람

- ▶ 한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
- ▶ 한국문화를 통해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 ▶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 ▶ 한국문화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를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어린이들, 또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요리, 전통예절 등 전문 분야별로 강의 진행
- ▶ 전문 분야에 따라서는 실제 체험활동 준비 및 진행
- ▶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는 한국 정착과 자녀 양육에 대한 상담업무 수행



필요역량

지식

국어, 사회와 인류, 교육 및 훈련, 역사, 상담 등

기술

학습전략, 가르치기, 글쓰기, 듣고 이해하기, 읽고 이해하기 등

태도

사회성, 리더십, 적응성, 융통성, 타인에 대한 배려, 정직성, 타인에 대한 영향, 애국, 이타, 성취 등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한국학, 역사학, 국어교육학 등
- ▶ 대학 교과목: 한국학입문, 한국근·현대사회와대중문화, 한국과세계문화예술의비평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대학 부설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업무 관련 실습 프로그램 참가 등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다문화 강사 양성과정 등
- ▶ 일경험: 대학 부설 박물관, 국공립 및 사립 미술관·박물관에서의 인턴 활동 등
- ▶ 자격증: 한국어 교원자격증(국가) 등
- ▶ 자기주도적 활동: 현직자 진로상담, 봉사활동 등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한국학, 역사학 등
- ▶ 경력경로: 한국문화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관련 전공으로는 국어, 사회복지 등이 있음. 한국문화강사의 업무 특성상 한국어, 한국요리, 전통예절,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임.



관련 정보처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www.arte.or.kr
- ▶ 한국문화정보원 www.kcisa.kr
- ▶ (사)한국문화센터연합회 www.hanc.co.kr
- ▶ 한국다문화교육학회 www.kame.or.kr
- ▶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www.klaces.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한국문화강사는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를 외국어로 외국인에게 알리는 사람으로, 전 세계에 한류열풍으로 인해 해외 취업의 기회가 많은 직업입니다. 한국어 능력 뿐 아니라 외국어의 구사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하면 한국문화강사가 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교재개발원 (교구교재개발원)

교육 관련 출판사 및 제조회사 등에서 학생들의 학습에 유용한 교재나 교구(교육용 도구)를 개발하는 자



유사명칭

교재·교구 개발자, 교재·교구연구원

주요 진출 및 취업처

교구제조업체, 교재 전문 출판사, 학습지 전문 업체, 교육 관련 단체

적합한 사람

- ▣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가르칠 때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하는 사람.
- ▣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이해하며 글을 통해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
- ▣ 교육 분야 외에도 맞춤법, 디자인, 상품 제작 공정 등 다양한 지식이 있는 사람.
- ▣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하는 방법을 개발하며 관리 감독이 없이도 스스로 일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효과적인 교재를 만들기 위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편,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
- ▣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나 교수법에 대해 조사·연구
- ▣ 조사·연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참고하여 교재의 콘셉트와 세부 항목 결정
- ▣ 대상에 따라 직접 교재를 집필하거나 필자를 섭외
- ▣ 회의를 통해 교재가 기획의도에 맞는지 검토 및 수정
- ▣ 전체적인 레이아웃과 삽화, 사진에 대해 디자인 부서와 협의
- ▣ 제작된 교재를 수정·보완
- ▣ 교구인 경우 기획한 의도에 맞는 효과적인 교구가 나올 때까지 반복 실험 수행
- ▣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해당 교구에 알맞은 매뉴얼을 작성



필요역량

지식 역사, 지리, 사회, 컴퓨터 활용, 맞춤법, 교육과정, 상품 제작 공정 등

기술 학습전략, 창의력, 글쓰기, 읽고 이해하기, 논리적 분석 등

태도 독립성, 정직성, 자기통제, 사회성, 성취·노력 등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역사·고고학 관련 전공과 함께 교육학, 문화콘텐츠학 등을 융합할 수 있음
- ▶ 대학 교과목: 역사콘텐츠 입문, 역사스토리텔링, 역사 글쓰기, 영상매체와 역사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학과 내 출판 콘텐츠, 영상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소모임·동아리·학회 참여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사설 학원에서의 강의 경험을 통해 기존 역사 교재의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으며 교구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
- ▶ 일경험: 사설 학원 등에서의 역사 과목 (보조)강사 경험
- ▶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국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국가) 등
- ▶ 자기주도적 활동: 교육시장의 트렌드와 수능 출제 경향, EBS 교재 내용을 분석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일반적으로 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해당 과목별 학과를 전공하면 취업 시 유리
- ▶ 경력경로: 주로 교구제조업체, 교재 전문 출판사나 학습지 전문 업체, 교육 관련 단체 등에 입직할 수 있으며 경력이 쌓이면 프리랜서로도 활동할 수 있음. 규모가 큰 업체에서는 공채를 통해 신입·경력직을 모집하고 소규모업체는 대체 인력이 필요할 때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경력자를 수시채용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교육과정과 개편 시기에 따라 인력 수요가 유동적인 편임.



관련 정보처

- ▶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 www.seoul-i.go.kr
- ▶ 한국역사교육학회 historyedu.or.kr
- ▶ 한국교육공학회 www.kset.or.kr
- ▶ (사)한국교과서협회: www.ktbook.com
- ▶ 대한출판문화협회 kpa21.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교재·교구 제작은 단순한 출판업이 아닙니다. 이 역시 교육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나가보는 것만큼 좋은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도 해당 과목을 가르쳐 보았거나 전공한 사람을 우대하는 경향이 큼니다. 따라서 기회가 되신다면 역사 관련 과목의 교육 현장에 나가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역사 교재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책들을 많이 보시면 좋고, 외국 서적들을 보며 차용할 것들이 있는지 해외시장에까지 눈을 돌려 두루 섭렵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인 인터뷰



역사교재개발원

A 교재 출판사/000 대리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현재 A 교재 출판사에 재직 중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초등학생들은 활자보다는 디지털 콘텐츠에 익숙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선생님들도 여러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계셔서 선생님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발행사의 교과서를 선택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교과서 발행사들은 온라인 콘텐츠의 양적·질적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저는 초등학교 교과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대학 재학 중에는 출판사와 관련된 대외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출판사와 연계해 서평을 쓰거나 대형 출판사 MD들의 특강을 듣는 것이었어요. 역사 지식을 잊지 않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응시했으며, KBS 한국어능력시험도 2년에 한 번씩 응시하며 편집자의 역량을 키웠습니

다. 졸업 학기에는 사교육 업계에만 지원해 입사했습니다. 이후에도 전술한 시험들은 계속 응시했으며, 미술관이나 박물관, 영화, 책 등을 다수 접하며 재미있는 콘텐츠 기획에 대한 끈은 놓지 않았고 덕분에 현재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었죠.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제 직무의 목표는 초등학교 사회 선생님들에게 양적·질적으로 풍부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저희 회사의 초등 사회 교과서의 채택률에 대해 도움이 주는 것입니다. 지난달까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 사회 콘텐츠를 기획 및 개발해 종료했고, 9월부터는 VR 역사 콘텐츠 기획, 역사 영상 콘텐츠 기획 및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업무루틴) 오전에는 주로 메일을 확인하거나 메신저를 사용해 타 부서와 업무를 소통하고, 같은 부서동료들과도 업무 일정을 협의합니다. 같은 팀 이어서 협업할 업무가 있기도 하지만, 각자의 업무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편이기 때문이죠.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는 역사 영상 콘텐츠의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거나, VR 콘텐츠를 촬영할 곳의 촬영 허가를 위한 공문을 작성합니다. 중간중간 영상 콘텐츠 시안을 확인하고, 촬영 허가가 났는지 확인합니다. 가끔 에듀테크 콘텐츠 박람회에 참석하거나, 사내에서 진행되는 AI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장점)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꿈꾸고 있던 콘텐츠를 실제로 만들어 서비스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다양한 콘텐츠에서 영감을 받아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서비스하고, 해당 콘텐츠가 선생님이나 학생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때 매우 뿌듯합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 또는 어려운 점) 전공 지식을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있게, 하지만 너무 유치하지 않게, 그러면서도 트렌드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때에도 아이디어가 바로 바로 떠오르면 금방 제작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간을 하염없이 흘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 가장 힘든 점입니다.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해당 전공에 대한 지식은 기본이고,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콘텐츠 개발자이기 이전에 편집자이므로 맞춤법, 문장 구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습도 필요합니다. 콘텐츠 개발을 위해 편식 없이 여러 콘텐츠를 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을 다니거나 미술관 및 박물관 탐방을 다니는 것도 좋으며 독서, 영화관람, 드라마 시청 등을 통해 영감을 얻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많은 콘텐츠를 접해보길 바랍니다. 상술했듯이 편식 없는 콘텐츠 감상이 중요합니다.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소홀하게 대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도움을 줍니다. 어릴 때 보았던 만화들에서 영감을 얻어 콘텐츠를 제작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했다면 그걸 글로 풀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오타·오류 없는 글을 짓는 것은 콘텐츠 개발자로서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KBS 한국어능력시험을 주기적으로 응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재학 중 경험) 글쓰기 수업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수강했던 수업의 교수님께서 한 가지의 주제를 정해 제시하시고, 해당 주제에 대해 글을 쓰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당 글에 대한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유사 전공 분야) 전 학년, 전 과목의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으므로 국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음악, 체육 등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의 전공자들이 콘텐츠 개발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나요?

이 직업을 구할 때나, 구한 이후에도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전공 지식에 대한 탐구는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한 손엔 콘텐츠에 대한 관심, 한 손에는 전공 지식에 대한 탐구를 쥐고 경력을 쌓아간다면 양적·질적으로 풍부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성장은 회사에서 높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이나 창업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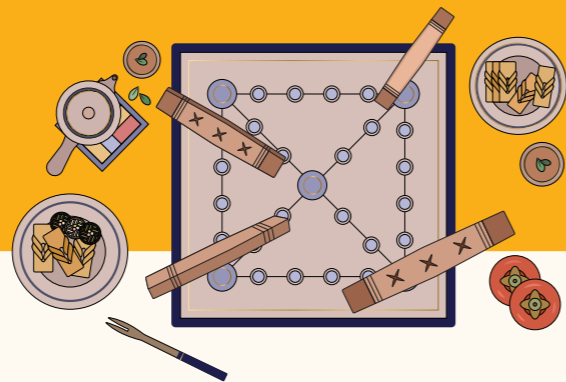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것이 실제 구현되었을 때 보람을 크게 느끼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직업입니다. 자신의 콘텐츠가 선생님의 수업에, 학생의 배움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가짐도 중요하겠습니다. 전공에 대한 애정도 남달라야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 글이 아직은 잘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미래에 밝은 불빛이 되길,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 앞 사람이 갔던 발자국이 되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MEMO

전통놀이강사

전통놀이 및 전통문화의 시연과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자



유사명칭

전통놀이지도사

주요 진출 및 취업처

- ▶ 국내외 역사문화 시설 또는 교육기관 및 단체
- ▶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 ▶ 특기적성 및 돌봄교실, 청소년 동아리 지도
- ▶ 복지관, 요양원, 간호보호센터 등

적합한 사람

- ▶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
- ▶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배려심과 이해심, 감정을 읽는 능력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비석치기, 구슬치기, 풀잎배만들기, 종이배만들기, 강강수월래 등의 전통놀이를 시연해 보여 주고 체험활동을 진행
- ▶ 전통놀이 외 가을 송편빚기나 전래동화읽기, 식물채집 등 다양한 전통문화 교육 활동 수행
- ▶ 구입이 어려운 자연 재료는 직접 산과 들로 다니며 재료를 구해 교구재 제작



필요역량

지식 전통놀이에 대한 역사 및 지식, 유아·청소년 지도법

기술 전통놀이 스킬, 인성 지도

태도 근면함, 성실함, 솔선수범, 자기주도적 학습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역사·고고학 관련 전공과 함께 문화콘텐츠학, 민속학 등을 융합할 수 있음.
- ▶ 대학 교과목: 역사콘텐츠 입문, 박물관의 이해와 현장실습, 안동생활문화사, 역사자원과 지역문화정책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학과 내 문화유산 활용 및 문화관광 프로그램 기획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소모임·동아리·학회 참여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관련 협회에서 운영하는 전통놀이지도사 자격증 및 전문강사과정 이수
- ▶ 일경험: 박물관 및 민속촌에서의 전통놀이 프로그램 도우미 활동 수행
- ▶ 자격증: 전통놀이지도사(민간), 전래놀이지도사(민간) 등
- ▶ 자기주도적 활동: 민속촌에 방문하여 다양한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전통놀이에 대한 이해도 함양 및 봉사활동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전통놀이강사가 되기 위한 학력 제한은 없으나, 역사·고고학적인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전통놀이 지도·교육에 활용할 수 있음.
- ▶ 경력경로: 관련 자격증 취득 이후 봉사, 체험부스 동행 등으로 먼저 경력을 쌓은 이후,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출강이 가능함.



관련 정보처

- ▶ 국립민속박물관 www.nfm.go.kr
- ▶ (사)한국교육문화협회 blairkwon2.webmaker21.kr
-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원 www.kcdf.or.kr
- ▶ 한국민속학회 kofos.or.kr
- ▶ 한국전통놀이문화협회 한국전통놀이문화협회.org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전통놀이강사는 노는 것이 일입니다. 교육 대상은 아동이나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학과생들이 배우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창 시절 놀이 관련된 연수가 있으면 배워도 좋겠습니다. 이 직업의 매력은 힘이 들지 않고, 가르치면서 내가 더 즐겁다는 것인데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직업인 인터뷰



전통놀이강사

A 인재교육원 대표/000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A 인재교육원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2008년 결혼이주여성들과 그 자녀들에게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일이 계기가 되어 한국문화를 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생각에 예절지도자과정에서 전통놀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복지관, 다문화센터, 문화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전통놀이를 보급하고 있어요. 또한 다문화이해교육전문강사로 2015년부터 활동하고 있는데요, 다문화이해교육에서 상호놀이를 하고 있고 한국문화와 다문화이해교육을 의뢰하는 기관이 있으면 강의를 연계하거나 강사들과 함께 하기도 해요. 또한 전래놀이전문가과정을 개설하여 일정 시간을 이수하는 분들에게 민간자격증으로 전래놀이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 전래놀이전문지도사를 양성하고 있어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강의를 의뢰하는 기관이 있으면 강의처를 연계하여 교육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노동인권, 세계시민, 자원봉사, 예절교육, 진로교육 등을 배웠고 NGO(비정부기구)의 세계시민교육과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다른 문화를 더 배우면서 역량 강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결혼이민자들에게 부모교육과 자녀생활을 하는 지도사 활동도 겸했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생활지도사로 활동하면서 여러 종류의 강의를 해야 함에 따라 업무가

힘들기도 했지만 대상자들에게 한국문화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예절교육과 전통놀이의 만남은 저의 건강을 찾게 했습니다. 특히 놀이의 즐거움은 행복한 시간으로 이어져 힘들게 강의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해외봉사자들에게 전통놀이를 몇 년 가르치기도 했고 어르신들이 전통놀이를 배워 아동들에게 알려주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강의를 거의 접고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전통놀이로 행복한 시간을 가지며 전문강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한국문화 전통놀이를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서 알리고 싶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통놀이를 아동에서 성인까지 전통놀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아와 필리핀에서도 전통놀이를 하고 왔어요.

(업무루틴) 원하는 기관에 찾아가서 준비된 놀이 도구를 가지고 2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합니다. 놀이 종류는 학교나 기관에서 선택하거나 추천한 놀이를 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놀이의 종류와 방법을 설명하고 놀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놀이는 개인 또는 조별 활동을 주로 하는데, 1교시에는 이론 수업을 하고 2교시에는 체험 시간을 갖습니다. 6교시인 경우에는 3개의 반이 진행됩니다.

(장점) 전통놀이지도사는 놀면서 일을 하므로 업무적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놀이를 하므로 강의 자료 준비에 시간적 절약이 되고, 함께 놀면서 노는 재미와 즐거움은 스트레스를 받기 보다는 힐링이 되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 또는 어려운 점) 아동의 경우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실내가 아닌 외부에서 활동을 진행하게 되면 더욱 신경 써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평소에 솔선수범하고 근면 성실하게 생활하다 보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공부해보는 것을 선택했는데, 자신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습하는 활동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좋아하는 일인 전통놀이라는 분야를 찾게 되어, 저에게 배움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배우는 과정 중에서 잘 모르겠거나 어려운 부분들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전통놀이지도사 자격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놀이가 진행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한 놀이가 더 많죠? 놀이에 관심을 가지면 여러 곳에서 놀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이나 한옥마을, 민속촌 같은 곳에서 전통놀이 체험의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경험한 놀이로 봉사해도 좋고요. 다만 전통놀이지도사는 민간자격증이라 학생들은 자격증비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학교나 기관에서 단체로 취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력이 쌓이면 출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봉사로 먼저 경력을 쌓는 것도 좋아요. 경력이 쌓이면 혼자 얼마든지 강의를 나갈 수 있거든요.

(재학 중 경험) 역량강화를 위해 대학 및 대학원에서 다양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웃음치료, 인성교육, 인권교육, 자원봉사 소양교육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스킬이 늘어났어요.

(유사 전공 분야) 전통놀이는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유아교육학과나 체육, 교육학, 사회복지, 상담, 사학과 등에서 관심을 가지면 추후의 업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강의를 하려면 많이 보고 배워야 해요. 다양한 기관에서 전통놀이를 전문직으로 경력을 쌓으면서 책이나 먼저 걸어온 선배들의 조언을 들으며 배워나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통놀이지도사는 노는 것이 일이고 대상은 아동이나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학생들이 배우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창 시절 놀이 관련 연수가 있으면 배워도 좋고요. 무슨 일이든 본인이 하기 나름이겠지만 일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다 보면 자신의 일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억지로 하는 것은 안되죠. 억지로 하는 일은 쉽게 지치게 되잖아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듯이, 좋은 경험이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기를 바라요. 잘 하거나 관심이 가는 일은 처음부터 찾을 수 있겠지만 여러 경험을 통해 찾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서 시간도 빠르게 지나가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 일에 관심이 가고, 자신에게 맞으면 스스로 찾아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일이든 해 보는 것도 경험이 될 수 있죠. 이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저 또한 여러 강의를 하며 강의 스킬도 늘어 났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드디어 좋아하는 전통놀이를 찾은 것이에요. 주변의 쓴소리가 자신에게 약이 될 수 있어요. 그 소리가 독이 되어 스스로 잘 하려고 노력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거드름을 피우지 말고 자만하지 말아야 해요. 좋은 약도 몸에 쓴 것처럼 하루 아침에 정상에 서는 사람은 없어요. 김연아 선수가 빙상에서 수천 번 넘어지고 나서야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MEMO



기록연구사

행정기관, 대학, 공사·공단, 기업, 단체 등의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 평가, 보존, 활용하는 자



유사명칭

기록물관리전문요원, 기록보관원, 기록연구원, 기록연구사

주요 진출 및 취업처

정부 및 공공기관의 문헌관리실, 기업의 문헌관리실, 도서관 등

적합한 사람

- 각종 전자 자료를 포함한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성과 객관적 판단 능력을 지닌 사람
- 문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하여 중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사람
- 작업을 신중하게 수행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중시하며,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도덕성을 지닌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정부기록물, 기업체의 회의록, 저명인사의 편지와 같은 사문서 등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저술날짜, 저자, 원래의 편지수령인 등을 확인하여 분석
- 가치 있는 자료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거나 그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감독
- 수납목록·색인·지침서·참고문헌해제·축소필름에 복사된 기록사본 등과 같은 기록보관소가 사용할 참고 보조 자료와 서류기재사항들의 준비활동을 감독
- 선정된 서류를 가나다순과 연대순으로 정리·보관하거나 참고 고시하는 활동을 감독
-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학자·언론인 및 기타 조사자들에게 정치·경제·군사·사회사적인 측면의 자료와 정보에 관해 조언
- 도서관·개인소장품 또는 기타기록물보관소에서 이용 가능한 영구적인 자료들을 신청
- 출판 또는 전시할 자료들을 주제에 관한 지식, 문학적인 표현, 신문·잡지 특유의 표현에 관한 지식, 그리고 발표와 전시방법에 관한 지식 등에 따라 선정·편집
- 자료의 복원이나 기록문서에 바탕을 둔 연구 수행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필요역량

지식

역사적 사건과 원인, 유적에 관한 지식, 워드 프로세스, 문서처리 및 기타 다른 사무절차에 관한 지식

기술

재정 및 물적지원 관리 능력, 범주화 능력

태도

꼼꼼함, 협조적 태도, 정직함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기록물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 ▶ 대학 교과목: 기록관리론, 기록관리의 이해, 정보학개론, 정보분류론, 정보조직론, 정보구조설계, 기록관리연구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정보분류 및 조직, DB 이용 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등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 등에서 기록관리 관련 교육 개설 정보 확인하여 이수 가능
- ▶ 일경험: 기록관리 관련 기관 인턴(연구원), 기록관리학 대학원 학부연구생 및 인턴십 참여 등
- ▶ 자격증: 기록물관리전문요원(국가), 준사서(국가), 정사서(국가)
- ▶ 자기주도적 활동: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등 유관 학회 세미나 참석 또는 자료 학습, 기록관리 관련 역량 제고와 관련있는 다양한 활동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등 기록관리 관련 전공 이수
- ▶ 경력경로: 기록 관련 학·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 후 관련 교육과정 이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해야 함.



관련 정보처

- ▶ 국립중앙도서관 www.nl.go.kr
- ▶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 ▶ 한국기록관리학회 ras.jams.or.kr
- ▶ 한국도서관협회 www.kla.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기록연구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록물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등을 전공해야만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록물관리학 석사 학위 이상, 혹은 역사학이나 문헌정보학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행정 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기록물 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 연구소 등에 진출하며 기록물관리사, 혹은 행정업무 중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로 채용됩니다. 국공립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는 공무원이므로 공무원의 승진 체계를 따르게 됩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직업인 인터뷰



기록연구사

A 광역시청/000 기록연구사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A 광역시청에서 15년째 기록연구사로 근무 중입니다. 저는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록물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록관'을 설치하고 이 기록관에서 기관에서 생산·접수하고 있는 기록물의 생산부터 이관, 폐기까지 기록물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한 기록관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대학교 4학년 전공 수업 중에 국가기록원이라는 기관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역사 기록 분야를 공부하기 위하여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였습니다. 대학원에서 3년 동안 공부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인 공공기관에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기관마다 1명씩 뽑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 제가 살던 지역에서 공고가 올라와서 전공과목과 행정법으로 구성된 공무원 채용 시험을 보아서 합격했죠. 합격 이후 바로 임용이 되어 지금까지 기록물관리전문요원(기록연구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저는 기관의 기록물관리 업무 전반을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공기록물은 거의 대부분 전자 기록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자 기반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능력과 각종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업무는 보통 1년 단위로 크게 계획을 세워서 이뤄지고 기록물이 생산되면 이를 기록관으로 이관받기 위한 업무, 또 이관받은 기록물을 보존하는 업무, 보존 가치가 종료된 기록물을 폐기하기 위한 업무, 직원들의 기록물 생산·관리 행태를 점검하고 감독하기 위한 업무 등으로 구성되어요.

(업무루틴) 보통 기록물의 이관, 폐기, 보존관리 업무를 크게 계획을 세우고 1~3개월 정도 주기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 업무마다 계획을 세울 때 처리기한을 정해 놓기 때문에 그 기한내에 하루 업무량을 정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유의 업무 이외에 직원으로서 해야 할 각종 행정처리 업무, 각종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가 외로 있습니다.

(장점) 이 직업은 보통 변화가 적은 업무입니다. 매년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가도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본인이 안정적이고 변화가 적은 업무에 편안함을 느낀다면 적성에 맞을 것입니다. 또한 이 업무는 후대에게 역사기록을 전승해주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습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 또는 어려운 점) 경우에 따라 한 업무만 해야 하기 때문에 답답함과 지루함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또한 대부분 기관에서 기록관리는 하기 싫은 업무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록관리는 나 혼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전 직원의 기록관리 역량을 이끌어내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많은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기록관리 업무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소수의 인원이 하기 때문에 고독감이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똑같은 업무를 계속 하다 보면 업무가 재미없게 느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돌파해야 하는 건 오로지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 있게 업무를 해나갈지는 본인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급변하는 업무환경에 전자 환경에서의 기록관리 업무로의 전환으로 기본적인 전자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관, 폐기 등을 수행할 때는 직접 기록물을 나르거나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체력이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기록관리를 해야 하고 이 업무가 기관 내,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에 대한 사명감 없이는 기록관리는 그저 재미없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업무로 담당자인 자신부터 치부해 버리기 쉽습니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는 워낙 관련 법률이 촘촘하게 업무들을 규정하고 있어서 법에서 정한 업무만 하기에 시간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하지만 주어진 일에만 매몰되면 기록관리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틀 안에서 자신만의 특색 있는 업무 스타일을 찾아내면서 끊임없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시도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기록관리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대학원, 기록관리교육원 과정을 배우면서 사전에 공공·민간에서 하는 기록물 정리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기록관리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참여해 학계에서 어떤 이야기나 담론들이 오고 가는지 조금이나마 파악을 한다면 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서 조금이나마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학 중 경험) 요즘에는 기록관리학을 전공하거나 현업에서 일하던 강사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 분들과 같이 실무에 대한 토론이나 스터디 등을 통해 기본 지식습득 이외에도 다른 방면으로 기록관리 이슈들이나 문제점 등을 같이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거나 그 자리를 찾아 참여를 해본다면 이 학문에 대하여 더 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 전공 분야) 관련 전공으로는 역사학, 도서관학이 있어요.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기록관리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거나 관련 분야와 비슷한 유사학과(문화콘텐츠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업을 가졌다고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학회나 기록관리협회 활동, 기록인 대회 같은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자기 발전과 ‘기록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록학은 업무 현장에서의 실무경험과 이론이 같이 이뤄지기 때문에, 학회 등의 참여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으로서 권리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록물관리는 관의 기록관리를 책임짐으로써 이 기록들로 인해서 기관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주고 보존된 기록물로 인해서 기관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이 업무를 수행하는 아주 핵심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아직까지 중요하지 않은 업무, 재미없는 업무 등등 인식이 있고 좋은 환경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는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 기록관리를 대부분 채웠기 때문에, 이 분야로는 신규 일자리 수요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쪽에도 기록관리가 나아갈 잠재력은 상당해서 민간 기록물관리 쪽으로 본인이 스스로 틀을 만들어 개척해 나가면 재미와 보람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MEMO



소장품관리원 (레지스트라)

수집된 문화재 또는 예술품을 등록하고 보관·관리하는 자



유사명칭

예술품관리원

주요 진출 및 취업처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갤러리, 상업화랑 등

적합한 사람

- ▶ 미술에 대한 지식이 있고, 작품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
- ▶ 메모하는 습관이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
- ▶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수집한 소장품에 대해 법적·윤리적 문제가 없도록 확인 과정을 거쳐 서류 작업을 하고 소장품 번호를 부여하여 등록
- ▶ 수집된 소장품을 적합한 환경에서 상하지 않도록 관리
- ▶ 박물관이 아닌 곳에서 전시하게 될 때 이동과 전시에 대한 관리
- ▶ 박물관에 전시된 소장품이 수명을 다하게 될 때, 관련자들과 협의 후 이후의 처리 문제를 결정



필요역량

지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소장품과 관련된 폭넓은 분야의 교양과 지식, 해외와의 소장품 교류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

기술

손재주 기술, 관찰력 등

태도

소장품에 대한 애정, 업무에 대한 사명, 꼼꼼하게 소장품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성실함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미술사학, 고고학, 역사학, 박물관학 등
- ▶ 대학 교과목: 한국미술사입문, 동양미술사입문, 서양미술사입문, 박물관학 입문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대학 부설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워크숍 및 강좌 등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직업훈련포털(HRD넷) 등에서 학예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등
- ▶ 일경험: 박물관 등에서의 유물, 문화재, 예술품 관리 관련 경험
- ▶ 자격증: 박물관·미술관 학예사(국가)
- ▶ 자기주도적 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소장품 관리 체험 교육 등) 참여, 한국미술사학회 등 유관 학회 세미나 참석 또는 자료 학습, 그 외 유물, 문화재 및 예술품 보관·관리 등의 역량 제고에 관련있는 다양한 활동



관련 정보처

- ▶ 국립현대미술관 www.mmca.go.kr
- ▶ 한국문화재단 www.chf.or.kr
- ▶ 한국박물관협회 museum.or.kr
- ▶ 한국박물관학회 www.museumstudies.kr
- ▶ 한국미술사학회 korea-art.or.kr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미술사학, 고고학, 역사학, 박물관학 등 소장품 보관·관리와 관련된 유관 전공을 함께 공부하면 이 분야 준비에 유리
- ▶ 경력경로: 대부분 석사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므로, 대학 및 대학원에서 미술사학, 고고학, 역사학, 박물관학 등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함.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갤러리, 상업화랑 등에서 레지스트라로 유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한 경력이 필요함.
- ▶ 주로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며, 대형 박물관 위주로 소장품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레지스트라를 채용하고 있음.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예술품 등록 및 관리를 위해 전산 업무를 하는 분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기 때문에 IT와 관련된 기본적인 관심과 지식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박물관을 자주 다녀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정 분야 전문직은 입직을 위한 수험 과정이 명확하지만, 박물관에서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박물관 분야 여러 업무를 살펴보고 본인의 특기 분야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인 인터뷰



소장품관리원(레지스트라)

A 박물관/000 레지스트라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A 박물관의 소장품 담당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부에서 한국사를 전공하였고, 대학원에서 구석기 고고학을 전공으로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A 박물관의 소장품 담당 학예사(유물 수집+레지스트라)로서 흔히 박물관에서 유물과라고 부르는 부서의 학예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유물과 학예업무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자료의 수집, 소장품(박물관 소유의 자료)의 관리 업무입니다. 레지스트라의 업무를 좁게 정의하면 수장고(소장품을 보관하는 곳)의 물리, 화학적 환경을 관리하여 소장품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고, 소장품을 소독하여 생물학적 위험을 제거하여 안전하게 보존합니다. 그리고 보관하는 소장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소장품을 등록하여 박물관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관리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대학원 졸업 시점에 저의 학문적 배경과 학위를 살리면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박물관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장품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소장품 담당 학예사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에서 한시 임기제 1회 연장 후 계약만료가 되고, 경험을 살려 현재 있는 박물관의 소장품 담당 한시임기제로 일하고 있어요.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소장품 담당 학예사는 박물관의 정체성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소장품의 보존과 관리를 수행하여 박물관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좁은 의미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더 나아가 박물관이 소장품을 통해 전시, 교육을 진행하며 문화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의 기반이 되는 업무입니다.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업무루틴) 하루를 시작하면 수장고를 열고 연구원들과 수장고 상태 체크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장품을 직접 다루며 관리해야 하는 업무를 연구원들에게 지시한 후,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를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국공립 박물관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소장품 담당 학예사는 1년의 업무 진행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계획-시행(중간보고)-결과보고가 1년의 업무진행표에 따라 진행되고 하루하루는 그 진행표의 과정에 따라가게 됩니다. 소장품 담당 학예사는 수장고 관련 일은 다른 일정이 돌아가는 중에도 일정하게 수행해야 하고요.

(장점) 자신의 전공에 맞는 유물과 함께 일하며, 직업 경력과 학문적 성취를 모두 얻는 것이 어렵지만 가능한 직업입니다. 레지스트라는 매일 관리하던 그 소장품들이 기획전시에 나가서 전시되고, 박물관 교육에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력 역시 박물관의 규모,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내가 했던 일이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감각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물 보존에 대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박물관이 다루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학위는 있을수록 좋습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는 기본으로 잘 알고, 그 외의 분야들에 적절한 전문가를 섭외해야 합니다. 업무가 수월합니다. 유물을 다루는 기술이나 원칙도 간단한 것들이나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장품 수집·관리를 하며 만날 매도자, 기증자, 평가위원, 업체 등 소통할 일은 꾸준히 있습니다. 전문가를 섭외할 때도 이 업계의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어 있어야 적절한 전문가를 소개받기 쉽습니다. 일이 항상 정량적으로 진행되진 않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과도 살갑게 대화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유물을 직접 다루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좋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박물관에서 인턴, 근로장학생 등 소장품·박물관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볼 수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발굴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유물을 다루며 관련된 여러 전공자들에게 조언을 얻을

수 있고요. 소장품 담당 학예사를 지원하는 사람 중 대부분이 3급 정학예사 자격증이 있을 것기에 준비하면 좋습니다.

(재학 중 경험) 저는 대학 박물관 근로장학생으로 전시준비, 유물관리, 아카이빙 등 박물관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게 되었고, 그런 경험들은 처음 연구원 자리를 얻을 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유사 전공 분야) 미술사(도자사, 회화사 등), 박물관학, 서지학, 문화재학과, 미학, 민속학, 문화인류학, 문학, 자연과학 등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아무래도 학술적인 전문성을 인정받는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보편적인 경력개발 방식입니다. 그리고 중앙박물관 등 관련 기관에서 진행하는 소장품 관리 관련 연수에 참여하거나, 보존과학 관련 학회지를 챙겨보며 개인적인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정된 자리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박물관 관련학과 석사 졸업 이상의 학문적인 전문성은 갖추 계획을 수립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유물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운 역사애호가 기질을 가지고, '현대 박물관의 역할에 공감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일조하는 것에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분들이 소장품 담당 학예사를 희망 직업으로 생각했으면 합니다.

MEMO



학예연구사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객을 위해 전시회 기획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작품을 수집·관리하는 자



☑ 유사명칭

큐레이터, 학예사

☑ 주요 진출 및 취업처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사립 박물관·미술관

☑ 적합한 사람

- ▶ 예술 작품에 관심이 많은 사람
- ▶ 주의 깊은 관찰력과 탐구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
- ▶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예술적인 안목과 예술시각능력이 있는 사람
- ▶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전시를 기획해 낼 수 있는 창의력이 있는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박물관·미술관에서 관람객을 위한 전시회를 기획
- ▶ 작품의 수집 및 관리
- ▶ 소장품 및 자료에 대한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 소장품 관련 학술 연구 업무 수행
- ▶ 전시할 작품의 진위 여부 판단 및 소장 작품의 훼손 방지를 위한 관리 담당



필요역량

지식 역사, 예술, 사회와 인류, 영어, 의사소통과 미디어 지식 등

기술 범주화 기술, 읽고 이해하기, 글쓰기, 듣고 이해하기, 재정관리 기술 등

태도 꼼꼼함, 정직성, 신뢰성, 책임과 진취성, 인내 등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관련 전공: 미술사학과, 예술학과, 서양화과, 동양화과, 고고학과, 역사학과, 사학과 등
- 대학 교과목: 한국미술사 입문, 동양미술사 입문, 서양미술사 입문, 박물관학 입문 등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대학 부설 박물관에서 모집하는 인턴십(예비학예인력, 인턴연구원 등) 활동을 통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지원 및 활동을 통한 실무지식 습득 및 필요 자질 함양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일반교육훈련기관에서의 박물관및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제공
- 일 경험: 학예사(큐레이터)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 각 지역의 진로체험센터, 한국과학창의재단, 미술관, 박물관에서 주관하는 학예사(큐레이터)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큐레이터에게 필요한 역량, 업무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며,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사이트 - 학예사(큐레이터) 전문가 멘토의 수업 자료, 멘토 소개 자료, 그리고 영상물을 통하여 학예사(큐레이터)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음.
- 자격증: 박물관·미술관 학예사(국가)
- 자기주도적 활동: 대학 부설 박물관에서 모집하는 인턴십(예비학예인력, 인턴연구원 등) 활동을 통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지원 및 활동을 통한 실무지식 습득 및 필요 자질 함양 혹은 다양한 박물관과 미술 전시관을 관람하며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의 종류와 방법, 주제에 대한 관람 후기를 작성하며 안목 함양



주요 진입 과정

- 진출자 전공 영역: 미술사학을 전공하면 이 분야 준비에 유리.
- 경력경로: 일반적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채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채용 시 4년제 대학 관련 분야 전공자 및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연구직의 경우 석사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학교(원)에서 미술 혹은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고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학예연구직공무원으로 채용하며, 사립 미술관이나 갤러리의 경우 주로 학교 추천 등의 방법으로 채용이 이루어짐



관련 정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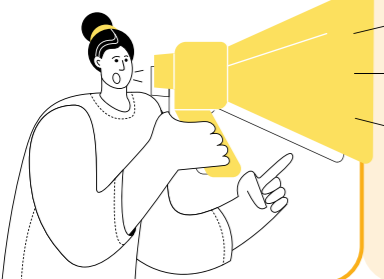
- 국립고궁박물관 www.gogung.go.kr
-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
- 국립현대미술관 www.mmca.go.kr
- 국립민속박물관 www.hnfm.go.kr
- 한국박물관협회 museum.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학예사 관련 기관은 사립보다 국공립 등 공공기관이 많고 외국어 능력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외국어를 집중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외국어에 집중해 공부하기보다는 다양한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휘트니미술관 최초의 여성 학예사인 마사 터커가 '희망은 필요하다, 노력은 절대적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학예사직의 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직업인 인터뷰 ①



학예연구사

A 정부기관 소속 고궁박물관/000 학예연구관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정부기관 소속 박물관인 고궁박물관 학예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5년 학예연구사로 채용된 이후 동산문화재과에서 3년 반, 고궁박물관에서 10년, 이후 학예연구관으로 승진하여 유형문화재과에서 2년 반, 인사교류로 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에서 1년 근무 후 현재 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에서 2023년 1월부터 근무 중입니다. 현재 박물관 전시홍보과에서 전시 기획과 대외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시 기획 업무에는 상설전시와 특별전시의 기획과 개편 등이 있고, 대외교류는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전시 및 홍보 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대학 진학 시 과를 고고미술사학과로 선택하게 되었고, 이후 재학 중 고고학과 미술사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미술사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미술사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전공 분야의 선배들이 많은 경우 박물관의 연구직

으로 취업하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비슷한 진로를 모색하던 중 2005년 문화재청의 학예연구사 경력직 채용 공고를 보고 채용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이후 학예연구직 공무원으로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는 국립고궁박물관의 전시 기획, 운영과 대외교류입니다. 전시 기획 업무에는 국립고궁박물관의 상설전시 기획, 운영, 개편과 특별전시 기획, 운영이 주를 이룹니다. 상설전시란 박물관에 상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유물의 전시를 말하고, 특별전시는 1년 중 2~3회 정도 특정한 주제를 선정하여 2~3개월간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전시를 의미합니다. 고궁박물관의 전시는 조선왕실문화를 주제로 하여 이를 일반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외교류 업무는 국내외 관련 기관과 전시를 위해서로 협조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업무루틴) 전시 업무의 프로세스는 하루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전시의 경우 보통 1년을 단위로 전시기획→전시구성→실행을 위한 실무(계약, 유물대여 등)와 예산집행→전시홍보→전시개최→전시종료로 이루어집니다. 상설전시는 보통 운영과 유지를 위주로 업무 프로세스가 진행되며, 한달에 3~4차례 정도의 유물 교체와 안내물 교체, 1년에 3~4차례 정도의 진열장 청소, 일상적인 관람객 응대, 브로슈어 제작 등이 진행됩니다. 상설전시는 조성 후 7~8년 정도가 경과하면 전체 개편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장점) 전공 분야를 살려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가

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박물관 전시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직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본인이 하는 일이 전시 개최라는 성과로 보여진다는 것이 또 장점 중 하나입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 또는 어려운 점) 전시는 명확한 데드라인이 있으며, 전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합적인 일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전공이 아니더라도 조사하고 연구하여 글을 써야하며, 관련 유물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여 관람객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에 대한 감각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이외에도 공사, 영상 제작에서부터 유물 컨디션 체크와 핸들링까지 모든 것이 가능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부담이 큰 편입니다.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큐레이터로서 관련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 디자인, 미디어, 공사, 홍보 분야에 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연구직이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과격한 언행 등을 삼갈 수 있는 정신적 자세가 필요하며, 행정업무에 대한 지식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진출을 희망하는 기관에서 아르바이트 또는 인턴 등으로 먼저 일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미술사나 고고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갖출 것을 추천합니다.

(재학 중 경험) 한국미술사, 한국회화사, 서양미술사입문 등 미술사 관련 수업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사 전공 분야) 고고미술사학과 이외에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박물관학 및 박물관교육학과 등이 관련 전공입니다.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언어와 관련한 능력은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학예연구사는 경력을 쌓으면 연구관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이후 주요 기관에서 상급자로 일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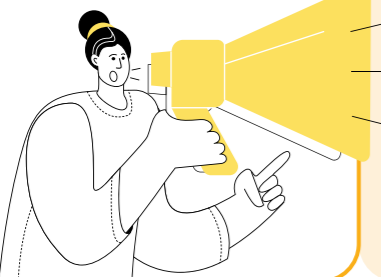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정부 기관에서 문화재 행정업무와 박물관 전시 업무를 경험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경력을 쌓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업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직업인으로서 문화적인 소양을 지속해서 늘려갈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된다는 점도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직업에 진입하고자 한다면 미술사 또는 고고학 분야에서 학위를 확보하고, 관련 기관에서 경력을 쌓으며 채용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전하시길 추천합니다.

MEMO



직업인 인터뷰 ②



학예연구사

A 국립박물관/000 학예연구사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박물관 미술부의 학예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예사 근무 이전에는 문화재 관련 재단 조사연구실에서 해외에 있는 한국문화재를 조사, 연구하는 선임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상설전시실 중 서화실 담당해 4개월마다 전시품을 교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장 서화를 조사,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체 전시와 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박물관 소장 한국서화도록 및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상설실 외에 시기별로 특별전을 기획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보스턴에 있는 미술관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치고 귀국해, 다시 대학 강사를 했던 저는 2012년 해외한국문화재를 조사하여 그것을 홍보하거나 활용하고, 문화재의 유통경로를 확인해 불법적으로 반출된 작품의 환수를 추진하는 기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실태조사실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여 미국, 일본, 유럽 등지의 박물관 및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를 조사하고 이를 보고서로 발간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담당했습니다. 재단에서 3년 넘게 일하다 박물관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업무는 상설전시관 운영, 관리(4개월 주기 서화실 전시품 교체(1년에 3회), 유물 및 전시실 환경 점검), 학술간행물 발간(국립중앙박물관의 KCI 등재지 미술자료의 원고 모집, 심사, 발간 업무), 서화도록 발간(소장품 중 주제를 정해 대상 서화 조사연구, 사진촬영, 도록 편집, 발간), 부서 관련 학예 업무(미술부 자원봉사자 관리, 큐레이터와의 대화, 조명 기기 관리)입니다.

(업무루틴) 메일 확인(답장. 바로 실행이 가능한

것은 오전에 시행), 서화 조사 및 연구(상설 전시 전시품, 외부기관 대여품, 특별전시 전시품 등 수장고에서 실사. 사진 촬영. 기록), 전시실 점검(상설전시관의 서화실 5개실 점검. 전시상태 확인. 민원 해결, 자원봉사자 심화교육), 관련 글 작성(박물관신문 소개글, 전시실 설명카드, 도록 칼럼, 외부 요청 글 작성), 관련 영상 제작(주요 서화 영상 제작. 시나리오 기획. 자막 작성. 업체와 회의. 편집 영상 피드백), 행정업무(국회 및 학예실 요구자료 작성, 자원봉사자 관리, 서화실 관련 비용 지급 요청 등)로 진행됩니다.

(장점) 실제 유물을 다룬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책이나 도판을 통해 본 이미지는 실제와 상당히 다른데, 유물을 실제 만지고 바로 앞에서 조사, 감상하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의 그림을 여러 맥락에서 생각해 보고, 여러 전시에 다른 주제로, 새로운 층위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업무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업무가 동시에 진행되어 수행할 때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 또는 어려운 점) 특별전의 경우, 전시품 선별조사부터 보존 처리 확인, 대여유물 조사, 주제에 따른 장과 부 구분, 전시실 디자이너와의 협의, 영상 제작 업무 등 신경 쓰고 확인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전시는 글의 종류도 많은데 기본적인 전시실 패널, 설명카드 원고부터 시작하여 보도자료, 오디오 가이드 원고, 영상 자막 원고, 어린이용 교육 교재 원고, 티켓 예매처의 전시 소개 원고 등 대상과 목적에 따

른 다양한 글쓰기를 해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외부 기관의 소장품은 대여품을 원활히 협의하고, 보험에 가입하고 현장 실사한 후 운송해 오고, 상태를 점검한 후, 수장고에 안전하게 보관한 후 전시실에서 전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인문학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작품을 보면서 여러 질문을 해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며 본인의 답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어 능력도 필요합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상설전시관과 전시품을 영어, 일본어 등으로 외국인 관람객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외국의 큐레이터와의 협의나 미팅도 종종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시 부서와 교육 부서에서는 각종 행사나 이벤트 등을 계획하기 때문에 다양한 취향을 포용하며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큐레이터와의 대화’와 같은 박물관 행사에 참여해 학예연구사가 직접 이야기하는 전시품이나 전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큐레이터의 전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많아졌으므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국의 박물관 수가 증가하면서, 국공립, 사립 박물관에서는 연구원 채용이 늘었습니다. 학예사 바로 옆에서 실무를 보조하는 일은 매우 좋은 경험이 됩니다. 요즘 학예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기관에서 1년 정도 연구원 생활을 하며 박물관의 실무를 익히는 것은 기본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박물관 특별전 준비 연구원으로서 10개월 간의 경험은 이후 박물관으로의 진로 결정이나 박물관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학 중 경험) 재학 중에 교수님을 따라 박물관 특별전시실에 가서 담당 학예사의 전시 준비 및 실무 이야기를 듣고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학예사라는 직업에 대해 흥미가 생겼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술사 수업 중에 10가지 작품 중 한 작품을 골라 전시 설명카드 및 주제 패널을 써보는 과제가 있었는데 과제를 수행하면서 글쓰기의 기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재학 중 경험) 미술사학(회화사, 불교미술사, 도자공예사, 목공예 등) 외에도 교육학을 전공해도 학예연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미술 관계 큐레이터 중에는 미술 실기를 전공한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영어와 같은 외국어는 수시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외국박물관과의 교류 프로그램으로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국외에 체류할 수 있으며 장기훈련으로 학업이나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학예연구사는 과거의 유물을 현재의 시공간에서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깊이 있는 질문과 창의적인 상상이 필요한데, 업무를 하면서 이러한 능력이 배양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중국미술사 및 회화사, 도자사, 불교미술사 등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듣고 좋은 교재를 많이 읽으며 지식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자신의 기본기를 단단하게 다져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보다 외국어 능력이나 여러 직무 경험을 중시할 수도 있지만 업무를 하다보면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으니 여러 경험을 쌓으며 도전해 보았으면 합니다. 박물관에서 하루 종일 머물며 다양한 유물을 보거나 패널이나 홍보물을 읽고, 박물관에 온 여러 사람을 관찰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학예사로 근무하면서도 디지털 박물관, 문화취약계층(장애인)을 위한 방안과 같은 새로운 흐름에 맞춰 계속해서 공부하고 도전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길게 보고 즐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MEMO

직업인 인터뷰 ③



학예연구사

A 대학교 미술관/000 학예연구사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A대학 미술관에서 학예연구사로 근무하는 000입니다. 한국 근현대미술사에 관심을 두고 있어 최근에는 해당 분야에서 학술지 논문도 기고하고 있고 전시, 교육, 소장품 관리, 연구, 홍보, 예산관리, 출판, 행정 등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예술고등학교 미술과를 졸업하고 대학에서는 미술 실기와 문화경영학을 복수전공하였으며, 대학원에서는 미술사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학부 재학 시절에 전시와 더불어 연계 강연과 세미나에 많이 다녔는데 학예사라는 직업에는 작품을 보는 안목과 더불어 전시 기획에 수반되는 행정 절차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이유로 미술관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과 행정과 관련된 통계학, 마케팅, 브랜딩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문화경영학을 복수전공하였습니다. 또한 장애

인 미술교육에도 관심을 두고 비영리 교육기관에서 자폐 아동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교육 봉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작품을 직접 제작했던 경험, 경영과 행정에 대한 이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교육은 입사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죠.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대학교 내에 있는 미술관인 만큼 학생과 교직원에게 전시에 참여하고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앞서 소개

한 것처럼 저는 전시, 교육, 소장품 관리 및 연구, 전시 홍보와 같은 미술관에서의 학예업무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전시 기획 및 동문 초대전,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재학생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문이 많은 만큼, 본교 출신 작가들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전시 및 동문전, 초대전 등으로 함께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루틴) 업무의 시작은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메일에서 마감 기한과 중요도를 중심으로 먼저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 업무 계획과 함께 두고 하루의 업무계획과 체크리스트를 세웁니다. 학예사의 업무는 한 명의 학예사가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전시 및 교육, 연계프로그램 등 관련 업무의 일정에 따라 매일 다른 업무를 수행합니다. 저의 경우, 오전에는 전시, 교육, 소장품 연구 글과 같이 혼자 진행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오후에는 작가, 연구자, 회의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업무를 하는 편입니다.

(장점) 미술관 학예사는 작품을 많이 보고 연구하는 것, 작가를 만나 작품을 두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가장 좋아하는 전시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일 것입니다. 단순한 작품의 나열이 아닌, 각 작품에 숨겨진 이야기 또는 작품에 대한 해석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학예사는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은 완성된 전시를 공개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 또는 어려운 점) 학예사는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사람과 소통해야 하는 직업이에요. 미술관 내부에서는 동료 학예사, 행정직, 외부에서는 운송사, 미술기자, 작품 소장가, 관람객 등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전시를 만들어내기 위해 현명하게 대응하고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만큼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예사에게 사람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예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적 지식, 작품을 보는 안목과 더불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회성,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와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시를 기획하는 일은 단순히 작품을 배치하는 것과 다릅니다. 작품에 숨겨진 이야기와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람객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매개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학예사의 역할입니다. 그렇기에 학예사는 완성도 높은 전시를 기획하기 위해 이론적인 지식과 안목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론적 지식과 안목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사회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예사는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협업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하나의 작품을 미술관에 걸기까지 학예사는 작가, 운송사, 수장가, 설치업체, 보험사, 인쇄업체, 사진작가, 외부 연구자, 미술관과 학교 내 유관 부서 직원과 같이 수많은 사람과 협력해야 합

니다. 그렇기에 학예사가 완성도 높은 전시를 만들 어내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이 협업하는 만큼 계획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유연한 대처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 곳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부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도서관, 자원봉사, 인턴, 전시장 지킴이와 같은 기회가 있다면 꼭 경험해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업무를 맡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은 미술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과 역할을 아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학 중 경험)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 중에는 작가에 대한 글을 쓰는 수업과 행정적인 업무에 필수적인 통계학, 그리고 미술사적 시각을 형성하게 된 미술사 관련 수업들이 도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근현대미술사 수업의 경우, 한국에 있는 미술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전시를 기획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학 중 경험) 학예사의 전공은 미술사, 미학, 예술학과 같은 미술이론 관련 전공, 예술기획, 문화경영학, 큐레이터학, 박물관학과 같은 미술행정 관련 전공, 회화, 동양화, 조소와 같은 실기를 전공하신 학예사도 있습니다. 이처럼 학예사라는 직업이 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전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맞는 전공이 무엇인지 알고 관련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방법은 국내외에서 하는 전시를 보러 다니며 견문을 넓히고, 논문과 학술대회에서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며, 관심 있는 국가의 언어를 배워 외국 작가들과도 소통하는 노력도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학예사는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업계에 들어오기까지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하지만, 학예사가 된 이후에도 공부를 놓지 않아야 하는 직업입니다. 전시도 많이 보고 학회나 세미나, 미술계에 있는 크고 작은 흐름을 살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저도 어렵고 가끔 게을러지는 때도 있지만, 게으름을 떨치고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은 역시 전시와 작품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예사가 공부를 많이 한 만큼 전시를 많이 보고 익힌 만큼 기획하는 전시의 깊이가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애정과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많이 보고 많이 익히시길 바랍니다.

MEMO

디지털문화재복원전문가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원형대로 복원하는 자



유사명칭

문화재디지털복원가, 문화재 복원가

주요 진출 및 취업처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등

적합한 사람

- 문화재와 인류학, 역사, 고고학 미술사 등에 관심이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기술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
- 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대상 유물의 특징을 파악하고 3D 스캐너를 통해 정밀하게 촬영
- 촬영한 데이터를 정합 및 병합하여 3D이미지 형상을 완성
- 영상 복원에 앞서 2D사진, X-ray, CT사진 등을 통해 표면 및 내부 모습도 관찰하고 고증자료를 조사하여 참고
- 원형의 모습을 간직한 부분을 선정하고 해체하여 모델링 작업 수행
- 모델링된 부재들을 기초로 변형된 형상을 수정
- 스캔 데이터와 복원 데이터를 비교·검토하고 수정사항을 확인한 뒤 최종 검토 수행



필요역량

지식

기계, 공학과 기술, 컴퓨터와 전자공학, 산수와 수학, 역사, 디지털 이미징, 3D 스캐닝, 모델링 등

기술

정교한 동작, 장비 선정, 시력, 범주화, 기술 분석, 컴퓨터활용능력, 모델링 능력 등

태도

분석적 사고, 성취와 노력, 타인에 대한 배려, 책임과 진취성, 리더십, 혁신 등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역사·고고학, 문화재, 예술 관련 전공과 함께 컴퓨터 공학 관련 전공을 융합할 수 있음.
- ▶ 대학 교과목: 디지털아카이브, 미래사회와 정보기술, 한국문화유산과 디지털복원, 문화유산3D 프린팅, 문화유산컴퓨터그래픽스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대학에서 운영하는 디지털그래픽 제작 및 교육활동, 기초 포토샵 교육 등을 이수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컴퓨터 및 컴퓨터 프로그램(3D, 홀로그램, 프로그래밍, 포토샵 등)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관련 연수를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음.
- ▶ 일경험: 문화재 보존·수리 산업 관련 기관 인턴십 참여
- ▶ 자격증: 3D 프린터운용기능사(국가), Auto CAD(민간) 등
- ▶ 자기주도적 활동: 복원을 하여 디지털화 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3D나 홀로그램 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나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제작툴, 포토샵, 일러스트 등을 기본적으로 익혀두는 것이 좋으며, CAD도 활용방법을 습득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음.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현재 문화재 디지털 복원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대학교나 사설 교육기관은 미비한 상태로, 디지털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컴퓨터 관련 학과와 문화재 재현을 위한 건축 관련 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재본과학과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 경력경로: 최근 업무가 전문화되고 문화재에 대한 고증을 통해 전통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석사 이상 학력이 요구되기도 하며 학교 부설 연구소 또는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며 경험을 쌓는 것이 일반적임.



관련 정보처

- ▶ 국립문화재연구원 www.nrich.go.kr
- ▶ 문화재청 www.cha.go.kr
-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 한국문화재단 www.chf.or.kr
- ▶ 한국학중앙연구원 www.aks.ww.aks.ac.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디지털 문화재 복원은 고고학과 역사학, 인류학, IT 기술을 함께 접목한, 한마디로 'IT 컬처 테크놀로지'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쪽에 진출하려면 대학원의 문화콘텐츠 관련 학과에서 디지털 헤리티지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시야를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해당 국가의 기관과 현지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하기에 영어 구사 능력은 필수입니다. 최근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퍼져나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시대도 도래할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직업인 인터뷰



디지털문화재복원전문가

A 문화재 연구원/000 연구원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문화재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재직 중인 연구원은 국립기관으로, 고고연구실, 미술문화재연구실, 건축문화재연구실, 보존과학연구실, 복원기술연구실, 자연문화재연구실, 안전방재연구실, 디지털문화재연구정보팀과 7개의 지방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제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는 문화유산 비파괴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며, 필요한 경우 디지털 기술로 복원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3차원 스캐닝과 X-선 CT 기술을 활용하여 3차원 형상 기록, 모델링, 디지털 복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대학 학부 과정도 관련 전공학과(문화재보존과학과)에서 공부하였고 연구기관에 입사하고 싶었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연구원으로서의 입사 과정은 서류심사와 면접 단계로 채용 과정이 진행되며 제 경험상 채용 분야와 관련된 학위논문, 연구 경험과 학술 실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직무 목표는 문화유산을 비파괴 방식으로 조사하여 보존 처리 전 정보를 획득하여 보존 처리 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문화유산의 형상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보관 및 전시에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외적으로 복원이 필요한 유물을 디지털 복원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디지털 복원

은 전통적인 수작업 방식과 다르게 문화유산을 디지털 방식과 기술로 복원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은 3차원 스캐닝, 3차원 모델링, 3차원 프린팅 등이 사용됩니다.

(업무루틴) 디지털 복원 과정은 대상 문화유산의 실제 형상을 기반으로 할 경우, 기준이 되는 입체 형상을 획득하기 위해 3차원 스캐닝 및 X-선 CT 촬영을 수행하여 그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과하거나 부족한 복원이 되지 않도록 복원 범위를 설정하고, 대상 문화유산에 적합한 복원 방법과 원칙을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델링은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가상공간에서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원 모델링을 완료한 데이터는 3차원 프린팅으로 실물로 출력하여 실제 문화유산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장점) 문화유산을 직접 가까이에서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문화유산을 후대에도 전해질 수 있도록 연구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 또는 어려운 점) 문화유산을 직접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지만, 그렇기에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유물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부담감에 항상 신경 써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보존 처리 및 조사에 사용하는 약품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고, 제 업무의 경우 X-선 CT 촬영에 방사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화재를 연구하는 연구원으로서의 직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공은 꼭 보존과학 분야가 아니라도 다양한 전공자들이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에 대한 이해는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존과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인이 연구하고 싶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학술/연구 실적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문화재복원가로서의 역량으로는 전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본인의 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은 재질도 다양하고 비정형적이므로 업무를 수행할 때 매번 다양한 문제를 마주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매번 다른 문제에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 유연한 성격을 가졌다면 적응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복원 업무에 필요한 기술은 디지털 형상 획득 및 모델링에 필요한 스캐너 운용능력이나, 모델링 소프트웨어 기술을 키우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디지털 문화재 복원 업무에 필요한 모델링 소프트웨어 운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으로는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자격증이나 프린팅/프린터 관련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모델링을 한 결과를 직접 출력할 경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문화재에 대해 이해와 정보가 바탕이 되어있다면 디지털 문화재 복원 업무와 모델링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학 중 경험) 대학교에서 전공 수업 과목 중 문화유산 보존하는 데 디지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었기에 3차원 스캐닝 및 프린팅 등을 학부 수업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해서는 디지털 문화재 복원 및 복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현재 업무수행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사 전공 분야) 문화재 관련 전공 이외에도 미대 관련 학과에서도 디지털 모델링 등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직하고 있는 직장의 재질별 문화재보존연구원 선생님들도 보존과학 전공 외에 재질과 관련된(ex. 목재, 금속, 석재 등) 학과를 전공으로 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나요?

전문성 및 경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노력은 다양한 모델링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하고 소프트웨어마다 강력한 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운용할 수 있다면 큰 장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모델링을 하다 보면, 필요한 기능들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운용할 수 있다면 본인이 필요한 기능을 상황에 따라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다양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 관련 경력계획은 더욱 다양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디지털 복원을 하여 연구 경력을 더 쌓고 싶고, 현재까지 표면 형상만 획득할 수 있는 3차원 스캐닝 데이터를 모델링에 많이 사용하였는데, 향후 X선 CT를 활용하여 내부 형상까지 획득한 데이터를 디지털 복원에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업무를 수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문화재 관련 학과가 많지 않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도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에 다니면서 방학 중에 관련 기관에서 진행하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턴십에 참여해보거나, 관련 업체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재단 등과 같은 기관이나 보존처리 업체 등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해본다면 자신의 적성과 맞는 분야를 찾을 수도 있고, 진로 선택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MEMO



문화재보존가 (문화재보존원)

역사적·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조물, 서적, 미술품, 공예품, 조각품 등의 유형
문화재를 보존·수리·복원하는 자



유사명칭

문화재 수리원, 문화재보존전문가

주요 진출 및 취업처

학교 부설 연구소 및 관련 업체,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연구소 등

적합한 사람

- ▶ 석조물 및 미술품 등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보존하고 복원할 수 있는 손재주가 있는 사람
- ▶ 유적, 유물에 대한 역사적 지식이 있는 사람
- ▶ 섬세하고 꼼꼼한 사람
- ▶ 문화재 보존에 대한 투철한 사명 의식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
- ▶ 꼼꼼함, 인내심, 정직성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
- ▶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
- ▶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궁궐, 사찰, 미술관, 박물관의 소장품과 같은 문화재의 파손 부위를 복원 및 관리
- ▶ 손상되거나 훼손된 문화재의 원형을 되살리기 위해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며 관련 기술을 연구
- ▶ 문화재 수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사찰이나 유적의 수리 및 보존 공사를 담당
- ▶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존과학기술자 및 기능자 등으로 구분되며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각 분야에 대한 기술을 자문하고, 각종 공사와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관리 및 감독
- ▶ 보존과학기술자 및 기능자는 문화재의 손실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파손을 적합한 방법으로 보존 처리



필요역량

지식

고고미술사학적 지식, 문화재 보조관학 지식, 화학·생물학·물리학·건축공학 등 이학적 지식

기술

수리·논리력, 언어능력, 정교함, 미적 감각, 분석력, 관찰력

태도

책임감, 사명감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고고미술사학과, 사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재 보존과학과 등
- ▶ 대학 교과목: 고고미술사학현장실습, 고고학 실습, 미술사 실습, 고고학 자료 계량분석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학과 내 문화재 관련 기관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이수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사설 학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재 수리 관련 자격증 교육 이수
- ▶ 일경험: 문화재 보존·수리 산업 관련 기관 인턴십 참여
- ▶ 자격증: 문화재수리기능자(국가), 문화재수리기술자(국가) 등
- ▶ 자기주도적 활동: 문화재 잡페어(Job-fair) 등 문화재 관련 직업 및 채용 관련 박람회 참가 및 문화재 분석 산업 관련 기관 인턴십 참여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문화재보존학과, 문화재과, 고고학과, 미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건축학과, 전통건축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물리학과 등을 졸업하면 유리
- ▶ 경력경로: 최근 업무가 전문화되고 문화재에 대한 고증을 통해 전통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석사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기도 하며 학교 부설연구소 또는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며 경험을 쌓는 것이 일반적임.



관련 정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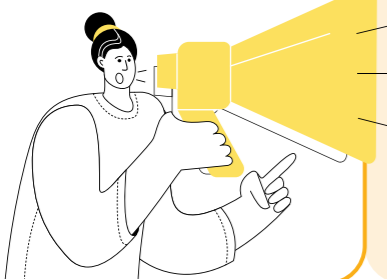
- ▶ 국립문화재연구원 www.nrich.go.kr
- ▶ 문화재보존과학센터 www.nrich.go.kr/conservation
-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 문화재청 www.cha.go.kr
- ▶ 한국문화재재단 www.chf.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문화재 분야에서도 과학적인 분석과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문화재보존원의 역할도 점점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3D장비의 개발·보급으로 보존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디지털시대에 맞게 DB를 구축·관리하는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 문화재를 훼손하는 요인들이 늘 존재하는 점 역시 문화재보존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직업인 인터뷰



문화재보존가

A 문화재 연구원/000 연구원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저는 유기팀의 목재문화재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수침목과 건조목, 옷칠기 등의 목재문화재를 대상으로 의뢰를 받아 보존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며 보존처리의 업무와 관련 연구자료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학술적인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 수행한 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안동 하회탈 보존처리, 강릉 경포대 현판 보존처리 등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사학을 복수전공을 하면서 다양한 전공수업도 듣고 답사도 다니면서 인문학적 견해도 넓히기 위해 학교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방학 동안 교수님 연구소에서 인턴 기회를 얻어, 문화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 일을 하여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보통 문화재 관련업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고 관련 경력이 중요합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동안 보존과학 학문에 대한

전공지식을 배우고 다양한 보존처리 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보존처리가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고 대학원 과정 중에 전문연구과정을 통해 기관에서 6개월간 직접 근무하면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과정을 파악하고 실무능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석사 졸업 후 국립박물관의 기간제근로자(연구원)로 약 3년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용안정과 더불어 종합적인 연구기관에서 본인의 경력의 개발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본 직무에 지원하여 서류와 면접을 통해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목재실은 보존처리대상 유물의 보존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보존처리 전 조사 및 과학적 분석과 보존처리 및 복원의 업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이와 함께 관련 자료와 데이터를 정리하여 보고서 및 논문 등을 작성하며 학술연구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반되는 처리장비와 분석장비 및 시설의 관리 유지 및 약품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루틴) 보통 1년 단위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개의 보존처리 및 분석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하루의 업무과정이 일상적으로 동일하진 않지만 매일 보관 중이거나 처리 중인 유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보존처리 작업을 단계별로 수행하죠.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여러 팀별로 일정을 정해놓고 쓰기 때문에 일정에 맞게 장비를 사용해요. 매일 작업한 것은 일지를 작성하며 보존처리 기록카드를 정리하여 놓고 분석 및 처리 데이터를 추후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자료를 정리합니다. 일과가 정리되면 실험실의 약품과 장비를 정리하고 보안점검도 합니다.

(장점) 쉽게 접할 수 없는 유물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론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고생 끝에 내 손을 거쳐 문화재의 생명을 되살려냈

을 때 감동과 뿌듯함은 보존처리를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걸 다 잊게 해줄 만큼 큰 매력을 가집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 또는 어려운 점) 보존처리 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보존처리를 해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일까 고민하는 부분이 어렵고 힘듭니다. 또한 한 가지의 재질이 아닌 복합재질인 유물의 경우도 보존처리 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도 쉽지 않고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도 어려운 점 중 하나입니다.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전공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서로 협력하고 융합했을 때 좋은 시너지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면서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보존처리 작업을 직접 손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이 필요합니다. 문화재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습니다. 또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학위요건을 갖추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경력을 쌓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문화재 보존처리는 직접 본인이 체득하면서 얻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관련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경험을 많이 해보면서 생각하고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활동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 전시나 유적지 유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관련된 최신 동향을 파악하며 논문이나 보고서 및 관련 기사들을 많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추후 학예사 시험을 준비한다면 한국사, 세계사, 전공과목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도 좋고,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준비하면 좋습니다.

(재학 중 경험) 기본적으로는 수업을 통해 배운 지식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존 처리 실무경험을 많이 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학교에서 진행하는 과정이 없다면 관련된 연결고리를 최대한 찾아 본인이 경험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시길 추천합니다.

(유사 전공 분야) 문화재보존학,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 재질에 대한 기초학문, 미술공예과, 회화과, 의류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등 다양합니다.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여러 보존 처리 사업에 참여해 협력하는 경험을 통해 많이 배우고 역량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경험을 쌓으면서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경력개발을 위해 학예사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취득을 계획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는 본인 직무 관련된 다른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기술적인 능력 향상을 위해 수업을 듣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박사학위 취득을 하거나 학술 논문 발표 등의 실적을 쌓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심이 있다면 일단 도전해보고 생각해봐도 늦지 않습니다.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본인의 방향과 길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자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인 것에 비해 월급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명감과 일의 가치만으로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MEMO



문화재분석원

문화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복원 및 보존 처리하기 위하여 각종 분석기기를 조작하여 문화재를 분석하는 자



유사명칭

문화재분석전문가

주요 진출 및 취업처

문화재청, 문화재 보호재단, 지자체의 문화 관리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적합한 사람

- ▣ 유적, 유물에 대한 역사적 지식이 있는 사람
- ▣ 섬세하고 꼼꼼한 사람
- ▣ 문화재 보존·분석에 대한 투철한 사명 의식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
- ▣ 꼼꼼함, 인내심, 정직성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
- ▣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문화재를 포함한 예술품의 분석 의뢰가 들어오면 재질에 따라 시료를 전처리 수행
- ▣ 재질 분석을 위한 주사전자현미경(SEM), 원자흡수분광분석기(AAS), X-선 형광분석기(XRF, 원소분석), 에너지·파장분산형분광기(EDS·WDS) 및 부식 화합물을 분석하기 위한 X-선회절분석기(XRD) 등의 분석기를 조작
- ▣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의 성분, 제작 연대, 제작 기술 및 산지추정 등에 관하여 연구



필요역량

지식

기계, 공학과 기술, 컴퓨터와 전자공학, 산수와 수학, 역사 등

기술

정교한 동작, 장비 선정, 시력, 범주화, 기술 분석 등

태도

분석적 사고, 인내, 책임과 진취성, 리더십, 혁신, 타인에 대한 배려, 성취와 노력 등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사학, 고고미술사학, 문화재학과
- ▶ 대학 교과목: 고고미술사학현장실습, 고고학 실습, 미술사 실습, 고고학 자료 계량분석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학과 내 문화재 관련 기관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이수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사설 학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재 수리 관련 자격증 교육 이수
- ▶ 일경험: 문화재 분석 산업 관련 기관 인턴십 참여
- ▶ 자격증: 문화재수리기술자(국가), 문화재수리기능자(국가) 등
- ▶ 자기주도적 활동: 문화재 잡페어(Job-fair) 등 문화재 관련 직업 및 채용 관련 박람회 참가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고고미술사학, 문화재보존과학과 등 문화재 관련 학과
- ▶ 경력경로: 문화재 보존 및 복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문화재보존학과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후 학교 부설 연구소 또는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며 경험을 쌓는 것이 일반적임.



관련 정보처

- ▶ 문화재청 www.cha.go.kr
-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 국립문화재연구원 www.nrich.go.kr
- ▶ 문화재보존과학센터 www.nrich.go.kr/conservation
- ▶ 한국문화재재단 www.chf.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근래에 문화재 수리를 배우러 오는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을 보며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분석 분야는 10년 전부터 조금씩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우리나라 문화재 분석 및 보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재스토리텔링작가

문화재청, 지자체의 문화 관리기관 등에 종사하며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거나 특정 문화재에 흥미로운 스토리를 입혀 그 문화재의 홍보를 촉진하는 자



유사명칭

문화재 작가

주요 진출 및 취업처

문화재청, 지자체의 문화 관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보호재단 등

적합한 사람

- ▣ 역사·고고학 등 역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
- ▣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과 글쓰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무형이나 유형의 문화재에 역사적 배경과 인물, 당시의 시대상 등 스토리를 더해 문화재와 관련된 가상의 이야기를 창작하고 콘텐츠를 개발
- ▣ 본인들이 만든 스토리들을 책으로 엮어 교육 도서를 출간하거나 교육 프로그램 기획
- ▣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소양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필요역량

지식 역사, 사회와 인류, 국어, 예술 등

기술 글쓰기, 창의력, 읽고 이해하기, 학습전략 등

태도 혁신, 독립성, 분석적 사고, 신뢰성, 책임과 진취성 등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역사·고고학 관련 전공과 함께 문화콘텐츠학, 문예창작학 등을 융합할 수 있음
- ▶ 대학 교과목: 역사콘텐츠 입문, 역사스토리텔링, 역사 글쓰기, 신화와 디지털콘텐츠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학과 내 출판콘텐츠, 영상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소모임·동아리·학회 참여 및 교내외 공모전 및 대외활동 참여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관련 협회나 평생교육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스토리텔러 양성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음.
- ▶ 일경험: 박물관·지자체 문화재 연구소·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참여, 도슨트 활동 등
- ▶ 자기주도적 활동: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에서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재스토리텔링 공모전에 참여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문화재스토리텔링작가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전공은 없으나 문화콘텐츠학, 역사콘텐츠학, 문화스토리텔링학과 등 문화재스토리텔링 관련 학과와 융합하면 유리
- ▶ 경력경로: 지자체나 문화재청, 관광공사 등에서 개최하는 문화유산에 얹힌 이야기들을 재조명하는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통해 문화재스토리텔링작가로 데뷔할 수 있음.



관련 정보처

- ▶ 광주역사문화자원스토리텔링 gjstory.or.kr
- ▶ 대덕문화원 www.ddcc.or.kr
- ▶ 문화재청 www.cha.go.kr
- ▶ 한국문화재단 www.chf.or.kr
-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콘텐츠코리아랩 www.kocca.kr/kocca/subPage.do?menuNo=204989
- ▶ 한강문화재연구원 www.hich.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누가 더 많은 이야기 자원을 확보하여 재미있게 구성하느냐가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주입식으로 이뤄지던 역사교육도 이제는 이야기로 풀어 쉽게 설명하면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외우지 않아도 이해가 되면서 기억에 남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은 교육의 새로운 분야로도 각광 받고 있습니다.

직업인 인터뷰



문화재스토리텔링작가

A 콘텐츠 회사/000 대리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 후 애니메이션 및 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재직 중 특별한 경력으로는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프로젝트 중 하나인 <출발! 문화유산여행> 보드게임의 기획 및 제작에 참여한 것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디자인 & 스토리텔링 스튜디오입니다. 한국 고전에 기록된 귀신, 요괴, 신수, 신령을 찾아내어 설정을 더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애니메이션, 도서, 굿즈, 즉 문화콘텐츠로 탄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고전과 문화 자료를 조사 및 연구하고 정리하여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현대식 콘텐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학과 수업 중 ‘문화예술경영론’이라는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이후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후 다양한 문화콘텐츠 사례들을 찾아보며 더욱 흥미를 키워가던 차에 취업박람회에서 지금의 회사 대표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수상했던 문화콘텐츠 관련 공모전의 수상경력과 미흡하지만 문화콘텐츠 과제를 통해 쌓아왔던 아이디어를 포트폴리오로 제출하였고, 저의 아이디어와 스토리텔링하는 능력을 좋게 봐주셔서 지금의 직무를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콘텐츠 개발을 통한 한국 전통문화의 발전과 수출이 목표입니다. 저는 한국 고전에 기록된 내용을 찾아내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순화하고, 판타지 요소를 더해 남녀노소 누구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복, 유물, 배경에 들어갈 한국의 문화유산 등을 찾고 어우러지도록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 저의 주요 업무입니다.

(업무루틴) 출근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날 밤 잠들기 전 떠올랐던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콘텐츠를 기획할 때 바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서, 순간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 나거나 막혀있던 부분을 풀 수 있는 법이 생각나면 기록해 둡니다. 그렇게 아이디어 정리 후 콘텐츠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합니다. 뉴스를 보며 찾기도 하고, 전국 곳곳에 있는 박물관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활용할 수 있는 유물과 기록을 찾으며 자료를 쌓습니다. 필요한 때에는 고전을 통해 캐릭터의 설정을 명확히 하고 정리하는 업무도 진행합니다. 그때그때 다른 업무 프로세스를 가 지나 평균적으로는 위와 같은 업무들을 하며 회의에 많이 참여합니다.

(장점) 제 직무의 가장 큰 장점은 전공을 살릴 수 있으며 동시에 만족감이 크다는 점입니다. 전공

을 업무에 적용하면서 만족감까지 가질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고고학 수업과 미술사 수업에서 배웠던 유물의 기본적인 정보와 다양한 문화유산 자료를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애니메이션과 캐릭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것이 실제로 적용되어 하나의 콘텐츠가 되었을 때 매우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 또는 어려운 점) 콘텐츠 기획과 스토리텔링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기준이 ‘나’에게만 간혀있지 않도록 여러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문화 자료를 스토리텔링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가진 기본적인 가치와 의의가 왜곡,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남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힘든 점이라 하면 끊임없는 공부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 꼼꼼하고 정확한 자료 조사는 필수이며, 많은 논문을 보는 것은 기본이고,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를 잘 찾을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공에서 배운 것을 적용할 때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빙산의 일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허술하게 찾아본 자료를 기반으로 나온 콘텐츠가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자료를 찾아볼 줄 알고, 이를 간략하게 잘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앞에서 말

했듯이 ‘나’에 갇힌 생각이 아닌 객관적인 시선으로 대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의견을 물론이고, 가족, 친구들의 의견이 정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즉 여러 사람의 의견을 잘 수용하고, 폭넓게 생각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저 역시 문화콘텐츠 관련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의 직업을 가지게 되었으니 스토리텔링 관련 공모전, 캠페인 등에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해보면 나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일인지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학 중 경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전공수업 중 쓸모 없는 수업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지루하고 흥미가 없다고 느꼈던 수업이었지만, 무심코 지나간 수업의 한 부분이 업무에서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었던 결정적인 수업은 <문화예술경영론>과 <문화콘텐츠 개발> 수업입니다. 이 수업에서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에 관해 처음 접하였고, 지금처럼 업무 수행에 있어 가장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당 수업들에서 과제로 냈던 아이디어를 조금 틀어 업무 중 필요한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재학 중 경험) 콘텐츠라는 것은 그 범위가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나올 수 있으며, 문화 역시 우리가 숨 쉬는 모든 시공간에 존재하기에, 전공에는 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헌정보학과, 사학과, 디자인학과 등 다양한 전공이 문화콘텐츠라는 분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끊임없는 자료 조사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대학원 진학을 통한 전문성 강화입니다. 해당 직무에서 경력을 쌓으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일은 기획에서 시작되며 기계를 개발하는 데에도 스토리텔링이 필요할 때가 있기에 그 어떤 직무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진행 중인 콘텐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해외 수출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대학원 진학을 통한 저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공에 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현재 제작 중인 콘텐츠의 질 또한 올라갈 것이며 신뢰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며, 한발 더 나아가 이것을 현대에 적용하고 싶은 마음 혹은 하나의 콘텐츠로 개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 번 저와 같은 직무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공을 통해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일. 이만큼 전공을 가장 잘 살릴 수 있으며, 동시에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직무는 없다고 장담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나’에 갇히지 않는 것이며,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MEMO

미술아키비스트 (Archivist)

영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록들을 수집하고 정리·기술하고, 디지털화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일반인들에게 열람 서비스를 하며 전시·출판에 활용하는 자



유사명칭

미술기록보존전문가, 미술기록연구사, 미술기록물관리자

주요 진출 및 취업처

국공립 및 사립 미술관

적합한 사람

- ▶ 미술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
- ▶ 기록, 역사, 자료분류가 적성에 맞는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미술계의 정보를 상시적으로 탐색
- ▶ 작가 및 유족의 기증, 방문 수집, 전시회 자료, 미술품 유통경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술자료 및 정보를 수집
- ▶ 기록의 진본성과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 기록 생산 정보 및 기록 사이 관계를 기록
- ▶ 미술품, 도록, 엽서, 홍보물, 간행물, 평론, 방명록, 전시 기사, 작가 노트 등 수집된 자료를 평가하여 보존할 기록과 폐기할 기록 선별 및 기록 보유기간을 결정 기록 처분 일정·승인
- ▶ 작가별, 작품별, 종류별, 시대별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색인화
- ▶ 자료를 미술아카이브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등록하고 열람 서비스를 제공
- ▶ 실물 자료를 보존, 유지하고 반출·반입을 관리
- ▶ 자료 반출 시 보험에 가입하거나 대여료를 정산, 기록보존에 관련된 행정업무 수행



필요역량

지식 미술사 전반에 대한 지식, 기록 관리 지식

기술 자료에 대한 통찰력·객관성, 의사소통능력, 컴퓨터활용능력

태도 윤리의식, 사명감, 꼼꼼함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고고미술사학과, 미술사학, 역사학, 고고학, 미술이론과, 박물관·미술관 교육 관련 학과, 기록학 아카이브 관련 학과, 서지학 등
- ▶ 대학 교과목: 기록관리학개론, 미술사와 시각문화, 현대미술과 시각문화, 미술사연구이론, 한국의 근현대미술, 문헌정보학개론, 민속학개론, 고고학개론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대학 부설 미술관 등에서 근로장학생 참여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지방자치단체, 기록문화연구원, 사립미술관 등에서 운영하는 아키비스트 양성 과정 이수
- ▶ 일경험: 미술관 아키비스트 인턴
- ▶ 자기주도적 활동: 기록관리학 또는 미술사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학습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미술사학, 기록학 등 미술 및 아카이브 관련 전공
- ▶ 경력경로: 미술관의 아키비스트 채용 공고를 통한 입직



관련 정보처

- ▶ 국립현대미술관 www.mmca.or.kr
- ▶ 국립고궁박물관 www.gogung.go.kr
- ▶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
- ▶ 국립민속박물관 www.hnfm.go.kr
- ▶ 한국박물관협회 museum.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미술 분야 아키비스트는 미술 작가, 평론가가 수집한 자료를 파악하여, 개인의 삶에 대한 기억의 발자취를 추적하고, 미술 관련 기관에서 생산된 자료를 남김으로써 현재와 과거를 잇는 역할을 합니다. 즉, 수동적으로 자료정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술사와 기록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통해 자료를 구축하고 미술 애호가들에게 자료를 서비스하고 아카이브 운영에도 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키비스트는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지니고 묵묵히 지남한 시간을 견디며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들입니다. 오랜 세월들 안에서 묵혀 둔 기록을 세상으로 내보이는 직업이니,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작업한다면 좋겠습니다.

직업인 인터뷰



미술아키비스트

프리랜서/000 미술 아키비스트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현재 독립 아키비스트로 일하고 있으며 2009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3여 년 동안 국립현대미술관 아키비스트로 근무하였어요. 아키비스트는 영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록을 수집하고 정리, 기술하고 디지털화하여 기록을 구축하고 일반인들에게 열람 서비스를 하고 전시, 출판에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대학원에서 논문을 준비하면서, 1960-70년대 전시·행사 관련 인쇄물, 사진 등의 자료를 찾기가 힘들어 작품 제작의 배경,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이때 자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 어렵פות이 ‘어떠한 한 장소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만이라도 파악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키비스트’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아카이브 관련 프로젝트인 소장작품 이력 조사, 전시 연계 아카이브 수

집과 활용 등을 진행하였어요. 2009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서비스하고 전시·출판 등에 활용하는 미술 전문 아키비스트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통상적으로 대략 라면박스로 50박스 정도 자료가 수집되면 그 자료의 내용 구조 맥락을 파악하며 자료를 정리하고 연구자들과 이 자료가 무엇인지 협력하여 기술하고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자료를 수복하고 영인본을 만들며 일을 하다 보면 대략 3년이라는 역점의, 지난한 시간을 관통하게 됩니다. 물론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별 전문가들과 함께 일을 하기에 적게는 2명, 많게는 10명 내외가 이 일을 합니다.

(업무루틴) 아키비스트가 수행하는 업무 루틴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료의 규모 파악 및 클리닝 단계로 자료가 수집되면 대략적인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의 대략적인 목록(1차 목록화)을 작성합니다. 이때 기증자와 기증받은 기관(개인)과의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모든 자료의 훈증(클리닝)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훼손 정도, 중요도에 따라 보존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리(arrangement) 단계로 다양한 곳으로부터 수집되어 일정한 조직 방식과 순서 없이 무작위로 입수되는 기록물들이 많아요. 이때 미술 아카이브 본연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표준화된 아카이브 정리의 기본원칙과 계층구조를 적용하며 정리합니다. 세 번째는 기술(description) 단계로,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을 찾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본자료를 이용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국

제적·국가적·기관적 차원의 표준 기술요소를 적용합니다. 네 번째는 물리적 정리 단계인데요, 위에서 살펴본 논리적 정리 및 기술을 진행하면서 물리적 정리가 시작되어요. 문서류는 중성 간지를 끼워 중성 폴더와 중성 박스에 담아 포장, 사진·필름류는 보존용 중성 비닐에 담아 중성 사진첩에 포장하고, 비디오테이프와 같은 자기매체류나 CD·DVD와 같은 광매체류는 장기 보존에 적합한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재질의 불활성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아카이브용 보존 용기에 담아 보관해요. 5번째 단계는 디지털화 단계인데요,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은 자료에 한해 디지털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디지털화된 자료들은 안전성을 위해 중앙서버, 외장하드, CD, DVD, 등의 상이한 매체에 저장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온라인 서비스 단계에서는 아카이브 프로세스가 완료된 자료들은 시스템에 탑재합니다.

(장점) 작가, 비평가를 수면 아래에서 수면 밖으로 기록을 통해 다시 한번 재평가하고, 재매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 어떤 미술계 직업 보다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 또는 어려운 점) 아키비스트는 지난한 시간과 물리적인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모든 자료를 파악하고 정리하는 일이 힘들 때도 있었어요.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미술사, 기록학 두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인데요, 미술 아카이브는 미술과 관련한 개인, 단체, 기관들이 수집한 자료 중 영구보존할만한 가치를 지닌 기록물을 지칭하며 이러한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아키비스트입니다. 따라서 미술 분야 아키비스트는 미술사 전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록관리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료에 대한 통찰력과 객관성입니다. 자료는 다양한 프로세스를 통해 정리된 후에야 세상에 빛을 보게 됩니다. 수집 당시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카이브의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객관성을 놓치기 쉬운데 아키비스트에게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자료에 대한 이해와 객관성을 얼마만큼 균형 있게 맞추는가에 있습니다. 마지막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방대한 양의 자료를 구축(수집, 논리적·물리적 정리·기술, 보존, 디지털화 등)하고 활용(전시, 출판 등)하는 일은 아키비스트가 홀로 진행할 수 없는 일이기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해야만 하고, 원활한 소통 능력은 아키비스트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일반적인 문서아키비스트와 달리 미술제작 과정에 있는 자료(드로잉, 모형, 필름 등)도 다뤄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미술 분야 아키비스트는 미술사 전반에 대한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죠.

(재학 중 경험) 미술아키비스트가 되려면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파악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시스템 속에서 자료를 구축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유사 전공 분야) 미술사, 기록학 분야 등이 있겠네요.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미술 전문 아키비스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학 또는 미술사의 전반적인 이해와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현장 실무를 진행할 수 있는 미술 아카이브 관련 기관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

시설총람』의 80곳 중 미술자료실, 도서실 단독으로 설치된 기관은 52곳인데 이 가운데 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전담인력을 배치한 곳은 국립현대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부산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총 4곳입니다. 이곳에서 실무경력을 쌓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카이브 현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직업이기에 현장 실무경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립 미술관으로는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카이브는 기억을 담는 그릇이자 기억의 저장소이며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키비스트입니다. 이 가운데 미술 분야 아키비스트는 미술 관련 작가, 평론가 등이 수집해 온 자료들을 파악하여 개인의 삶에 대한 기억의 발자취를 추적하고 미술 관련 기관에서 생산된 자료들을 남김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아키비스트는 특히 자신의 직업에 대한 윤리 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지남한 시간을 견디며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묵혀 둔 기록을 세상으로 끌어올리는 직업이니 앞으로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작업하면 좋겠습니다.

MEMO

여행작가

여행하며 취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사이트 등의 각종 매체에 여행 기사를 기고하거나 여행 서적을 저술하는 자



✓ 유사명칭

여행에세이스트, 여행 정보 작가

✓ 주요 진출 및 취업처

출판사, 기업체 홍보실, 광고 대행사, 방송국 등

✓ 적합한 사람

- ▶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 ▶ 글쓰기와 사진찍기를 좋아하는 사람
- ▶ 사교성이 있는 사람
- ▶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국내외 여행지의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
- ▶ 정보 소개 목적의 가이드북의 경우 출판사와 취재 계획을 수립
- ▶ 취재 계획에 따라 여행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을 찍어 기록
- ▶ 수집된 정보 및 사진에 대한 설명을 엮어 가이드북 원고를 작성
- ▶ 여행지에서 보고 느꼈던 것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여행지나 명소들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생산
- ▶ 생산한 여행 관련 콘텐츠를 신문, 잡지 등에 기고하거나 여행에세이 등의 여행서적으로 엮거나 글보다는 이미지 중심인 사진집으로 여행지를 소개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필요역량

지식 외국어 능력, 여행지역에 대한 지식 등

기술 글쓰기, 사진 촬영 능력, 기획력, 취재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태도 끈기, 사명감, 호기심, 여행지역에 대한 애정 등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역사·고고학 관련 전공과 함께 국어국문학, 문예창작학 등을 융합할 수 있음.
- ▶ 대학 교과목: 역사콘텐츠 입문, 역사스토리텔링, 역사 글쓰기, 신화와 디지털 콘텐츠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대학 내의 교지편집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여행 관련 글을 작성하여 기고할 수 있음.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대학 평생교육원, 여행작가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여행작가 양성과정 이수
- ▶ 일경험: 여행사 인턴십을 통한 여행 관련 견문 및 경험 습득
- ▶ 자기주도적 활동: 본인만의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여행 콘텐츠, 여행 기록을 공유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특별한 전공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역사·고고학 지식을 활용하여 여행지의 역사·문화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 경력경로: 여행 작가가 되기 위한 특별한 과정은 필요하지 않으며 SNS나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여행 콘텐츠를 알리거나, 고정 독자를 확보하면 출판 제의를 받기도 하며, 스스로 출판사에 접촉해 출판할 수도 있음.



관련 정보처

- ▶ (사)한국여행작가협회 www.travelwriters.co.kr
-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 한국관광공사 knto.or.kr
- ▶ 한국관광데이터랩 datalab.visitkorea.or.kr
- ▶ 한국관광콘텐츠랩 conlab.visitkorea.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여행의 콘텐츠는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지만, 무궁무진한 여행 콘텐츠들을 보여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여행 작가의 일입니다. 앞으로 여행 문화는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행 작가는 굉장히 전망이 좋은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 작가들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직업인 인터뷰



여행작가

프리랜서/000 여행작가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현재 여행작가 및 역사·인문·교육·테마 여행 강사로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북이나 테마 여행서 등의 여행 관련 서적을 집필하거나 각 처에서 여행을 주제로 한 다양한 테마 강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여행 관련 서적을 감수하거나 사보, 기사 등 각종 의뢰받은 원고를 진행하기도 하고 해외 관광청·공기관과 서적 출간, 강의 등을 협업하기도 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대학원 당시 유럽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방학 중 대학생 단체 유럽 배낭여행 리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여름과 겨울 방학 모두 일을 하였기 때문에 1년에 3달 이상 유럽에 머물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여행 경험들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미 출간되어 있는 여행 서적과 관련된 2기 저자를 섭외하고 있던 와중에, 당시 그리 흔하지 않던 다수의 유럽 여행 경험과 원고 작성 능력 등이 바탕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주로 새로운 책 출간 기획 및 원고를 작성하거나 기존 출간 책 개정 관련 업무를 하기도 해요. 이 외에도 제가 진행하는 강의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업무루틴)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일정 출퇴근 시간은 없어요. 당일 강의나 미팅 일정에 따라 조정되지만 일정한 루틴을 지키며 진행하려고 합니다. 외부 일정이 없을 경우 보통 8시 내외에 당일

업무를 시작합니다. 오전에 보통 원고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고 점심 식사와 더불어 휴식 후 오후 작업을 시작하며(보통 13:30) 이때 부족한 원고 작업이나 기획, 강의 준비, 외부일 등을 수행합니다. 업무는 되도록 7시 이전에 마치려고 하지만, 외부 일정이 많아 저녁 식사 이후에도 보충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점) 하고 싶고 관심 높은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다는 것에 만족도가 높아요. 업무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상황을 경험하게 되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고 편협하거나 정체되지 않는 것에 도움이 되는 듯해요. 직업 특성상 국내외 출장이 잦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고, 출간한 책은 이후 큰 노동을 하지 않아도 수입을 가져다주는 파이프라인이 됩니다. 일정 출퇴근 시간이 있는 직장보다는 시간 조정이 자유롭습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 또는 어려운 점) 창의적인 면을 항상 놓치지 않아야 하는 점과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장점, 특성 등을 계속 생각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도전이 될 수 있겠네요.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을수록 좋은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달력 있는 글쓰기, 충분하고 끊임없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 외국어 능력 특히 영어는 기본이고 할 수 있는 언어가 많을수록 좋아요. 평소 역사, 예술, 정치, 미식,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거나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호기심도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에 건강한 체력과 관찰력, 기억력이 좋으면 더욱 금상첨화죠. 이 외에도 낯선 사람이나 환경 등에 잘 녹아드는 적응력, 무난한 성격과 어느 정도의 친화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많은 것을 내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는 국내외 자유 여행과 외국어 능력 함양,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독서 및 공부하기, 1일 10문장 이상 한 주제를 갖고 글 써보기, 향후 강의를 대비해 발표 수업, PT 등 적극 참여하여 진행 해보기, 앞에 나서거나 리드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기, 문자나 온라인 보다 오프라인 대면으로 다른 사람과의 소통 능력 키우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재학 중 경험) 한국사, 서양사, 동양사 등을 아우르는 전공 커리큘럼에서 다양하면서도 깊은 역사 지식을 갖게 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교양으로 연극과 공연, 서양미술사, 도자기 공예, 논어와 맹자 등을 들으며 이제까지 잘 알지 못했던 분야를 접하게 되고 더 공부하게 된 것도 도움이 되었어요.

(유사 전공 분야) 영어영문학과 등의 외국어 학부, 미술사학과, 인류학과, 지리학과, 미술 관련 전공, 교육 관련 전공, 음악 관련 전공, 지역학 전공 등이 저의 직업과 관련된 전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직업의 기본이 되는 것은 여행이니 짧게나 길게나 언제나 여행한다는 생각으로 실제 여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직업들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특히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공부를 통해 정체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 이만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항상 독서와 강의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더 많은 지식 등을 쌓아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의 많은 사람을 만나고 SNS와 유튜브 등도 관찰하며 시대가 원하는 요구사항과 트렌드가 무엇인지 항상 놓치지 말고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행 작가나 관련 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열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잣대로 사람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나 또는 우리와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열린 마음을 갖고 밖으로 나가 많이 보고 느끼고 직접 부딪혀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관심사에서 조금 벗어나 새롭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어쩌면 더 넓고 재미있는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MEMO

역사게임시나리오작가 (게임시나리오작가)

기본적인 스토리를 토대로 세부적인 게임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자



유사명칭

게임 작가, 게임시나리오 라이터, 컴퓨터게임시나리오작가

주요 진출 및 취업처

방송국, 게임개발회사, 게임유통회사,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

적합한 사람

- ▶ 평소 자신의 생각을 게임화하여 표현하는 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
- ▶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는 사람
- ▶ 글쓰기를 좋아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다양한 자료를 읽고 조사하며, 게임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여 새로운 게임 소재를 발굴
- ▶ 게임기획자에게 캐릭터의 역할 및 특징, 기본적인 스토리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게임의 전반적인 개념과 흐름을 이해
- ▶ 세부적인 게임스토리 창출을 위해 캐릭터 설정, 주제설정, 소재탐구, 게임벤치마킹 등 게임의 전반적인 기획을 연구
- ▶ 전체 게임 시간, 게임 주제, 게임의 방법 등을 고려하여 스토리보드 및 콘티를 구성
- ▶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세부적인 스토리뿐만 아니라 대사, 대화 등 전체적인 스토리를 창작하여 이야기를 구성



필요역량

지식 국어, 디자인, 역사 등

기술 언어능력, 창의력, 글쓰기, 읽고 이해하기, 전산, 추리력, 의사소통 능력 등

태도 혁신, 독립성, 분석적 사고, 성취·노력, 인내심 등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역사·고고학 관련 전공과 함께 문화콘텐츠학, IT, 게임학 등을 융합할 수 있음
- ▶ 대학 교과목: 게임스토리텔링, 역사콘텐츠 입문, 역사스토리텔링, 역사 글쓰기, 뉴미디어와 인문학, 문화유산원형과 스토리텔링, 신화와 디지털콘텐츠, 영상매체와 역사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학과 내 출판콘텐츠, 영상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소모임·동아리·학회 참여 및 교내외 공모전 및 대외활동 참여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민간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게임시나리오 작가 양성과정 이수
- ▶ 일경험: 게임회사 인턴 등
- ▶ 자기주도적 활동: 게임의 스토리 구성만이 아니라 게임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프로그래밍, 그래픽, 사운드 작업에 관한 내용을 학습할 필요가 있음.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게임시나리오나 게임 스토리를 작성하는 분야는 특별히 요구되는 학력이 없으며 기업에 채용 조건에 따라서 실무 경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 경력경로: 공개 채용과 특별 채용 또는 개인적 소개나 교육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 게임 개발사나 게임 유통사, 영상기업 등에 취직할 수 있음.



관련 정보처

- ▶ 한국게임산업협회 www.gamek.or.kr
- ▶ (사)한국게임개발자협회 www.kgda.or.kr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www.arko.or.kr
- ▶ (사)한국문인협회 www.ikwa.org
- ▶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www.scenari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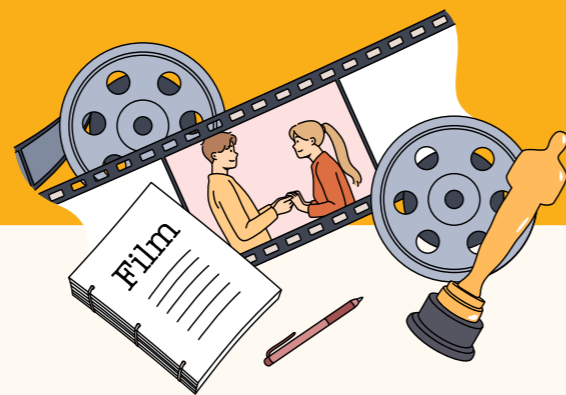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마냥 재미있지만 할 것 같겠지만, 게임을 만들고 관련 이야기를 쓰는 작업들은 때로는 길고 지루합니다. 하지만 스토리를 만들고, 게임 하는 것에 정말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 이 직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역사극·다큐작가 (극작가, 다큐작가)

연극·영화·다큐멘터리 등의 제작을 위해 문화작품을 창작하거나 각색하고 대본을 작성하는 자



✓ 유사명칭

시나리오 작가, 방송작가

✓ 주요 진출 및 취업처

아트홀, 방송사, 영화사, 다큐멘터리 제작사 등

✓ 적합한 사람

- ▶ 감수성과 표현 능력이 풍부하며 예술적 감각을 가진 사람
- ▶ 학술적인 역사 내용을 일반인들이 이해, 공감할 수 있게 풀어 쓸 수 있는 사람
- ▶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역사 극작가

- ▶ 어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연극을 공연하기 위해 연극 주제에 적합한 문학작품을 새롭게 창작하거나 기존의 문학작품을 선정하여 연극의 형식에 맞게 각색
- ▶ 연극 작품의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에 따른 역사적 현실이나 사건의 과정 등을 조사 및 분석하여 작품의 줄거리를 구상
- ▶ 작품의 주제에 따라 등장인물의 성격, 시대적 배경, 장소 등을 결정하며 연극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대사와 동작 등을 구상

역사 다큐작가

- ▶ 다큐멘터리의 프로그램 기획 회의에 참여하여 프로그램 기획안을 작성
- ▶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아이টে를 제안·선정
- ▶ 취재 및 섭외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어떤 영상을 찍을 수 있고 어떤 상황을 연출할 것인지 구상·확인
- ▶ 촬영 구성안을 작성하여 프로듀서와 카메라 감독에게 제시하며 촬영 구성안을 토대로 촬영이 진행되면 촬영된 내용을 프리뷰하여 프리뷰노트를 작성하며 내용을 검토하고 프로듀서와 카메라 감독에게 제작 방향을 조언
- ▶ 프리뷰노트를 기초로 편집구성안(편집콘티)을 작성하여 프로듀서에게 제시
- ▶ 편집구성안을 토대로 프로듀서가 가편집본을 제작하면 프로듀서와 함께 Final Cutting을 진행
- ▶ 시사(Chief Producer와 함께 프로그램을 보면서 평가하는 과정)와 종합편집 과정을 거쳐 완성된 영상을 보며 내레이션 원고를 작성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필요역량

- 지식** 역사, 국어, 사회와 인류, 지리, 철학과 신학
- 기술** 글쓰기, 창의력, 읽고 이해하기, 듣고 이해하기, 기억력
- 태도** 혁신, 리더십, 인내, 분석적 사고, 성취, 노력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역사·고고학 관련 전공과 함께 문화콘텐츠학, 문예창작학, 신문방송학 등을 융합할 수 있음
- ▶ 대학 교과목: 역사콘텐츠 입문, 역사스토리텔링, 역사 글쓰기, 신화와 디지털 콘텐츠, 영상매체와 역사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학과 내 출판콘텐츠, 영상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소모임·동아리·학회 참여 및 교내외 공모전 및 대외활동 참여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평소 독서와 사색, 글쓰기 연습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하며 각종 문화센터, 대학교 내 평생교육원 내 작가 양성 과정, 방송아카데미, 관련 협회 등 사설 학원에서 (방송)대본 작성법 교육을 이수
- ▶ 일경험: 보조작가 경험 등
- ▶ 자기주도적 활동: 다양한 문학 서적을 읽으며 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거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들을 주제 혹은 기존의 작품을 각색하는 습작을 통하여 글쓰기 능력을 기를 수 있음.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역사극·다큐 작가로 활동하기 위한 특별한 전공 제한은 없으나, 역사·고고학과 함께 국어국문학, 문예창작학 등 관련 교육을 받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 경력경로: 공모전, 인맥, 혹은 방송작가 양성 교육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작가의 경우 보조작가로 출발해 자료수집, 섭외 등을 맡다가 경력을 쌓아 메인작가가 될 수 있음.



관련 정보처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www.arko.or.kr
- ▶ 한국문인협회 www.ikwa.org
- ▶ 한국방송작가협회 www.ktrwa.or.kr
- ▶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www.scenario.or.kr
- ▶ (사)한국극작가협회 www.playwright.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역사 관련 작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읽고 사료를 찾는 작업을 해야 하고, 혼자만의 시간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폭넓은 역사 공부를 하고, 이를 통해 다른 아이디어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역사책을 읽다 보면, 인물 하나하나가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는 논문이나 역사책이 아닌지라 재미있게 써야 하지만 사극 작가는 재미보다는 어떤 이야기, 어떤 시대정신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철학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고증도 무척 중요합니다. 건축양식이나 복식, 소품만이 아니라 그 인물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고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인 인터뷰



역사극·다큐작가(극작가, 다큐작가)

A 방송국/000 작가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저는 역사프로그램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일을 한지는 3년 정도 되었네요. 작가의 특성상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방송아카데미를 거칩니다. 방송아카데미에서는 자료조사 하는 법, 구성안, 촬영대본, 더빙 대본 쓰는 법 등 작가가 하는 일의 전반적인 과정을 배웁니다. 수료가 끝난 후 방송아카데미에서 자료조사 작가로 일할 수 있는 방송을 연계해 주기도 하죠. 자료조사 작가로 대략 1~2년 정도 일을 하면 대본을 쓸 기회가 생깁니다. 방송아카데미에서 배우는 모든 과정은 자료조사 작가로 일하면서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역사를 전공하고 대학원을 다니다 역사프로그램의 자료조사 작가로 들어온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후배 작가와 일을 할 때 받아본 자료조사는 언제나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방송아카데미를 나온 작가에 비해 자막 쓰는 법이나 촬영 구성안 쓰는 법을 어려워하기는 했지만,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본인 코너를 담당하는 어엿한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제일 연차가 높은 작가는 자문 교수님과 함께 3개월가량의 주제를 정합니다. 정해진 주제의 대본을 작성하는 작가가 저를 포함해 4명 있습니다. 이들은 4주 동안 1회차를 담당해서 공부하고, 대본을 써서 방송을 완성합니다. 자료 조사 작가들은 주제별로 필요한 전반적인 자료를 찾고, 대본을 토대로 녹화 준비를 합니다. 스튜디오에서 필요한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를 찾는다는지, 게스트를 챙기는 일도 자료 조사 작가들의 몫이죠.

(업무루틴) 4주 동안 한 편의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 한 달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1주차에는 자료 조사 작가가 보내준 내용을 토대로 주제의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합니다. 주제와 연결되는 논문, 기사, 다큐 등을 찾아보며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한 후 사학과 교수님을 찾아 조언을 받습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나 해석에 주의해야 하는 점 등 많은 정보를 얻게 되죠. 2주차에는 구성안을 작성합니다. 구성안에는 기획 의도가 담긴 제목이 들어가고, 전반적인 이야기 흐름이 담깁니다. 구성안을 완성하면 담당 PD, 팀장, 선배 작가와 함께 더 강조했으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지, 너무 복잡한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덜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3주차에는 구성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대본을 쓰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대본을 쓰고, 제작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4주차에 방송을 녹화합니다. 담당 PD가 편집을 하고, 영상에 자막과 음악, 특

수효과 등을 넣고서야 비로소 방송 한 편이 완성됩니다.

(장점) 최근에 시청자들에게 방송을 본 소감을 받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초등학교에서 시청각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학교에서 역사프로그램을 보고 발표를 하기 위해 손을 든 많은 학생을 보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쓴 글이 노트 속 한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방송으로 만들어지고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매력! 그리고 방송마다 다르지만, 작가 대부분이 집에서 대본을 씁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 또는 어려운 점) 주로 밤에 대본을 쓰는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 리듬이 달라지는 것이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작가가 일을 할 때 가져야 하는 덕목 중 하나가 넓고 얇게 아는 것입니다. 작가는 프리랜서인 만큼 다양한 방송에서 일을 합니다. 언제, 어떤 방송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작가로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 깨달은 점은 누구든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국문학, 문예창작과 등 글쓰기를 전공해야만 작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지금까지 함께 일한 작가 중에는 사학과, 법학과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증이 생기면 꼭 찾아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많이 읽고, 많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많이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책만이 아니라 뉴스 기사, 인스타그램 피드도 포함합니다. 방송에 나가는 자막을 쓸 때 요즘 유행하는 말을 알아두는 게 좋아서 SNS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책, 뉴스와 같은 장문의 글을 읽는 것은 자료를 습득하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긴 글 중에 내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앞서 읽은 자료들과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연결할지 등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많이 보는 것은 방송, 영화, 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말합니다. 특히 방송마다 제작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어떻게 전달하는지 생각하며 방송을 보면 작가가 되어 이야기의 뼈대를 잡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학 중 경험) 작가는 넓고 얇게 알수록 좋은 만큼 대학교 때 들었던 모든 교양수업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나’라고 생각했던 모든 수업이 언제 어떻게 발현될지 모른다는 걸 배웠죠. 혹시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유독 재미없는 수업이 있다면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과정을 브이로그로 찍어서 ‘나의 미래를 위한 고난기’란 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유사 전공 분야) 전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예창작과나 시나리오 전공을 했다면 주제를 이야기로 만드는 과정이 한결 수월할 수 있겠죠. 그

리고 휴먼 다큐멘터리 대본을 쓸 때는 더 수려한 문장으로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매끈한 문장력이 요구되지 않는 방송도 있습니다. 보도국(뉴스), 시사, 예능 등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작가들을 만났습니다. 즉,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학과가 아니라 직업에 대한 호기심과 끈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전문성, 경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방송에서 일해보는 겁니다. 프리랜서는 일한 만큼 커리어가 쌓이는 직군이죠. 역사프로그램도 경험해보고, 다큐멘터리 대본도 써보고. 여러 가지 방송을 경험하며 내게 잘 맞는 분야를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본인이 하는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을 많이 보는 것! 다양한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구성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편집했는지 보면서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저는 이 역사프로그램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언젠가 이 프로그램이 없어진다면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유쾌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창 시절 때부터 TV 없이는 못 사는 아이였습니다. 드라마, 뉴스, 다큐멘터리 등 방송이라면 뭐든지 좋아했죠. 다년간의 방송을 보고, 즐긴 경험이 방송을 만들 때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시청자의 입장으로 40년 가까이 살아왔으니, 본능적으로 느끼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방송을 만들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어떤 콘텐츠든지 많이 보고, 이 방송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작가가 또는 제작자가 되는 그날, 그 노력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MEMO

역사웹툰작가 (웹툰작가)

인터넷을 통해 흥미로운 이야기와 재미있는 그림으로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전달하는 자



유사명칭

만화가

주요 진출 및 취업처

웹툰작가 데뷔, 웹툰 지도사 등

적합한 사람

- ▣ 독창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고, 혼자서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
- ▣ 만화와 웹툰 읽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스토리의 소재를 찾고, 기획·취재하며, 콘티(스토리전개도)를 짜서 스케치, 데생, 채색, 편집 등의 작업을 수행 후 웹툰 플랫폼에 제공
- ▣ 태블릿,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림을 완성한 후 편집자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수정 작업
- ▣ 완성된 작품을 웹툰 플랫폼에 연재



필요역량

지식 역사, 디자인, 예술, 철학과 신학, 사회와 인류, 국어 등

기술 미술실기능력, 컴퓨터활용능력, 관찰력, 연출력, 협상력 등

태도 인내력, 창의력, 책임과 진취성, 독립성, 혁신, 꼼꼼함 등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역사·고고학 관련 전공과 함께 문화콘텐츠학, 문예창작, 만화학 관련 전공을 융합할 수 있음
- ▶ 대학 교과목: 역사콘텐츠입문, 역사스토리텔링, 인물로 보는 중국사, 인물로 보는 일본사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학과 내 취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역사학 기반 문화 콘텐츠 창작 개발 활동 및 관련 공모전에 참여하거나, 만화 동아리에서 활동할 수 있음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사설 학원에서 운영하는 웹툰 제작 관련 교육 훈련 이수
- ▶ 일경험: 유명 만화가의 문하생 및 출판사의 학습만화 어린이용 삽화 담당 인턴
- ▶ 자격증: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국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국가), 웹디자인기능사(국가) 등
- ▶ 자기주도적 활동: 다양한 독서를 통해 스토리 구성 능력을 함양할 수 있으며 평소 꾸준히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작품을 그린 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함. 또한 각종 공모전에 자신의 작품을 출품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작품 홍보 활동을 해야 함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웹툰작가가 되는 데 필요한 학력 조건이나 자격 조건은 없지만, 대학의 만화 관련 학과에서 드로잉, 색채학, 만화 제작, 스토리 작법 등 만화 제작과 관련된 전 과정을 이론과 실습으로 이수하면 유리함
- ▶ 경력경로: 웹툰 작가 데뷔 방법은 다양해서 정형화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아마추어 웹툰 커뮤니티 게재, 공모전, 웹툰 기획사의 스카우트·취업 등의 경로가 있음.



관련 정보처

- ▶ (사)한국만화가협회 www.cartoon.or.kr
- ▶ (사)우리만화연대 www.urimana.co.kr
- ▶ (사)웹툰협회 www.wwebtoon.org
- ▶ (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koscas.or.kr
- ▶ 한국웹툰작가협회 www.coreawebtoon.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웹툰 작가를 희망한다면 웹툰을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본인이 웹툰을 좋아하는 것인 만큼, 주변 사람의 반응이나 평가를 신경 쓰기보다 연습장에 지금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재미있는 한 장면을 그려 보면 어떨까요?

직업인 인터뷰



역사웹툰작가(웹툰작가)

A 웹툰 제작사/000 웹툰작가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털사이트 웹툰에서 역사웹툰 2개를 연재 중이며, 다수의 웹툰을 연재한 바 있습니다. 전업 웹툰작가로, 웹툰 기획 및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재 중인 역사 웹툰에서는 '글작가'(스토리 제작/시나리오 집필/콘티 작성)를 맡고 있으며, 웹툰에 따라 '그림작가' 역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도전만화가' 코너에서 연재하던 웹툰 연재가 결정되어, 연재와 학업을 병행했습니다(웹툰작가는 데뷔연령이 이른 편이라 학생작가가 많습니다. 반대로, 직업의 불안정성 때문에 작가 외의 직업을 가진 겸업작가들도 또한 다수 있습니다). 정보의 시각화에 관심이 있어 UI/UX(사용자경험 디자인), 인포그래픽 등을 공부했습니다. 학부 2학년 때 연합전공 정보문화학과에 진입했고, 팀 혹은 개인으로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콘텐츠 개발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졸업할 때까지 웹툰 연재와 학업을 병행

했으며, 지금도 사이버대학 학사 3학년 과정에 편입하여 상담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웹툰작가로 데뷔하는 길은 많습니다. 각종 공모전에 참가할 경우 수상자에게는 연재 기회가 주어지며, 낙선하더라도 연재 제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추어 연재로 데뷔하는 경우, '도전만화가'와 같은 플랫폼 내 연재코너를 활용하거나, SNS등 개인공간에서 연재를 하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플랫폼의 자체심사를 거쳐 작가로 발탁이 됩니다. 후자는 웹툰 에이전시에 스카웃되어 웹툰을 제작하거나(자신이 만든 스토리가 아닌, 회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도 많음) 독립연재 플랫폼에서 유료연재를 진행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상업성 있는 웹툰을 제작하고, 연재처에 원고를 보냅니다. 현재 연재 중인 웹툰에는 '글작가'(스토리 제작/시나리오 집필/콘티 작성)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툰 관련 각종 상품들(단행본, 게임, 굿즈)의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업무루틴) 작업실에서 웹툰 시나리오 및 콘티를 제작합니다. 이를 토대로 파트너인 '그림작가'와 '디자이너'가 작화작업 및 디자인작업(웹툰 내에 필요한 각종 디자인 소스)을 진행합니다. 마감(연재처에 원고를 보내기) 날에는 에이전시와 협업하여 원고 편집을 합니다. 단행본, 게임, 영상화 등 IP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원작자로서 기획 회의에 참여합니다. 상품의 패키징을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체의 의뢰를 받아 일회성으로 하는 연재 이외의 작업을 할 때는 다회의 대면/비대면 아이디어 회의를 합니다. 정리된 기획안을 바탕으로 웹툰을 만들거나, 일러스트를 그립니다.

(장점) 종합적인 창작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웹툰 작업이란 영화로 치면 감독/기획/시나리오 작성/의상/촬영/미술/편집을 모두 혼자(혹은 소수의 팀으로)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세세한 부분까지 작가의 의도를 반영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 또는 어려운 점) 작업

의 종류와 양이 많아 과로하기 쉽고, 성과를 작가가 책임져야 하는 만큼 심리적 부담감도 큼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스튜디오 형식으로 웹툰을 제작하기도 하지만, 안정적인 만큼 창작의 자유도가 줄어들어 스트레스를 받는 작가도 많습니다.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입니다만, 요즘은 협업 능력을 가진 작가들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가는 사회적 능력이 필요 없는 직업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요즘은 자기 작업을 영업하고 홍보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웹상에서 독자들을 시종 만나는 웹툰 작가에게는 더욱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작 과정에서도 팀작가 및 편집자들과 의사소통해야 하므로, 경청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택근무가 많은 만큼 자기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 엄수 연습을 미리 해보며, 자신의 역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림/작문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마감 기한 잘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해진 휴일이 있고, 월차와 연차를 쓸 수 있는 직장과는 달리 웹툰 작가는 자영업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창작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휴식과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1화만 그리고 그만두는 일을 반복하면 프로로 데뷔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만든 이야기를 완결짓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학과나 전공에 크게 구애받는 직업은 아니나, 요즘은 웹툰학과 출신 작가들도 많습니다. 학원에서 수련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학 중 경험) 내 전공과 상관없는 교양수업에서 소재를 얻는 일이 많았습니다. 수업 시간을 취재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더욱 학업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또한 작가가 되면 업계 이외의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적어지므로, 학교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좋습니다. 동아리에 들거나 팀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협업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자기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학 중 다양한 경험을 통해 소재를 얻으면 좋습니다.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연재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림 실력뿐만 아니라 참신한 소재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MEMO



역사전문기자(취재기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역사·고미술·문화유산 관련 사고·사건과 정치·경제 소식, 생활 정보 등을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신속하게 알려 주는 일을 수행하는 자



유사명칭

문화재전문기자, 학술전문기자

주요 진출 및 취업처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및 인터넷 매체, 잡지사 등

적합한 사람

- ▶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 ▶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정의감, 사명감을 지닌 사람
- ▶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현장 취재가 가능한 기동성과 체력이 있는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역사·고미술·문화유산 관련 사고·사건, 정치·경제 소식, 박람회 및 전시회 등 사회·문화 각 분야의 정보 수집
- ▶ 다양한 보도자료를 주어진 짧은 시간에 읽고 이해한 후 핵심적인 내용 및 기사화 가치가 있는 내용 파악
- ▶ 취재기획서를 작성하고 취재관리자에게 보고
- ▶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역사·고미술·문화유산 관련 사건·사고 및 현장을 찾아 관련된 사항을 취재
- ▶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분석, 정리하여 편집 형태와 기준에 따라 기사를 작성
- ▶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가장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목과 소제목 도출
- ▶ 방송에 직접 출연하여 녹화·녹음하거나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중계



필요역량

지식 역사, 예술, 사회

기술 언어능력, 문해력, 논리력, 글쓰기, 대인관계능력

태도 객관성, 사명감, 적극성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역사·고고학 관련 전공과 함께 신문방송학, 국어국문학 등 인문 사회계열 전공을 융합할 수 있음
- ▶ 대학 교과목: 역사 글쓰기, 한국사 특강, 동서교류사, 현대세계의 역사적 이해, 박물관학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대학 신문사에서 활동하며 교내외 박물관·미술관 및 역사·고고학 관련 사건·사고와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를 작성해 볼 수 있음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방송아카데미 등 방송 관련 전문 교육기관에서 기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 일경험: 신문사 및 잡지사 인턴
- ▶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가)
- ▶ 자기주도적 활동: 역사·고고학 전공 학생의 졸업 이후 진로 관련 전문가의 세미나 참석 및 언론사 인턴십, 관련분야 학회 참석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전공 분야는 없으나, 특별히 전문 지식을 요하는 분야의 경우 관련 자격증(한국사능력검정 등)을 요구하거나 역사학 분야로 전공을 제한하기도 함.
- ▶ 경력경로: 역사전문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각 신문·방송·잡지사 등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보통 1차 서류 심사,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으로 이루어지나, 정해진 채용 전형 방식이 없으므로 각 언론사의 채용 전형을 확인해야 함



관련 정보처

- ▶ 한국기자협회 www.journalist.or.kr
- ▶ 한국언론진흥재단 www.kpf.or.kr
- ▶ 한국사진기자협회 www.kppa.or.kr
- ▶ 한국문화재단 www.chf.or.kr
- ▶ VANK www.prkorea.com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종이신문 열독률 및 인터넷 뉴스 조회수 등을 분석하면 역사·문화재 기사에 대한 독자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역사·문화재 분야 기사를 계속 탐독하며 기사의 유형, 제목 및 소재목 경향, 기사의 전개 방식 등을 숙지하고 벤치마킹한다면 업계 진출과 더불어 빠른 적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확보는 필수이며 역사·문화재 등의 사안/이슈가 어떠한 현대적인 의미를 갖고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장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직업인 인터뷰



미술전문기자

A 신문사/000 기자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A 신문 문화부에서 16년간 일하고 있습니다. 신문사 문화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의 정부 부처 취재와 함께 종교, 학술, 출판, 문학, 공연, 클래식, 무용, 영화, 대중음악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출입기관에는 각종 미술관과 갤러리, 박물관, 미술품 경매회사 등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학부에서 고고학과 미술사학을 전공했어요. 20년 전 처음 기자가 됐을 때는 전공 분야로 특화된 기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고 일반적인 문화부 기자로 방송사, 대중음악 취재 등을 했고, 뮤지컬과 연극 등 공연 취재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한국미술시장이 엄청난 호황기를 맞았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신문사에서 전공자인 저에게 이직 제안을 해 와 자리를 옮긴 것이 2008년 2월입니다. 이후로 16년간 부서 이동 없이 미술과

문화재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일간지 기자로서는 이례적인 케이스이며, 국내 언론사 전반을 보더라도 5명 미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로 특이한 경우입니다. 다만, 저희 회사가 저를 해당 분야의 전문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본 배경에는 전공학과 출신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으며, 실제 업무 현장에서도 전공자의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상당히 유용했어요.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미술 및 문화재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이슈에 대해 취재하고 기사로 작성하는 일입니다. 시의성, 신속성, 정보성이 요구되는 스트레이트 기사 외에도 해당 분야를 심층 취재한 기획 기사, 시의성과는 무관하나 의미 있는 내용을 발굴해 심화 보도하는 발굴기사 등을 작성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기사이기에 특정한 주제 아래 여러 편의 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연재 기사'와 전문기자의 지명도에 기반한 칼럼 작성 등을 진행합니다.

(업무루틴) 아침 9시 취재 일정 서면보고를 앞두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관련 분야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는 외신 등을 체크합니다. 여러 발생 사건 중 기사로 쓸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선택하고 목록화하여 하루 일정 보고를 합니다. 발제한 내용 중 기사화할 것으로 선택된 사안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취재한 후 기사를 작성합니다. 당일 발생 기사와는 별개로 인터뷰, 현장 방문 후 리뷰, 기획기사 등도 함께 진행합니다. 즉 고정적으로 맡고 있는 피쳐성 기사를 위한 업무 시간과 당일 발생한 사안에 대한 스트레이트성 기사업무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장점)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고, 항상 새로운 내용을 접하기 때문에 소진하는 삶이 아니라 배우듯 하나씩 채워가는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자로서의 생활이 일종의 아카이브처럼, 기사로 쌓여간다는 점이 문화부에서 미술과 문화재 분야

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기자의 큰 장점입니다. 또한 기사를 여러 건 묶어서, 혹은 인터뷰들을 엮어서 책을 출간할 수도 있습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 또는 어려운 점) 취재 분야의 내용적인 유익함에 비해 대중문화나 K팝 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대중 다수의 관심을 끄는 게 쉽지 않아요. 의미보다는 재미가 중시되는 콘텐츠 소비풍토 때문인데, 그 점이 이따금 괴롭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소재로 한 다양한 기사들이 양산되고 최근에는 1인 미디어까지 가세해 다양성이 강화된 반면, 그 때문에 '차별화'된 글을 써야 한다는 부담감과 중압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술과 문화재 등 문화, 역사 분야에 대한 기본 소양과 관심이 필수입니다. 해당 분야를 전공했다면 전문성 부분에서 특히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문사 문화부가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만큼, 전문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진입이 한 층 수월하며, 문화부 진입 이후에도 좀 더 오래 지속적으로 해당분야를 취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보다 쉬운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반면 어려운 내용

을 쉽게 전달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일단 본인이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이를 상대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술과 문화재 분야는 해당 분야에서 즐겨 사용되는 전문용어가 많은 편입니다. 미술의 경우는 번역투의 미학 용어 및 미술사 용어가 난무하고, 문화재 분야는 역사 전문용어가 자주 쓰입니다. 즉, 전문지식에 대한 확장성을 뒷받침해 줄 전달력이 필요하며, 이 역량이 자신의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 내용을 현재 이슈, 현대적 관점에 접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확장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 점은 독자와의 접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미술관 및 박물관 인턴. 갤러리 및 옥션 하우스 인턴 경험도 가능하고요. 특별히 관련 자격증은 없으나 학예사 시험 등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적인 내용을 쉬운 언어로 전달하는 경험이 가능한 미술관, 박물관 도슨트로서 일해보는 것도 유익하겠고요.

(재학 중 경험) 미술사 입문, 서양미술사, 한국미술사, 불교미술사, 서양미술의 이해, 동양미술의 이해, 박물관학, 미술관학, 고고학입문, 고고학개론, 인류학, 각종 역사학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유사 전공 분야) 신문방송학, 국어국문학, 정치외교학, 동양사학, 국사학 분야 전공자도 많습니다.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관련 분야에서 전공 학문을 심화한 학위 취득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 경매사 등이 개설한 교육 프로그램도 전문성 강화 및 최근 경향성 파악에 도움 됩니다. 기자로서 경험을 쌓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기사를 기반으로 한 저서 출간입니다. 자신의 저서를 바탕으로, 현장 경험을 살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신문사 입사도 쉽지 않고, 문화부 내 경쟁도 치열해 낙타가 바늘구멍 뚫고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두드리면 열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1인당 국민소득 증가로 경제 수준이 향상되면서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 및 수준도 동반 상승한 결과 해당 분야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학생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인턴 기회도 더 다양하니 관심의 끈을 놓지 마시고, 더불어 글쓰기 역량 강화를 위해 자신의 SNS 등에 '공개되는 글'을 꾸준히 쓰는 노력을 해 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MEMO

역사출판물기획자 (출판물기획자)

출판물의 출간 방향을 세우고 작가 섭외부터 수록될 원고 검토와 영업 전략 수립
까지 출판물 기획 및 제작에 관련된 모든 역할을 하는 자



✓ 유사명칭

출판물 기획전문가

✓ 주요 진출 및 취업처

출판사, 출판 저작권 에이전시, 기업체 홍보실, 광고 대행사, 방송국 등

✓ 적합한 사람

- ▶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활동을 좋아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
- ▶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호기심이 많은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독자가 원하는 출판물의 내용과 출판 시장 동향 등을 파악
- ▶ 작가 섭외, 출판물 영업 전략 등 출판물 기획 및 제작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
- ▶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며, 다른 출판물과의 차별성과 최근 경향을 고려해 세부적인 기획안을 작성
- ▶ 출판물에 적합한 작가를 섭외하고 집필된 원고를 검토
- ▶ 내용상 필요한 삽화나 사진 등을 수록하기 위해 미술가나 사진가에게 작업을 요청
- ▶ 출간 이후의 홍보 및 판매 방법 등을 고려하여 마케팅전략 수립



필요역량

지식 국어, 역사, 디자인, 철학과 신학, 예술, 의사소통과 미디어

기술 글쓰기, 읽고 이해하기, 창의력, 협상, 듣고 이해하기, 범주화

태도 독립성, 혁신, 협조, 리더십, 꼼꼼함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역사·고고학 관련 전공과 함께 경영학·시각디자인학 등을 융합할 수 있음
- ▶ 대학 교과목: 역사콘텐츠 입문, 역사스토리텔링, 역사 글쓰기, 신화와 디지털 콘텐츠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학과 내 출판콘텐츠, 영상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소모임·동아리·학회 참여 및 교내외 공모전·대외활동 참여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출판 관련 협회의 아카데미나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출판 기획 및 편집에 관한 교육 이수
- ▶ 일경험: 민간 출판학교 이수, 독립출판물 기획 출간
- ▶ 자기주도적 활동: 국제도서전, 독립출판물 전시회, 북페어 등 도서박람회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출판물들을 접할 수 있음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대학에 출판미디어학과가 생기면서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반드시 관련 학과를 전공해야 하는 것은 아님
- ▶ 경력경로: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공개 채용이나 특별 채용을 통해 출판사, 출판 저작권 에이전시, 잡지사 등에서 활동하며, 기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체 홍보실이나 광고 대행사, 방송국 등에도 진출이 가능함.



관련 정보처

-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kpiipa.or.kr
- ▶ 대한출판문화협회 www.kpa21.or.kr
- ▶ 한국출판인회의 www.kopus.org
- ▶ 북에디터 bookeditor.org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출판사 직원은 '공부하며 돈도 버는 사람'입니다. 시장 논리로만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닌, 회사 규모가 작고 책임 한 권만 출간되더라도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일해야 잘될 수 있는 기반이 생깁니다. 관심 분야에서 신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획에 집중하되, 베스트셀러가 되는 요소에 대해 계속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사회와 시장에 맞춰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깊이 읽고, 많이 정리해 두세요. 마케팅이 가능한 에디터, 에디팅이 가능한 마케터가 되어야 합니다. 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력을 기르는 것 역시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직업인 인터뷰



역사출판물기획자(출판물기획자)

A 출판사/000 사원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출판사 영업부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3년 차 직원입니다. 새로 출간된 신간 및 이전에 출간된 구간 도서의 판매 계획 수립과 도서 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교정 단계가 끝나면 가장 먼저 책을 읽고 대중에게 소구될 점을 파악합니다. 유통부터 서점 광고,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SNS 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합니다. 기획부터 출간 이후까지의 과정에서 편집자와 함께 어떻게 하면 독자와 잘 소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대부분의 출판사가 수시 채용 공고를 일반 구인 사이트나 출판 전문 사이트, SNS에 공지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출판사의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편집자 구인 사이트와 SNS를 통해 관심 있던 몇몇 출판사의 채용 소식을 알게 되어 지원했고, 전공과 어학 능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역사/인문 분야 외서 주력 출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출판 콘텐츠를 책이라는 상품으로 제작하고, 서점 등 유통 채널을 통해 독자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홍보, 광고, 판촉 활동을 진행합니다. 출판은 제조업이지만, 책이라는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불받는 단순한 상품 세일즈에 초점을 두지는 않습니다. 브랜딩, 강연 등의 행사, 콘텐츠 확장 등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매개자이자 콘텐츠 기획자로서의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출판 영업이 단순히 판촉에 집중했다면, 최근 출판 마케팅은 브랜드 전략, 콘텐츠 기획 등 온라인 채널 이해도가 높은 실무경험자를 우대하는 추세입니다.

(업무루틴) 영업부 소속이기 때문에, 출근하자마자 전날 판매량을 확인합니다. 판매량을 확인하고 적정 재고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각 유통사(서점, 배본업체 등)의 발주 수량을 확인 후 도서를 출고합니다. 오전에는 출고 업무만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가끔 오전에도 원고를 읽거나 콘텐츠 기획을 할 수 있지만 보통 오전에는 글자가 아닌 숫자와 일합니다. 오후에는 글과 일합니다. 신간 원고를 읽고, 광고 등 마케팅 방안을 수립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합니다.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채널이 온라인이다 보니, 대부분의 시간을 온라인 콘텐츠 기획에 쏟습니다. 이때 독자들의 선호나 사회 이슈, 경제 상황 등을 날카롭게 살피고 파악해야 합니다. 항상 생각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신간이 없을 경우에는 구간 홍보 자료를 만들거나, 주요 서점에 나가 다른 출판사의 책을 살펴보는 등 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외에 북토크, 저자 사인회 등 오프라인 행사도 기획/진행합니다.

(장점)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양해지면서 책을 읽는 독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한 권의 좋은 책을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 또는 어려운 점) 종합 출판사의 경우 편집부가 아닌 이상 마케팅팀은 분

야별로 도서를 담당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보통은 분야 상관없이 서점별로 팀이 나뉘는 경우가 많은데, 관심 분야가 아닐 경우 거래처에 정보 전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분야의 여론과 관심사, 트렌드 정보들을 나눌 수 있는 교양과 지식이 부족하면 당연히 매출 확대에 이어지기도 어렵습니다.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원만한 대인관계와 소통이 중요합니다. 독자의 심리, 서점 담당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시장의 트렌드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출판사와 독자의 소통을 도와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수금을 받아오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실수가 없어야 하고, 거래처의 정보를 사전에 빠르게 파악해 거래 중인 우리 회사가 입을 피해를 줄이는 것도 업무입니다. 통계, 기존 도서의 판매량 등 숫자로 된 자료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독서 활동과 문해력도 중요합니다. 빠르게 책을 읽고 한두 마디로 요약해 낼 수 있는 능력,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독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전달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책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이후 책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을 통해 마케팅 방안을 수립해야 논리 있게 설득이 가능합니다.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출판사 입사의 등용문이라 불리는 출판학교 이수를 추천합니다. 분야 실무자들의 강연을 듣고 실무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개인 포트폴리오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책을 얼마나 꾸준히 읽어왔고, 책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기준이 확실한 독서 편력을 만들고, 꾸준한 서평 기록을 남기는 것이 포트폴리오 제출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매출 자료나 기획안 작성을 위해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의 기본적인 OA 프로그램은 필수적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콘텐츠 관련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픽/영상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도 필요합니다.

(재학 중 경험) 대학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던 출판 편집자 프로그램이 업무를 개괄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타 학과 수업인 '문화유산원형과 콘텐츠개발' 강좌도 수강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철학/역사 관련 콘텐츠를 도서/영화/지역문화와 엮어 큐레이팅하는 앱/뉴스레터 서비스를 기획했는데, 이를 입사 시 포트폴리오로 수정하여 출판같이 오래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마케팅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유사 전공 분야) 문예창작학과/국어국문학과가 많지만 저희 출판사에는 화학과/철학과/사회학과 등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는 역사/철학 고전 도서를 주력으로 출간하지만 종합출판사이기 때문에 전공에 따라 담당하는 도서가 달라지긴 합니다.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본인의 역량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기획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장과 시대의 니즈를 읽고 변화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업계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책이라도 매출을 위해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기획 단계에서 원고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시장분석과 배본(시장) 사이즈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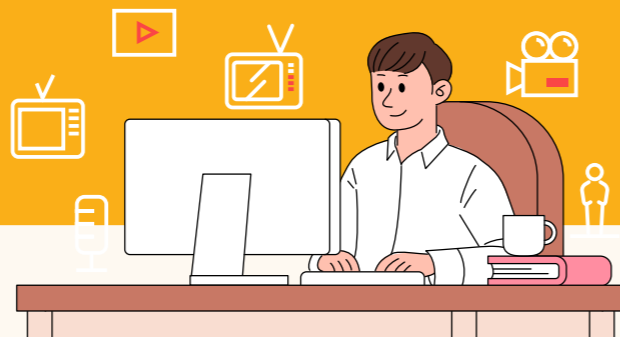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텍스트는 모든 매체의 기본이고, 결국 그 텍스트를 잘 읽어내는 사람이 다양한 콘텐츠의 확장 가능성을 가질 수 있지요. 종이의 형태이든 전자문서의 형태이든 사람들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한 그 정보를 일정한 양식으로 묶어 판매하는 기업은 나올 수밖에 없고, 판매 과정에서 마케팅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사회와 시장에 맞춰 자신의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깊게 읽고, 많이 정리 해두세요. 에디팅이 가능한 마케터, 마케팅이 가능한 에디터가 되어야 합니다. 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필력을 기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콘텐츠를 품질 있게 생산하는 감각을 키우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MEMO

역사콘텐츠크리에이터 (미디어콘텐츠창작자)

유튜브 등 광고 기반 플랫폼에 개인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올리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자



유사명칭

1인 크리에이터, 개인미디어콘텐츠제작자

주요 진출 및 취업처

개인 채널 운영, 미디어콘텐츠 회사(MCN: Multi Channel Network) 소속되어 활동

적합한 사람

- ▶ 평소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 콘텐츠로 표현하는 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
- ▶ 문화와 사회 전반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촬영하고 싶은 영상 주제를 선정
- ▶ 주제에 맞는 내용을 수집하고 결정
- ▶ 대사, 출연진, 촬영구도 등을 영상 촬영계획을 수립 및 제작
- ▶ 촬영 시 도움을 받을 경우 담당 PD와 영상연출에 대해 논의
- ▶ 촬영 후 편집하고 유튜브 등 광고기반 플랫폼에 영상을 업로드
- ▶ 홍보, 광고 등을 목적으로 각종 이벤트에 참여



필요역량

지식 촬영·편집 등 영상 제작 지식

기술 예술시각능력, 창의력

태도 자유분방함, 사회성, 혁신, 분석적 사고, 정직성, 인내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역사·고고학 관련 전공과 함께 문화콘텐츠학, 문예창작, 연극영화학, 미디어학, 영상학, 인터넷방송 관련 전공을 융합할 수 있음.
- ▶ 대학 교과목: 역사콘텐츠입문, 역사스토리텔링, 콘텐츠기획 및 프리젠테이션, 영상역사학워크샵, 영상매체와 역사, 신화와 디지털콘텐츠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학과 내 취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역사학 기반 문화콘텐츠 창작 개발 활동 및 관련 공모전 참여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의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영상 제작 과정 및 민간 훈련 기관의 영상 제작 과정을 통해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가 되기 위한 훈련과 교육 이수
- ▶ 일경험: 유튜브 채널 운영 보조 또는 지원 업무 인턴 수행
- ▶ 자격증: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국가)
- ▶ 자기주도적 활동: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여러 주제에 대한 영상 채널을 구독하거나 팟캐스트를 청취하고,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거나 뉴스를 구독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가 되기 위한 전공이나 학력의 제한은 없으나 대학교에서 인터넷 방송과, 영상학과, 미디어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연극영화학과, 문예창작과 등을 함께 공부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음.
- ▶ 경력경로: 혼자 콘텐츠 제작을 하다가 다른 사람과 팀을 구성하거나 전문 MCN 기업과 계약을 맺고 활동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전문성을 토대로 직접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회사를 차리거나 프리랜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전문가를 키우기 위한 교육 활동도 할 수 있음.



관련 정보처

- ▶ 한국MCN협회 www.kmcna.or.kr
- ▶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 ▶ 한국유튜버협회 www.kyoutuber.com
- ▶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historycontents.com
- ▶ VANK diplomat.prkorea.com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콘텐츠가 대중에게 각인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핫(hot)하거나 딥(deep)하거나. 핫에는 재미, 흥미, 신속성, 화제성이 포함되고 딥에는 전문성, 정확성이 포함됩니다. 딥한 내용을 핫하게 풀어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내외 다양한 콘텐츠의 특성을 벤치마킹하는 성실한 노력과 함께 이를 자신의 전문성에 접목할 수 있는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역사평론가(평론가)

역사적 이슈를 평가하고, 방송 또는 출판을 위한 평론을 작성하는 자



✓ 유사명칭

역사학자, 역사해설가

✓ 주요 진출 및 취업처

대학, 신문, 방송, 잡지사 등

✓ 적합한 사람

- ▣ 독립성, 분석적 사고, 꼼꼼함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
- ▣ 역사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역사적 이슈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
- ▣ 역사적 이슈의 요인을 분석
- ▣ 지식, 판단, 경험 등을 근거로 역사적 이슈를 평론
- ▣ 작성한 평론을 신문이나 전문 잡지에 기재하거나 방송 인터뷰 등에 투고



필요역량

지식 역사, 예술, 영어, 사회와 인류, 국어

기술 의사소통능력, 논리적 분석, 창의력, 글쓰기

태도 꼼꼼함, 독립성, 인내, 성취 및 노력, 자기통제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사학, 고고미술사학 등 역사·고고학 전공
- ▶ 대학 교과목: 중국근대의 인물과 사건탐구, 서양중세의 인물과 사건탐구, 한국현대의 인물과 사건탐구, 역사 글쓰기, 역사쟁점특강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학과 내 역사학 연구 논쟁점과 관련된 스터디, 소모임, 동아리 활동 등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대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에서 운영하는 역사적 글쓰기 수업 이수 등
- ▶ 일경험: 신문, 방송, 잡지 등에 자유기고
- ▶ 자기주도적 활동: 역사학 관련 도서를 많이 읽고 글을 작성해볼 수 있음.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역사 평론가가 되기 위해 특별히 요구되는 학력 조건은 없으나, 대학교에서 국문학, 역사·고고학, 미술학과 등을 졸업하는 것이 유리함.
- ▶ 경력경로: 평론가의 경우 전업 보다 다른 직업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전공 분야의 대학교수로 근무하거나 신문, 방송, 잡지 등에 자유기고 또는 전문 서적 출판을 통해 평론가로 활동할 수 있음.



관련 정보처

- ▶ 국사편찬위원회 www.history.go.kr
- ▶ 역사학회 historykor.re.kr
- ▶ 동북아역사재단 www.nahf.or.kr
- ▶ 동양사학회 asiahistory.or.kr
- ▶ 한국학중앙연구원 www.aks.ac.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역사평론가는 일견 역사학자, 역사 연구자와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다만 역사학자가 연구자로서 학문적 탐구에 좀 더 몰입하는 직업이라면 역사 평론가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좀 더 다양한 통로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확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관련 역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며, 이것이 현재의 시점(時點) 및 관점에서 얼마나 유용할지를 민첩하게 파악하고 심화시키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 지점이 전통적인 역사학자와 역사평론가의 차이점일 것입니다.

역사프로그램프로듀서

역사프로그램(스튜디오에서 녹화하는 정보나 토크 혹은 가벼운 오락 프로그램)을 기획·제작 총괄하고 관련 종사원들의 활동을 지휘하는 자



유사명칭

방송연출가

주요 진출 및 취업처

방송국, 기업체 사내 방송국, 외주제작사, 독립프로덕션

적합한 사람

- ▶ 진취형과 예술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
- ▶ 리더십, 적응성, 책임감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방송편성의 기본 방향과 방송법, 심의기준, 방송강령, 제작 가이드라인을 숙지
- ▶ 프로그램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기획 회의를 수행
- ▶ 아이디어에 따른 예비조사 자료를 수집하며, 특정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
- ▶ 프로그램의 제작 방식을 정하고 기본 구성요소(토론, 인터뷰, 방청객 여부, 스튜디오, 생방송, 녹화방송, 제작 소요 시간 등)를 기획
- ▶ 제작비 추정 예산안을 작성
- ▶ 기획 회의 보고서 및 제작기획서를 제출 및 결재
- ▶ 제작 진행표를 작성하고 큐시트, 대본, 제작일정표를 작성
- ▶ 출연자 섭외
- ▶ 제작진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구성개요, 요점, 목표전달, 프로그램 유형, 세트위치, 연출의 주요 무대, 제작진행 상의 특별한 계획, 효과구성(음악, 음향효과,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특수효과, 캡션) 등을 세부적으로 기획·수립·전달
- ▶ 홍보전략을 구상하고 홍보문안 및 사전 자료를 준비
- ▶ 녹화 전 최종점검(자막, 소도구, 애니메이션, 인서트용 등)을 수행
- ▶ 카메라 리허설을 진행
- ▶ 방송녹화(또는 생방송)를 진행·관장
- ▶ 방송 기획에 따라 촬영된 영상을 편집
- ▶ 제작분석 평가 및 시청자 반응을 검토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필요역량

지식 사회와 인류, 역사, 철학과 신학

기술 듣고 이해하기, 모니터링, 창의력

태도 리더십, 적응성, 융통성, 혁신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역사·고고학과 함께 신문방송학, 연극영화학, 영상예술학, 방송영상학 등을 융합
- ▶ 대학 교과목: 역사콘텐츠 입문, 역사스토리텔링, 역사 글쓰기, 신화와 디지털 콘텐츠, 영상매체와 역사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학과 내 출판콘텐츠, 영상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소모임·동아리·학회 참여 및 교내외 공모전 및 대외활동 참여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방송아카데미 등 사설 방송 관련 교육기관에서 방송연출가가 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
- ▶ 일경험: 외주제작사, 독립프로덕션, 종합유선방송사의 인턴, 1인 미디어
- ▶ 자격증: KBS한국어능력시험(국가)
- ▶ 자기주도적 활동: 촬영, 편집 등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학습 및 대학에서 부터 동아리활동, 단편영화제작 등 연출 경험 축적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역사프로그램프로듀서가 되기 위한 학력, 전공의 제한은 없으나 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 연극영화학, 영상예술학, 방송영상학 등을 함께 전공하면 유리
- ▶ 경력경로: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연출가(프로듀서)가 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에서 실시하는 공개채용에 합격해야 하며 케이블방송국, 위성 방송국, 프로덕션사, 기업체 사내 방송국, 인터넷 방송국 등의 경우에는 사설방송교육학원 추천 등으로 입직이 가능



관련 정보처

- ▶ 한국PD연합회 www.kpda.co.kr
- ▶ 한국영화학회 kca1971.or.kr
- ▶ 한국다큐멘터리학회 band.us/band/71693171
- ▶ EBS 역사채널 home.ebs.co.kr/historye
- ▶ 우리역사넷 contents.history.go.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누군가와 빨리 친해질 수 있고, 마음이 넓은 사람은 인터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 방송 연출가 직업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밤을 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단도 필요합니다. 잠재 시청자인 사람들이 어떤 역사 내용에 흥미를 갖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문화재 등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호기심을 넘어서 확장적이고 융합적인 창의적 사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직업인 인터뷰



역사프로그램프로듀서

A 방송국/000 프로듀서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저는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및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19년 차 프로듀서입니다. 현재는 역사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철저한 고증을 기반으로 때로는 상상력을 더해 시청자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연출자로서 아이템을 공부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청자들이 만나 볼 수 있도록 일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함께 제작하는 스태프들과 녹화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프로듀서라는 직업은 만능 플레이어여야 합니다. 기획부터 제작 완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져야 하고요. 또한 항상 새로운 아이템을 제작하기 때문에 관련된 공부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근현대 역사의 중요한 사료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것도 프로듀서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시험 과목들은 논술, 작문 등이 있는 1차 필기시험이 가장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사학과와 시험은 전부 논술형이었고, 대학 시절 읽은 전공 서적은 글을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신문과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현재의 역사를 매일 알려 주고 보이는 매체였으니까요. 어릴 적부터 신문읽기와 뉴스를

보던 습관이 가장 중요한 합격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프로듀서라는 직업은 본인이 숙달되고 익숙한 환경을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소재와 아이템을 찾는 일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은 상상력과 경험의 축적에서 큰 무기가 됩니다.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더라도 책을 통해 얻은 간접경험 역시 중요합니다. 합격자를 보면 본인의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줄 아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한 사람들이 이 직업에서 선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프로그램 제작의 프로세스는 기획-기초자료 조사-구성-보완 조사-취재-녹화-편집의 과정입니다. 프로듀서는 이 모든 과정을 스텝들과 협업을 통해 일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fact 체크와 소재의 전달력 극대화입니다. 프로그램은 한 번 방송하면 주위 담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fact를 체크하고 문제점이 없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열된 fact들을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내용이 좋고 해도 시청자들이 어렵게 느끼거나 이해를 못 한다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업무루틴) 프로그램 제작은 하나의 업무 사이클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루에 이루어지는 업무가 일정한 경우가 없습니다. 제작 프로세스의 어느 시점에 있느냐가 그날의 업무를 결정합니다. 1년에 한 편을 제작하는 장기 제작프로그램도 매일 업무의 목표가 있고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하는 생방송 프로그램도 그 나름의 타임 스케줄이 있고요. 프로듀서 업무에서 중요한 점은 본인에게 주어진 방송 주기의 시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업하는 스태프들의 업무를 안내하고 앞으로 발생할 업무에 대해 시간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프로듀서 업무의 핵심입니다.

(장점) 장점은 항상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 또는 어려운 점) 프로듀서 직업의 어려운 점은 항상 새로운 것을 상상해야만 하는 점입니다.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무의 핵심은 소통력과 창의력입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도 없고 잘하지도 못합니다.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 제1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세스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단력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100명의 이야기꾼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100가지 이야기를 만들 듯이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명확히 결정해야 하는 숙명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력입니다.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세상에 관심을 가지길 권합니다. 나의 이야기 내 친구의 이야기,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유기적으로 어떤 인과관계를 지니는지 본인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첫 단추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잘 이루어진다면 한 발짝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재학 중 경험) 전공수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역사 관련된 전공을 했다는 점을 장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현재 발생하는 일과 유사한 사례가 항상 역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모든 학생이 역사가 좋아서 입학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역사를 좋아하기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추세는 역사콘텐츠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분야에 관한 관심을 계속 가진다면 역사를 배웠다는 것이 무기가 될 것입니다.

(유사 전공 분야) 프로듀서라는 직업은 대학전공이 불문에 부쳐지는 거의 유일한 직업군입니다. 따라서 전공들이 다양합니다. 그 때문에 본인의 전공은 프로듀서가 된 후 본인의 경력을 쌓아나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나요?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지닌 프로듀서 그룹과 그렇지 못한 프로듀서 그룹이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뛰어난 경력 개발을 한쪽이라는 질문에 대해선 답을 찾을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시청자들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포맷을 통해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도록 노력하되 한 부분에 매몰되지 않은 다양한 경력 개발이 필요합니다. 저는 시사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했습니다. 지금은 역사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고요. 시사 프로그램 제작 시 제 신념이 있었습니다. ‘나는 현시대를 기록하는 사람이다’였습니다. 먼 훗날 우리가 고서를 찾듯이 지금 제작한 프로그램들이 현재를 보여 주는 주요 사료가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객관적으로 현시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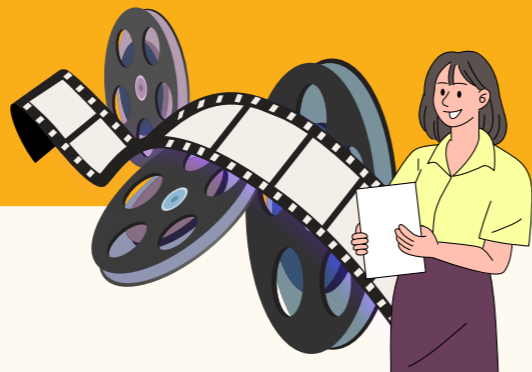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역사학, 고고학 전공자가 전공을 찾아 직업을 선택하는 길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학, 고고학 전공은 다양한 업무를 다룰 수 있는 기초학문입니다. 전공이 무기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시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MEMO

영화큐레이터

주제에 맞는 영화를 선정·추천하거나 상영 후 관람객들에게 화에 대한 해석 및 관련 정보,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달함으로써 심도 있는 영화감상을 돕기 위해 영화를 해설하는 자



✓ 유사명칭

무비 큐레이터, 영화 도슨트

✓ 주요 진출 및 취업처

영화관, 한국영화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 적합한 사람

- ▣ 독립성, 분석적 사고, 꼼꼼함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
- ▣ 예술 분야(미술, 음악, 문학, 영화 등)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영화제 상영작 및 G/V 선정
- ▣ 상영될 영화 선정 및 상영관 운영
- ▣ 영화상영 후 씨네토크 기획



필요역량

지식 국어, 예술, 의사소통과 미디어, 심리, 철학과 신학 등

기술 언어능력, 창의력, 글쓰기, 논리적 분석, 말하기, 읽고 이해하기 등

태도 꼼꼼함, 독립성, 인내, 성취 및 노력, 자기통제 등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역사·고고학 관련 전공과 함께 연극영화학 관련 전공을 융합할 수 있음.
- ▶ 대학 교과목: 대학 교과목: 역사콘텐츠입문, 역사스토리텔링, 콘텐츠기획 및 프리젠테이션, 영상역사학워크샵, 영상매체와 역사, 신화와 디지털콘텐츠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학과 내 출판콘텐츠, 영상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소모임·동아리·학회 참여 및 교내외 공모전 및 대외활동 참여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대학교 평생교육원, 영화제 등에서 운영하는 무비 큐레이터 양성과정, 영화 도슨트 과정 등 이수
- ▶ 일경험: 영화 도슨트 활동 참여
- ▶ 자기주도적 활동: 자기만의 평론 작성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역사·고고학 전공과 함께 연극영화학 등 영화 관련 전공을 함께 공부하면 유리
- ▶ 경력경로: 민간 영화업체에서의 채용공고를 통한 모집이 이뤄지며 영화 관련 전공 및 유경험자를 우대함.



관련 정보처

- ▶ 영화진흥위원회 www.kofic.or.kr
- ▶ 한국영화평론가협회 www.fca.kr
- ▶ 한국영화학회 kca1971.or.kr
- ▶ 한국독립영화협회 kifv.org
-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www.kfp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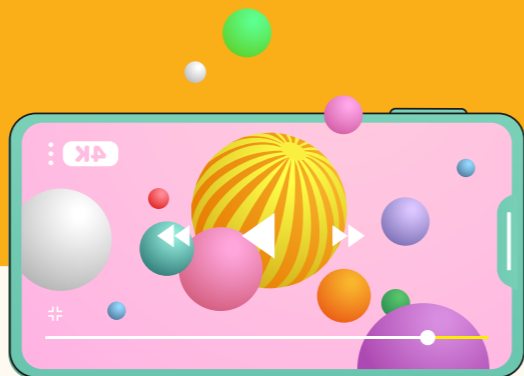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비유하자면 관객은 각자의 방법으로 영화라는 숲을 산책하고, 큐레이터는 영화라는 숲 속의 작은 오솔길과 풍경도 놓치지 않도록 관객에게 귀뜸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화를 감상한 관객과 만나 영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달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직업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체영상콘텐츠개발자

3D 입체영상기술(3D stereoscopy)을 활용하여 다양한 3D 입체영상 콘텐츠를 개발하는 자



유사명칭

3D 입체영상디자이너

주요 진출 및 취업처

영화제작사, 방송국, 광고대행사, 컴퓨터그래픽(CG)제작 전문업체,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 게임 개발업체, 인쇄관련업체, 디자인 및 건축 관련 업체

적합한 사람

- ▶ 꼼꼼하고 세심한 손기술이 있는 사람
- ▶ 지구력이 있는 사람
- ▶ 평소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3D 입체영상 콘텐츠의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여 기획자, 연출가, 촬영기사, 편집기사 등과 협의
- ▶ 3D 입체영상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조언
- ▶ 편광렌즈를 사용하는 방법, 시간적으로 연상을 분할하는 방법, 눈의 초점을 흐트리는 방법 등 각종 3D 입체영상기법과 기타 컴퓨터그래픽기술을 사용하여 입체영상을 구현
- ▶ 영상제작 초기에 3D 입체영상카메라로 촬영되지 않은 2D 정지 영상(image)이나 동영상(video) 데이터를 3D 입체영상으로 재구성
- ▶ 입체음향을 구현



필요역량

지식 컴퓨터 그래픽 관련 지식

기술 예술시각능력, 창의력, 독창성

태도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역사·고고학과 함께 컴퓨터그래픽, 영상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등을 융합
- ▶ 대학 교과목: 문화콘텐츠학 입문, 영상매체와 역사, 신화와 디지털콘텐츠, 문화유산컴퓨터그래픽스, 매스미디어시대의 문화유산, 문화유산 3D실측의 이해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학과 내 출판콘텐츠, 영상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소모임·동아리·학회 참여 및 교내외 공모전 및 대외활동 참여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컴퓨터그래픽, 영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관련 사설 교육기관이나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훈련 이수
- ▶ 일경험: 3D 애니메이션제작 전문 회사 인턴 등
- ▶ 자격증: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국가) 등
- ▶ 자기주도적 활동: 교내·외 공모전 및 대외활동 참여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대학교에서 컴퓨터그래픽, 영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등을 함께 전공하면 유리
- ▶ 경력경로: 공개 채용이나 특별 채용 또는 개인적 소개를 통해 영화제작사, 방송국, 광고대행사, 컴퓨터그래픽(CG)제작 전문업체,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게임 개발업체, 인쇄관련업체, 디자인 및 건축 관련 업체 등에 취업



관련 정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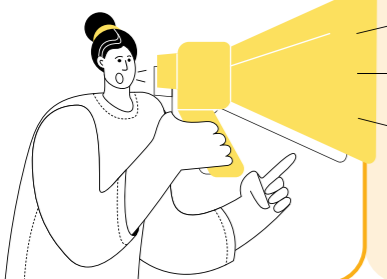
- ▶ 국립문화재연구원 www.nrich.go.kr
- ▶ 문화재청 www.cha.go.kr
- ▶ 인문콘텐츠학회 humancontents.or.kr
-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jsg.aks.ac.kr
- ▶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dcs.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역사, 고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에게 콘텐츠 제작은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튜브나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하면 현업 실무자들이 업로드하신 질 좋은 강의들이 많아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졸업 후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고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면 짧은 기간에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직업인 인터뷰



입체영상콘텐츠개발자

A 문화유산기술 연구회사/000 연구원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문화유산 관련 기술연구를 하는 곳에서 3년째 3D 아티스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회사는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디지털 아카이빙, 보존, 복원 등을 연구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 회사입니다. 저는 3D 아티스트로서 문화유산 에셋(3D모델 + 텍스처)을 제작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문화유산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4학년 때 겪은 연구실의 생활이 저의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디지털 문화유산에 대해 알게 되었고,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위에서 관련 사업을 통해 저는 콘텐츠 제작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지식과 사용 프로그램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고, 연구실 생활로 인해 3D 매체와 익숙하였던 저는 3D 콘텐츠 제작자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공 수업에 자세하게 배우기 힘들어 학원과

인터넷 강의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3차원 스캐닝과 cg영상 제작이라는 역량을 가지고 현재의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현재 저는 문화유산 에셋 및 3D 콘텐츠 제작을 맡고 있습니다. 좀 더 사실적이고 현실감 있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사람들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달하고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써 인정받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업무루틴) 사실 하나의 콘텐츠가 만들어지는데 하루 중 이뤄지는 업무로는 설명이 어려울 거 같아 전체적인 작업 과정으로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대상 문화유산이 정해지게 되면 그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조사를 시작합니다. 자료를 토대로 대상의 어느 부분에 집중하게 될지, 전반적인 콘텐츠의 이야기를 구상합니다. 이야기가 구상되면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찾게 됩니다. 레퍼런스들의 참조하여 콘텐츠의 전체적인 무드를 어떻게 가져갈지,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어떤 구도가 좋을지 등 이렇게 콘티를 짭니다. 그 이후 대상이 되는 문화유산의 에셋 제작을 위해 3차원 스캐닝을 수행하거나 여건이 마땅치 않으면 사진과 문서 등을 바탕으로 에셋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후 다양한 3D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문화유산과 장식 모델, 카메라, 애니메이션, 조명 등을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특수효과(FX)까지 제작합니다. 최종적으로 컴퓨터가 계산을 통해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영상이 제작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내부 및 클라이언트와 검토 및 수정사항들을 적용하면 최종적인 콘텐츠 제작이 마무리됩니다.

(장점) 자신이 만든 결과물이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곳에 전시 및 상영되다 보니 잘 만든 작품들이 나온다면 힘들었던 기억보다 훨씬 더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작업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인 학습과 업데이트는 필수적이며,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추지 못한다면 직업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 또는 어려운 점) 창작의 영역이다 보니 아이디어나 영감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작업을 시작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작업의 기간은 정해져 있어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자주 느낍니다.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화유산에 대한 콘텐츠 제작이다 보니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 예술적 가치 등 문화유산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합니다. 제작자가 문화유산을 이해해야 그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아주 깊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문화유산의 예술적 표현을 위해 영상 연출에 대한 이론이나 색에 대한 이론,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은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걸 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숙련도도 필수적입니다. cg 기술의 발전과 트렌드 변화는 매우 빨라, 열린 마음으로 해당 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습득이 필요합니다.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콘텐츠 제작자를 희망하신다면 자신이 어떤 유형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은지 큰 틀을 먼저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콘텐츠 중에서도 3D 영상제작에 맞춰 준비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면 강의나 관련 정보들이 많이 있고, 커뮤니티나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견식을 높이기 위해 전시회나 박물관, 미술관, 공연, 영화 등 많은 콘텐츠를 접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취업과 관련 준비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가 제일 중요합니다. 콘텐츠 제작의 경우, 자격증이나 시험 점수 등으로 정량적 평가가 어렵다 보니 대부분의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는 면접자의 포트폴리오를 요구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만든 작업물을 미리 정리하고 잘 기록해 놓는다면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재학 중 경험) 저의 경우 전공수업으로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식을 얻기에는 제한이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타과 수업을 적극적으로 수강했습니다. 특히, 게임디자인과의 3D 모델링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특강으로 들었던 교육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픽 렌더링, 사진측량이나 3차원 스캐닝 특강은 현재 업무에 특히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학 중 경험) 콘텐츠 제작이라는 것이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관련된 학과는 매우 많습니다. 영

상학과가 될 수도 있고, 게임디자인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등등 매우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관련 기술에 대한 연습과 공부도 중요하지만, 제작에 대한 전체과정을 수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프로젝트든 개인 프로젝트든, 자신이 주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건지, 내가 무엇을 말하고 전달하고 싶은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 뭔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갖고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콘텐츠 제작자로서 경력이 쌓이다 보면, 한 프로젝트의 아트 디렉터로서 전반적으로 프로젝트의 그림을 이끌어 가거나, 원한다면 예술적인 부분을 넘어 기술적인 부분(컴퓨터 언어, 게임 엔진 등)의 지식도 습득하여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기술 개발을 하는 테크니컬 디렉터로서 프로젝트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게임, 영화, 광고, 뮤비 등 전반적인 엔터 계열도의 이직이나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 프리랜서로서 업계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역사, 고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에게는 콘텐츠 제작이라는 업무가 거리가 멀게 느껴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하면 현업 실무자들이 좋은 강의를 많이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저와 비슷하게 졸업 후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고 자신이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보람을 느끼신다면 짧은 기간에 많은 성장을 이루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EMO

전문도슨트

전시 작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해석하여 미술관 및 박물관 관람객에게 해설하는 자



유사명칭

전시해설가, 도슨트, 미술전시해설사, 박물관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주요 진출 및 취업처

- ▶ 국립중앙박물관과 산하 지역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과 문화재청 산하 궁궐 및 사적지, 각 지역 도립, 시립 미술관과 박물관, 사립박물관, 그 밖에 공공기관 소속 박물관 등
- ▶ 프리랜서

적합한 사람

- ▶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 설명할 수 있는 사람
- ▶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해설 대상 작품 및 작가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 ▶ 해설스크립트를 작성
- ▶ 관람객의 수, 특성 등을 파악
- ▶ 관람객에게 마이크를 사용하여 관람개요 및 작품의 배경, 주요 내용, 작가의 생애 등 전시 작품을 해설하며 전시 작품 질문에 답변
- ▶ 도슨트 관련 강의를 하거나 글을 기고



필요역량

지식

전시물에 대한 지식, 예술·역사·생활·산업 관련 전공 및 지식, 외국어 지식

기술

어려운 지식을 쉽게 풀어서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능력

태도

관람객의 나이와 그룹 성격에 따라 설명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배려심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관련 전공: 학력조건은 없으나 문화예술 관련학과, 박물관·미술관 관련 전공자 등 우대
- 대학 교과목: 정규 교과목으로 운영되는 박물관·문화재 등 유관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이수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도슨트 관련 산학 협력 프로그램 등을 활용* 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와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은 경주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연계하여 경주 문화유산탐방객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해설실습,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연계하여 신라왕경 발굴조사 현장 탐방객을 대상으로 해당 유적에 대한 해설 실습, 테마별 경주 문화유산 탐방 코스 개발 및 안내책자 발간, 국립경주박물관, 불국사박물관 전시기획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학과 교수와 박물관 큐레이터의 협동 강의를 통해 박물관 전시유물에 대한 교육, 주말과 방과 후 박물관 전시실에서의 도슨트 활동 기회를 제공함.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도슨트 양성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일 경험: 대학 부설 박물관, 국공립 및 사립 미술관·박물관에서의 인턴 활동
- 자격증: 국제전문도슨트(민간), 문화관광해설사(국가)
- 자기주도적 활동: 주말과 방과 후 박물관 전시실에서 도슨트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자체 국립공원, 박물관과 연계하여 인근 지역 중·고교생 역사 동아리 강의 및 답사를 지원할 수 있음.



주요 진입 과정

- 진출자 전공 영역: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학, 예술학, 문화예술경영, 박물관학, 미학 등
- 경력경로: 박물관해설사가 되기 위한 학력 조건은 없음. 다만 박물관의 성격에 따라 전직 교사(역사, 과학, 미술 등)경력 소유자를 우대하고 있고 '박물관해설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유리함. 다양한 박물관의 특성에 따라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기도 함. 이외에도 문화예술 관련학과, 박물관, 미술관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기도 하고 문화시설 및 교육기관 근무 경력자,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 박물관해설 유경험자를 우대하기도 함. 교육기관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지역 문화정책과, 문화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개설한 '박물관해설사 양성교육'이 있음. 이때 시청각 및 이론교육, 문화유적답사 외에도 스토리텔링기법, 해설실습 등의 교육이 실시됨.



관련 정보처

- 국립현대미술관 www.mmca.go.kr
- 국제도슨트협회 www.docent.or.kr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서울도슨트협회 www.seouldocent.com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국립중앙박물관은 사설 전시 해설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 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프리랜서가 되거나 답사 관련 업체에 취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되면 국내외의 답사를 기획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전문 도슨트로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유튜브나 책 등으로 자신을 홍보하거나 답사자를 모집하기도 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관광객들에게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자



유사명칭

문화유산 해설사, 문화재해설사

주요 진출 및 취업처

문화유산 시민단체, 시군구 자치단체, 관광전문회사, 관광호텔업체 등

적합한 사람

- ▶ 문화유산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
- ▶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을 쉽게 풀어낼 전달력과 말솜씨가 있는 사람
- ▶ 역사·문화에 관심이 있고 표현력에 자신 있는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방문 목적이나 관심 분야, 연령층 등에 따른 다양한 관광객들에게 각 지역의 문화유적을 안내
- ▶ 문화유적에 대한 관광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벼운 이야기 위주의 해설로 부터 역사, 문화, 자연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수행
- ▶ 관광객들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를 유도
- ▶ 문화재를 비롯한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
- ▶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우리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움



필요역량

지식

역사·문화, 자연,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외국어 지식

기술

서비스 지향, 판단과 의사결정, 설득, 재정 관리, 수리력

태도

리더십, 협조, 스트레스, 감내성, 정직성, 타인에 대한 배려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전공제한은 없으나 문화재, 고미술, 관광 및 건축 관련학과를 전공하면 유리
- ▶ 대학 교과목: 문화유산 답사, 역사스토리텔링, 서울의 역사와 문화유산, 문화유산해설연습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대학 부설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교육 업무 관련 실습 프로그램에 참가, 실시하는 학술답사, 학술회의 등의 준비와 실무에 참여하여 학술행사기획에서 실무에 이르는 업무를 경험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박물관 역사 기행의 참가 신청 접수와 관리, 답사 인솔 보조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문화해설 관련 업무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각 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음.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정부가 선정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기관 15곳에서 이론 및 현장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 ▶ 일경험: 박물관 도슨트 경험 등
- ▶ 자격증: 문화관광해설사(국가)
- ▶ 자기주도적 활동: 외국어 공부를 통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학력 및 나이 제한은 없으나, 역사·고고학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관광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관광 서비스 및 관광 실무 등을 배우는 관광학 전공이 도움이 될 수 있음. 또한 전문적인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기 위해 관련 양성 교육(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 ▶ 경력경로: 인증 교육과정 100시간 이상의 이론과 실기 교육을 마치고 3개월 이상 실무 수습을 할 경우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문화관광해설사, 문화유산시민단체 자원봉사자, 여행사 등 기업에 소속된 체험학습강사, 프리랜서로 근무 가능



관련 정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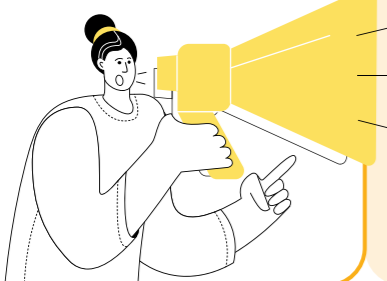
-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 대한민국 구석구석 korean.visitkorea.or.kr
- ▶ 한국관광데이터랩 datalab.visitkorea.or.kr
- ▶ 한국관광콘텐츠랩 conlab.visitkorea.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문화관광해설사에게 필요한 덕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풍부한 지식입니다. 자신이 해설할 내용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추어야 안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자신이 담당하는 관광객과 자신이 소개하는 문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품위 있는 행동과 친절한 태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소개합니다.

직업인 인터뷰



문화관광해설사

A 지자체 산하 관광재단/000 교육활용팀장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문화관광해설사로, 국제문화재전략센터 교육활용팀장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들을 양성하여 국어, 영어, 일어권 내외국인들에게 도시를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로 선발되어 일정교육 과정 이수 후 현재 국어와 영어 해설사로, 학생들의 문화체험답사 프로그램 진행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안내와 전통한복입기, 전통악기 체험 통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관련 보고서 작성, 관련 자료, 안내문 통역, 번역일과 견해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국제포럼때 현장답사, 해외연사들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포럼, 컨퍼런스 참여할 때 수행통역, 문화재 탐방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사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진입하셨나요?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동기들은 대부분 은행원, 교사, 주재원 출신들로 경영학, 지리학, 수학, 영어, 역사, 미술, 의상학 전공이지만 각 거주지의 구청에서 진행하는 도보관광프로그램에 해설사로, 강의나 교육과정의 강사로, 더러는 생태, 환경, 곤충분야로도 진출해 숲·생태해설사,

환경해설사, 과학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대한민국의사박물관, 민속박물관, 전쟁박물관, 농업박물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국립과학관, 미술관, 영화박물관 등에서 유료/무료 도슨트, 해설 자원봉사자,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시고, 하루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업무소개) 목표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서울의 문화재, 역사, 문화, 관광지를 즐기도록 돕는 것입니다. 업무 수행 내용은 관광객의 나이, 태도, 목적에 따라 다양한 해설기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역사 문화재들을 함께 걸으며 직접 누려서 조상들이 남겨놓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도 즐길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업무루틴) 약속 시간 최소 30분 전에 예약 장소에 도착해 무료입장권을 받아둔 후 안내 책자를 준비하고 동선에 변화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보통 약속 시간 5~10분 전이면 예약자가 도착해서 신분증을 보고 찾아오기 때문에 인사한 후 인원 점검하고 안내도에서 간단한 장소 설명과 화장실, 소요시간 등을 공지하고 본격적으로 해설을 시작합니다. 장소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궁궐, 북촌한옥마을의 경우 약 2시간~3시간 이내, 대부분 2시간 이내에 도보 해설을 마칩니다.

(장점) 전국의 문화재, 관광지, 박물관들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전국의 지역해설사들과 유대관계를 지속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 해설기법, 해설시나리오 대회나 훈련, 워크샵이 매년 보충, 심화 교육으로 진행되어 역사 외에 건축, 미술, 음악 등에 대한 지식과 관련 독서량이 꽤 많아지면서 책과 자료가 풍부해집니다. 연극, 전시회, 특별전, 축제에도 초대받을 기회가 많아져 문화생활을 함께 향유합니다. 무엇

보다 말을 하며 걷기 때문에 발음이 분명해지며 건강에도 좋습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 힘든 점 또는 어려운 점) 더운 여름, 추운 겨울, 악천후에도 도보 관광은 밖에서 계속됩니다. 밝은 표정, 힘찬 목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꾸준하고 다양한 독서와 정보 습득, 국내외 모든 이들에게 열린 마음, 특히 종교, 정치, 외국인, 역사적 관점에 대해서도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꼽을 것은 다방면에 끊임없이 알고 싶은 욕구와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몰랐던 것, 이유가 궁금한 것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 찾고 배우려는 열정이 있으면 됩니다. 말을 정확하고 조리 있게 잘하면 좋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 서서, 그것도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전달력이 좋아야 합니다. 교육학, 심리학을 배웠거나 연기력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도보 관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개인, 단체의 구성원을 빨리 파악해 그들에게 알맞은 시나리오와 해설기법을 활용해 이끌어 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음성 오디오로 설명을 해주거나 AI, 로봇을 통해 해설이 가능하겠지만 여전히 관람객들은 기계어, AI보다 육성 해설을 선호하고 있어서 한국어는 물론 외국어에 능통하다면 전문용어도 문제없이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사 활동 및 자격) 박물관, 역사관, 미술관에서 개최하는 교육과정, 양성 과정,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유튜브와 인터넷 강의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글을 잘 쓴다면 상상력을 발휘해 시나리오 작가, 역사드라마 작가, 웹툰, 콘텐츠 개발, 게임 프로그램개발자로도 영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언어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합니다.

(재학 중 경험) 세계유산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문화유산 교육, 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황실문화원에서 궁궐 축제때 개최한 조선왕들의 시 전시회, 성균관부설 4서3경 교육이 제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어요. 해마다 5월에 열리는 궁궐 축제는 각 궁궐과 종묘에서 다양한 강의와 전시행사가 매년 다채롭게 진행되니 참석을 권합니다. 9호선 선정릉역 근처에 있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강의와 전시, 특별전, 공연도 자주 관람해 보세요.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매년 해설사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과정을 진행하고 현장답사도 겸하고 있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특화된 건축, 자연사, 한성백제, 한양도성 박물관, 미술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슨트,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박물관대학, 시민대학, 각 대학의 강좌들도 매우 유익하게 무료강좌가 있으니 부지런하다면 교육받을 기회가 무척 많습니다.

(유사 전공 분야) 국문학, 외국어학, 교육학, 민속

학, 고고학, 문화경영학, 심리학, 건축학, 예술사학, 미술사학, 연극영화, 정치학, 외교학, 국제학을 포함한 모든 전공 분야에서 진입 가능합니다.



해당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첫째, 책, 관련 자료들, 강좌, 논문, 교육을 통해 필요한 지식습득, 자질향상, 역량강화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둘째, 학회, 포럼, 국제회의 등에 참석하거나 질문자, 토론자로 적극 참여하여 정보공유, 활발한 교류를 합니다. 독서동아리, 인문학카페, Social Media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 동향,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아이디어를 얻고 넓힐 수 있습니다. 셋째, 국제적인 감각과 태도를 길러 이런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부단히 자신을 단련하세요. 국제기구인 유네스코문화유산본부, 아태무형유산센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연구소, 박물관, 미술관에서 일할 기회도 얻게 됩니다. 넷째, 어떤 방식으로든 AI, AR, MR, Chat GPT를 잘 활용해서 문화콘텐츠를 디자인,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 실행, 평가하는 프로젝트를 계속 만들어 내세요. 다섯째, 실시간, 현장감은 아주 중요하므로 살아있는 현장을 체험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공 이외의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전시, 공연, 일반 강좌를 많이 들으세요. 파트 타이머로 국제회의, 세미나 등록, 진행, 리에중, 운영요원으로 참가해 국제 경험의 폭을 넓히세요. 단기간 외국인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다국적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세요.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가 보세요. 창의적인 생각을 디자인해 아이디어 경진대회, 공모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MEMO

여행상품개발원

여행사에서 관광 상품을 기획, 개발하며 고객과의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자



유사명칭

여행기획자, 여행안내원, 여행상품개발자, 공정여행기획자, 투어컨덕터(해외여행인솔자)

주요 진출 및 취업처

관광호텔업체, 국외여행업체, 일반여행업체 등

적합한 사람

- ▶ 여행을 좋아하며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
- ▶ 새로운 여행상품 기획을 위해 문화, 역사, 기후, 여행지 특성 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람
- ▶ 국내 및 해외 여행업계의 분위기와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판단하여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여행상품개발원은 새로운 여행상품을 기획 및 개발하고 고객과의 상담 업무
- ▶ 여행지로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을 찾아내어 현지답사를 한 다음, 여행에 필요한 상황과 조건을 조사 및 분석하여 새로운 여행지 개발 및 상품화
- ▶ 여행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여행 계획 수립(이동을 위한 교통수단 마련, 경비, 관광 명소, 숙박 및 편의시설, 편의성 등에 대한 정보 수집), 여행 코스와 일정 기획 및 총감독
- ▶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여행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상품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하거나 권유하며 여행 계획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 제공
- ▶ 해외여행의 경우 항공권 예약, 여권 발급, 비자 신청 및 발급, 외환 환전 등 여행에 필요한 업무 수행



필요역량

지식 지리에 관한 지식, 상담 및 고객서비스에 필요한 지식, 역사 지식

기술 의사소통 능력, 일정관리 능력, 분석력, 모니터링(Monitoring), 인터넷 활용 능력, 서비스 지향

태도 창조적 생각, 친화력, 친절함, 탐구력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문화관광학, 관광경영학, 국제지역학, 고고미술사학, 미술사학, 건축학 등
- ▶ 대학 교과목: 문화관광경영사례연구, 문화관광마케팅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문화탐방 프로그램 등 문화관광 관련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등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한국관광인력개발원이나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실무교육 이수,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TC(Tour Conductor : 내국인의 단체 외국 여행을 인솔하면서 현지 가이드와 협조하여 여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전문학원이나 대학의 사회교육원 등에서 여행업종사자를 위한 강의 수강
- ▶ 일경험: 여행사 업무 경험, 상품개발 업무 경험, 마케팅팀 인턴 등
- ▶ 자격증: 국내여행안내사(국가), 관광통역안내사(국가) 등
- ▶ 자기주도적 활동: 한국문화관광학회 등 유관 학회 세미나 참석 또는 자료 학습, 상품개발 관련 역량 제고와 관련 있는 다양한 활동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관광경영, 국제관광, 호텔경영 등 관광 관련 전공 이수
- ▶ 경력경로: 여행사 관련 아르바이트를 통해 기본적인 업무를 미리 습득할 필요가 있음. 여행 경험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경력자를 선호함.



관련 정보처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www.ekta.kr
-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 한국관광공사 kto.visitkorea.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여행상품개발원은 주로 여행사에 근무하며,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국내외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이 취업에 좀 더 유리합니다. 관련 분야에서 일한 경험은 물론이고, 여행지역에 대한 교통이나 문화, 숙박, 지리 등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있으면 업무수행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행사 관련 아르바이트를 통해 기본적인 업무들을 미리 습득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취업해도 처음부터 여행상품개발원으로 일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다양한 업무를 통해 일정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여행안내원

국내·외를 여행하는 개인이나 단체 여행객들이 쾌적하고 보람 있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유사명칭

여행가이드, 관광통역안내사

주요 진출 및 취업처

여행사, 프리랜서 등

적합한 사람

- ▶ 여행을 좋아하고 적극적이며 쾌활하고 활동적인 성격의 사람
- ▶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함께 일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
- ▶ 역사 및 문화예술 분야(미술, 문학 등)에 관심이 많은 사람
- ▶ 외국어에 구사에 능통하고 외국인과 대화를 즐기는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여행 출발 전 여행객의 여행 목적을 파악하고 여행 방문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숙박 시설, 교통편, 관광지 등 모든 사항을 확인
- ▶ 여행객들에게 여행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여행을 인솔하며, 관광지에 관련된 역사, 문화, 정보 등을 안내
-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안내원은 공항 마중부터 환전, 호텔, 택시 이용, 관광지 안내 등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에 대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
- ▶ 여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사와 연락하여 신속하게 해결
- ▶ 여행이 끝난 후 여행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확인하여 이후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참고



필요역량

지식

여행지역의 역사 및 특색, 영어 및 현지 언어능력, 예술, 영업과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

기술

대인관계능력, 시간 관리, 공간지각력, 행동조정, 사람 파악, 말하기, 듣고 이해하기 등

태도

리더십, 협조, 자기통제, 타인에 대한 배려, 적응성·융통성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역사·고고학 관련 전공과 함께 관광학 및 외국어 관련 전공을 융합할 수 있음.
- ▶ 대학 교과목: 문화유산 답사, 역사스토리텔링, 서울의 역사와 문화유산, 문화유산해설연습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학과 내 문화유산 활용 및 문화관광 프로그램 기획 동아리 활동 참여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TC 전문학원 및 대학 사회교육원 등에서 운영하는 여행업 종사자를 위한 강의 수강
- ▶ 일경험: 여행사 인턴 등
- ▶ 자격증: 관광통역안내사(국가), 국내여행안내사(국가), 국외여행인솔자(국가)
- ▶ 자기주도적 활동: 각 지역의 진로체험지원센터, 문화재단 등의 기관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여행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여행의 목적, 대상, 가이드, 기간 및 소요 시간에 따른 진행 계획을 비교하고 알아볼 수 있음.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특별히 요구되는 학력의 기준은 없지만 관광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유리하고 다양한 역사 지식을 활용하여 여행안내 업무에 응용할 수 있음. 특히 문화재 및 관광 명소의 역사를 관광객들에게 생생한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경영학과 융합한다면 관광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제고할 수 있음.
- ▶ 경력경로: 여행사 등에 입직하거나 여행사 등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도 있으며 관광호텔업체, 국외여행업체, 일반 여행업체, 무역회사, 항공사, 외국인 상사, 면세점, 호텔, 학원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 할 수 있음



관련 정보처

-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www.ekta.kr
- ▶ 한국여행업협회 www.kata.or.kr
- ▶ 한국관광공사 kto.visitkorea.or.kr
- ▶ 한국관광콘텐츠랩 conlab.visitkorea.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가이드는 관광지의 역사·문화를 설명하고, 관광객들의 요구사항과 관련된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관광지를 설명할 때는 기본적으로 역사·문화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열린 마음으로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히 역사적인 지식 없이는 문화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를 늘 중요시하길 바랍니다.

미술품경매사

미술품 출품을 의뢰 받아 인터넷 또는 모임장소에서 입찰품목을 설명하고 경매를 진행하는 자



✓ 유사명칭

미술품스페셜리스트

✓ 주요 진출 및 취업처

국내외 미술품경매사

✓ 적합한 사람

- ▶ 미술에 대한 애정과 관심, 이해도가 높은 사람
- ▶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미술품 경매를 위해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하여 출품 접수
- ▶ 미술품 진위 관련 자문 보조
- ▶ 경매 일시와 장소의 결정 및 경매 품목의 순위를 조정
- ▶ 미술품의 입찰품목 설명 및 최초 입찰금 제시, 입찰 가격 설정
- ▶ 경매의 진행 및 경쟁입찰 유도, 최종적으로 최고가 입찰 가격을 제시한 소비자에게 낙찰 결과를 선언
- ▶ 인터넷을 통해 경매 물품을 등록하고 경매낙찰 시간을 제시하여 최종시간 경과 후 최고 입찰 가격 제시자에게 낙찰 결과를 이메일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통보



필요역량

지식

고고학, 서지학, 미술사적 지식, 영업과 마케팅, 상품 제조 및 공정, 고객서비스, 경제와 회계, 경영 및 행정

기술

품질관리분석, 협상, 기억력, 설득, 신체적 강인성

태도

협조, 적응성, 융통성, 자기통제, 사회성, 독립성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고고학, 미술사학, 예술학, 박물관학 등
- ▶ 대학 교과목: 고고학 개론, 동양미술사, 서양미술사, 미술시장과 경매, 미술비평, 박물관학, 마케팅, 회계학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대학 미술관·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를 경험함으로써 미술관 관련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거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박물관미술관 등 유관 기관에서의 실습 프로그램 이수할 수 있음.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개설되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미술시장과 경매, 미술비평 등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음.
- ▶ 일경험: 미술품 경매 관련 기업 인턴
- ▶ 자기주도적 활동: 미술박람회, 화랑, 전시회 등을 방문하여 미술품을 자주 접하고, 미술 세계의 흐름을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미술사학, 미학, 경제학 등
- ▶ 경력경로: 미술품경매사의 업무 특성상 경제학과를 비롯한 미학 및 미술사학 등을 전공하여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는 것이 유리하며 문화재연구법, 문화재감정평가 등과 관련한 지식을 쌓거나 미술품 경매 시장 등에서 경매기록보조원이나 경매장관리원으로 5~10년 이상 활동하며 문화재연구법, 문화재감정평가 등의 실무를 익힌 후 미술품경매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유리함.



관련 정보처

- ▶ 문화재청 www.cha.go.kr
- ▶ 한국미술협회 www.yechong.or.kr
- ▶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좋은 전시와 작품을 많이 보며 경험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보고 경험한 것이 누적된다면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공부라 될 거예요. 자신이 보고 들은 경험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론을 더해 자신만의 색깔을 만드시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트컨설턴트

고객에게 주택이나 사무실 등의 공간에 어울리는 그림, 조각 등의 미술작품을 제안하고, 미술품을 설치·관리하는 자



✓ 주요 진출 및 취업처

전문 미술 임대 및 판매업, 전문 미술 경매업

✓ 적합한 사람

- ▶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지닌 사람
- ▶ 회화·조각 등 미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영학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하는 일

- ▶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고객의 취향이나 분위기, 가용예산 등을 파악
- ▶ 미술품이 설치될 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이미지에 맞는 미술품을 선정하고 고객에게 제시
- ▶ 설치될 미술품을 컴퓨터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가상공간에 배치하여 고객에게 제시하고, 고객의 최종 승낙을 수락
- ▶ 적합한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적합한 미술품 소장자를 물색하여 미술품을 임대
- ▶ 최종 선택된 미술품을 공간에 설치하거나 설치를 감독하고 미술품을 판매하거나 임대



필요역량

지식 예술, 디자인, 상품 제조 및 공정, 영업과 마케팅, 고객 서비스

기술 시각적 감각

태도 꼼꼼함, 사회성, 정직성, 혁신

전공 관련 진출 직업 정보



경력개발방법

- ▶ 관련 전공: 고고미술사학과, 미술 관련 학과, 경영학과 등
- ▶ 대학 교과목: 박물관학 입문, 현대미술과 시각문화, 한국의 근현대미술 등
- ▶ 대학 내 비교과프로그램: 대학 미술관·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를 경험함으로써 미술관 관련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음.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미술품과 공간의 어울림을 시뮬레이션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포토샵 등을 학습하면 유리함.
- ▶ 일경험: 아트컨설팅 관련 회사 인턴
- ▶ 자격증: 박물관·미술관 학예사(국가)
- ▶ 자기주도적 활동: 갤러리에서 근무를 하는 등 미술과 관련된 일에 경험이 있으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됨.



주요 진입 과정

- ▶ 진출자 전공 영역: 역사적 가치를 지닌 미술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미술품을 조언할 수 있으며, 미술품의 판매 및 임대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경영학과 연계할 수 있음.
- ▶ 경력경로: 4년제 대졸 이상으로 미술 관련 전공을 하거나 갤러리에서 근무를 하는 등 미술과 관련된 일에 경험이 있으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며, 전시회를 자주 방문하여 그림이나 미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고 그림, 조각 등의 미술품을 공간과 매칭시키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음.



관련 정보처

- ▶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
- ▶ 국립현대미술관 www.mmca.go.kr
- ▶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www.artmuseums.or.kr
- ▶ 한국미술이론학회 www.arttheory.org
- ▶ 현대미술학회 socas.jams.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직업 특성상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 그리고 스스로 일을 만들고 뛰어야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주도적인 성향이 필요합니다. 입직을 위해서는 갤러리나 화랑에서 인턴십을 하거나 작품설명을 하는 도슨트 활동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작가에 관해 꾸준히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MEMO

MEMO

| 연구진 이영광(한국고용정보원)

최영순(한국고용정보원)

변정현(한국고용정보원)

이윤선(한국고용정보원)

박세정(한국고용정보원)

김여진(한국고용정보원)

※ 저작권법에 의거, 허락 없이 이 책의 내용 및 그림을 무단으로 발췌·복제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대학 전공별 경력 가이드

역사·고고학

| 발행일 2023. 12.

| 발행인 김영중

| 발행처 한국고용정보원

| 인쇄 스톤앤(주)

| ISBN 979-11-7073-066-8



